

#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 1차년도(문항개발) -

책임 연구자 : 황 순 길

공동 연구자 : 김 동 민

김 화 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 185

##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1차년도(문항개발)-

인쇄 : 2015년 12월

발행 : 2015년 12월

저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발행인 : 권승

발행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134 / F. (051)662-3005

<http://www.kyci.or.kr>

인쇄처 : (주)다찬

(비매품)

ISBN 978-89-8234-578-4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 1차년도(문항개발)  
/ 책임연구자: 황순길 ; 공동연구자: 김동민, 김화연.  
-- 부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  
p. ; cm. -- (청소년상담연구 ; 185)

권말부록 수록

참고문헌 수록

영어 요약 있음

ISBN 978-89-8234-578-4 94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 (세트) 94330

청소년 상담[靑少年相談]

청소년 문제[靑少年問題]

334.3-KDC6  
362.7-DDC23

CIP2015033389

# 간행사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며, 새로운 역할과 선택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청소년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도 있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 뿐 아니라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 등 환경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사이버 폭력, 인터넷 중독,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도 갈수록 저연령화·범죄화되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후 개입은 해당 청소년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위기·취약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사후개입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2009년과 2010년, 청소년 위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더욱이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 청소년 위기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를 2년에 걸쳐 추진하려고 합니다. 1차년도인 금년에는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 및 스마트폰 중독 관련 문항을 보완하고 보호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항을 추가하는 등, 최근 이슈화된 문제들을 반영한 다수의 신규 조사문항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문항 개발 후 시범조사를 실시해 문항 타당성을 검증하였습니다. 2차년도인 내년에는 전국적인 청소년 위기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이 처한 위기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뿐 아니라 추후 청소년 위기 실태에 대한 종단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경향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청소년 문제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구 수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본원의 황순길 상담교수, 김화연 상담원, 공동연구자인 중앙대학교 김동민 교수님, 그리고 연구지원을 해주신 김다희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성신여자대학교 강태훈 교수님, 전문가협의회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 문항검증을 위한 의견조사에 참여해주신 학계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가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청소년들과 바쁜 와중에도 설문에 도움을 주신 각 급 학교 교사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본 연구가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지원방향을 수립하는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 장 권 승 

# 초 록

최근 청소년의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며, 위기청소년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결국 정부는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정부의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청소년의 위기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행하여져 왔다. 그러나 연구마다 실태조사 도구들이 다르고 대상이나 규모도 다 달라서 위기청소년의 실태변화를 비교해보고 향후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체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초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2차년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1차년도인 올해는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 문항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어 2차년도인 내년에는 전국적인 청소년의 위기실태를 조사하고 그간의 변화도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먼저, 위기청소년의 개념은 문헌과 선행연구의 다양한 개념들을 토대로 재정립하였다. 즉, 위기청소년이란 개인적·가족적·교육적·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서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은 물론 학교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청소년이라고 정의내렸다. 이러한 위기청소년은 가출, 비행 및 범죄, 학교부적응과 학업중단, 인터넷중독이나 스마트폰중독, 폭력, 약물, 성매매 및 성폭력, 자살, 직업훈련기관이나 직장 부적응 등의 행동을 나타낼 위험이 높다.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개념과 현재 시점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들을 고려하면서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문항구성 과정에서는 2005년부터 실시된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문항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분석하였고, 특히 다른 실태조사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2010년도 청소년 위기실태조사와 추후 종단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2010년 문항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문항들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수정한 후 1차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초·중·고 358명, 학교밖 청소년 28명 등 총 38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와 탐색적 요인분석, 그리고 전문가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문항을 개발하였다. 최종문항은 위협요인 46문항, 위기결과 43문항, 보호요인 15문항과 일반적인 특성 16문항 등 총 1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협요인과 보호요인은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 영역으로 나누어 청소년들의 위협요인과 보호요인의 현황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위기결과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위기행동을 실행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

들로 구성되었다. 최종문항을 활용하여 초·중·고 일반학생 455명과 학교밖 청소년 57명, 총 512명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범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와 확인적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2015년도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문항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앵고프(Modified Angoff) 방식을 통해 위험수준의 기준점수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10인의 협력 하에 전체 청소년을 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는 분할 기준점수를 구하였다. 그러나 위험수준과 위기결과를 통합하여 위기 6수준으로 구분하는 분류는 추후 비교를 위하여 2010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본 시범조사 분석결과, 청소년들은 위험요인 척도에 있어서의 위험수준이 고위험군 3.1%, 잠재적 위험군 12.7%, 일반군 84.2%로 나타났다. 위기수준별로 살펴보면, 1수준이 2.5%, 2수준 5.9%, 3수준 7.4%, 4수준 0.6% 등 전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16.4%로 나타났다. 5수준의 잠재군은 6.8%, 6수준의 일반군은 76.8%로 나타났다. 위기결과를 위기수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위기결과는 1, 2, 3 수준인 위험군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기수준과 보호요인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1수준에서 3수준까지는 대체로 보호요인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범조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 부처간 효율적 연계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셋째, 위기청소년 유형별, 수준별 맞춤형 위기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청소년 문제 예측과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

<b>I. 서 론</b>	<b>1</b>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 과제	3
<b>II. 이론적 배경</b>	<b>4</b>
1. 위기청소년의 개념	4
2. 위기청소년의 특성과 유형	7
가. 위험요인	7
나. 보호요인	9
다. 위기 수준 및 유형	10
3. 청소년 위기실태조사관련 선행연구	14
가. 선행연구	14
나. 선행연구에 따른 시사점	17
<b>III. 연구 방법</b>	<b>21</b>
1. 연구방법 및 절차	21
2. 위기실태조사 문항개발 및 타당화	22
가. 문헌 연구	22
나. 1차 문항 구성	22
다. 전문가 검증을 통한 타당화 작업	24
라. 청소년 면접 실시	32
마. 예비조사 및 요인분석	33
바. 최종문항 선정	37
사. 최종문항 구성	38
3. 시범조사 실시	40



가. 시범조사 및 요인분석 .....	40
나. 위기수준 결정 .....	49

#### IV. 시범조사 결과 분석 | 55

1. 조사대상 .....	55
2. 위기수준 .....	62
3. 위기결과 .....	63
4. 위기수준별 위기결과 .....	70
5. 보호요인 .....	73

#### V. 요약 및 논의 | 76

1. 요약 .....	76
2. 논의 및 제언 .....	78

#### ■ 참고문헌 \_ 83

#### ■ 부록 \_ 89

1.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설문지 .....	90
2.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	100
3. 1차 설문문항(예비조사) 요인별 구분 - 위험요인 / 보호요인 .....	108
4. 최종 설문문항(시범조사) 요인별 구분 - 위험요인 / 보호요인 .....	110
5. 전체 위기결과 분석 .....	112
6. 2015년 문항과 선행연구 문항 비교 .....	116
7.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척도의 ANOVA 및 사후검증 결과 .....	127

#### ■ Abstract \_ 130

# 표목차

표 1. 청소년 위기 유형	14
표 2. 선행연구 문항분석 비교표	18
표 3. 선행연구 결과 비교표	20
표 4. 위험요인 문항 구성	23
표 5. 위기결과 문항 구성	23
표 6. 보호요인 문항 구성	24
표 7. 전문가 검증 결과	25
표 8.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28
표 9. 요인분류에 대한 전문가 의견	31
표 10. 예비조사 대상 분포	33
표 11. 예비조사 위험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33
표 12. 예비조사 보호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34
표 13. 예비조사 위험요인 요인분석	35
표 14. 예비조사 보호요인 요인분석	37
표 15. 최종문항 선정 결과 비교	38
표 16. 위험요인 문항	38
표 17. 위기결과 문항	39
표 18. 보호요인 문항	39
표 19. 위험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40
표 20. 보호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41
표 21. 위험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집중타당성)	43
표 22. 판별타당성 검증 방법	45
표 23. 위험요인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1	45
표 24. 위험요인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2	46
표 25. 보호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집중타당성)	48

표 26. 보호요인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1 .....	48
표 27. 보호요인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2 .....	49
표 28. 위험요인의 위험수준 기준점수(원점수) .....	50
표 29. 하위요인 및 전체 절단점(z점수) .....	50
표 30. 위험요인에 있어서의 위험수준별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 추정치 ...	51
표 31. 2010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 도출한 분할점수 .....	51
표 32. 위험요인에 있어서의 위험수준별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 추정치 (2010년 절단점 적용) .....	52
표 33. 위기수준(위기 6 수준) 분류 .....	53
표 34. 위기수준(위기 6 수준) 분류 설명 .....	53
표 35. 위기결과 항목에 해당되는 문항과 수준 .....	53
표 36.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시도별 분포 .....	55
표 37.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성별 분포 .....	56
표 38.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학교별 분포 .....	56
표 39.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학년별 분포 .....	57
표 40.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거주형태별 분포 .....	57
표 41.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부모 출신국별 분포 .....	58
표 42.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분포 .....	58
표 43.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분포 .....	59
표 44.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물질적 지원 여부 분포 .....	59
표 45.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정서적 지원 여부 분포 .....	60
표 46.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도움을 청할 사람 여부 분포 .....	60
표 47.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1388 전화 인지도 분포 .....	61
표 48.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1388 전화 이용 여부 분포 .....	61
표 49.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도 분포 .....	62

표 50.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여부 분포 .....	62
표 51. 위험요인에 따른 위험수준 분포 .....	62
표 52. 위기수준 분포 .....	63
표 53.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 분포 .....	64
표 54.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약물 위기 분포 .....	64
표 55.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학교폭력 위기 분포 .....	65
표 56.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비행 위기 분포 .....	66
표 57.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자살 위기 분포 .....	67
표 58.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성문제 위기 분포 .....	67
표 59.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가출 위기 분포 .....	68
표 60.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학업중단 위기 분포 .....	69
표 61.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직장생활 부적응 위기 분포 .....	69
표 62. 위기수준별 위기결과 .....	71
표 63.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74
표 64. 집단 간 평균 차 검증결과(보호요인 전체 점수 및 5개 하위요인 척도 점수) 75	

# 그림목차

그림 1. 위기의 진행 과정 .....	11
그림 2. Connexions의 청소년 위기수준 .....	12
그림 3. 연구방법 및 절차 .....	21
그림 4. 위험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	42
그림 5. 타당성 구분 .....	42
그림 6. 보호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	47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청소년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데, 이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청소년 문제나 위기 상황이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위기상황은 과거에는 주로 빈곤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개인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위기 문제가 발생(구본용 등, 2005)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청소년의 증가, 가출, 은둔형 외톨이,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자살 등 청소년의 문제가 점차 단일적인 양상을 띠기보다는 중복적·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윤철경, 2005; 배주미 등, 2010)이 커지면서, 단일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총체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위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청소년의 위기문제에 어떻게 통합적으로 개입할 지가 더 주목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학업중단을 하게 되고 얼마 후 가출하면서 부적절한 숙식, 거리생활로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어 좌절감, 소외감 등 심리·정서적 문제가 발생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도 청소년의 폭력, 약물남용, 윤락행위 등 비행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강성래, 2003)면, 이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인식과 청소년 위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리하여 청소년이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청소년 위기문제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라 본다.

OECD(1995)에서는 ‘위기청소년(youth at risk)이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직업이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 충분히 기여(full contribution)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이라고 정의하였다(Evans, 2005). 윤철경 등(2006)은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정의하면서, 청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으로 극심한 빈곤, 가족해체, 학교부적응, 비행 등을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위기청소년지원(제5장)과 관련하여 상담과 교육,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행·일탈청소년과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제8조)에는 특별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첫째,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둘째,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셋째,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위기행동 중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면, 먼저, 가출 청소년의 경우 2008년에만 가출청소년이 23,097명에 이르며, 경찰에 신고 되지 않는 가출을 포함한다면 연 7만-10만명이 가출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김향초, 2009)는 연구보고가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2007)에 따르면, 쉼터거주 가출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가출한 나이는 남자가 평균 13.2세이고 여자가 평균 14.5세이었으며, 첫 가출은 13세 이하가 48%, 14-16세가 43.9% 순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또한 가출 후 겪는 비행 및 범죄는 가출이전에 비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 나이에 첫 가출은 이후 재가출로 이어지면서 점차 심각한 비행청소년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게 한다(김성경 1997; 한국여성개발원, 1997).

학업중단청소년은 매년 6-7만 명에 이르며(교육부, 2013),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이 28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윤철경, 2014)가 있다. 이외에도 학업을 중단하고 싶어 하는 잠재적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생 28.8%, 중학생 48.6%, 고등학생 48.6%로 나타나 학업중단에 노출된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정제영, 2014). 학교를 떠난 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여러 신체적·심리적·정신적으로 중복적인 위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55.5%가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며(여성가족부, 2011), 학업중단 이후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소년교도소 경험이 38.8%에 이르고, 50%가 NEET형으로 지내며, 짬짬방이나 PC방, 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경우도 26.1%나 된다(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2010).

이렇듯 청소년 문제는 복합적이며 중복적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여있고, 위기청소년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 문제는 점차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현재 여성가족부에 이르기까지 위기청소년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법에서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정부의 위기청소년 정책과 지원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우선 현재 청소년이 처한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위기상황, 위기유형과 수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2006년부터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09년과 2010년에는 전국수준의 대규모 청소년 위기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다른 선행연구들이 다수 있다. 그러나 연구마다 실태조사 도구들이 모두 다 다르고 대상이나 규모도 달라서 위기청소년의 실태 변화를 비교해보고 향후 추세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체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2010년도 위기실태조사는 설문문항과 조사대상, 그리고 조사규모 면에서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의 위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실태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위기실태 결과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종단적으로 살피고 문제행동에 대한 예측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위기청소년 정책 및 지원사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면 매우 의미있는 연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에 걸쳐 실태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전국적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올해 연구는 1차년도 연구로서, 실태조사 문항 개발과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2차년도인 내년에는 전국적인 청소년의 위기실태를 조사하고 그간의 변화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2. 연구 과제

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정립한 후, 이에 근거하여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도구를 개발한다.

둘째,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도구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다.

셋째, 시범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전국 규모의 종단적 평가의 기초를 마련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위기청소년의 개념

위기에 관한 연구는 그 접근방법에 있어 다양하고, 이론적·임상적인 면에 있어서 복합적이기 때문에 위기의 개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김기태, 2006).

위기관 사전적으로는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sup>1)</sup>를 의미하며, 기존의 사회제도에 의해 수행되는 어떤 필수적 기능을 와해시키는 파국적 사건뿐만 아니라 정서적 변화와 고통을 겪는 내부적 경험이란 의미도 포함한다<sup>2)</sup>. 위기라는 용어는 원래 그리스어의 'Krisis'에서 나온 것으로 결정 혹은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한자로 危機(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France, 1990; 김기태, 2006 재인용). 또한 Caplan(1964)에 의하면 인간유기체는 끊임없이 외부 환경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유지된 균형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위협을 받아 균형상태가 혼란을 겪게 되는 상태를 위기라고 보았다(김기태, 2006 재인용). 즉, 안정적인 상황에서 항상 사용해오던 대처전략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을 우리는 위기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흔히 위기를 부정적인 생활사건으로 지각하지만, 이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사건을 해결하는 새로운 대처방법을 찾아낸다면 스스로를 성숙시키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박재연(2010)은 '위기'란 역경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한다면 원만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어진 상황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후퇴해 버리는 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최근의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위기' 보다는 '위기청소년(Youth at risk)'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위기청소년을 일컬을 때는 crisis보다는 at risk로 쓰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OECD에서도 위기청소년을 Youths at risk로 표현하고 있다(Evans, 2005). 이렇다 보니 연구자들마다 개념정의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념 정의상의 차이나 어려움은 위기요인(risk factors)이나 위기행동(risk behaviors)이라는 용어와도 혼용됨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위기(at risk)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범위가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의미가 더 다양하고 광범위해지면서 나타나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이에 윤철경 등(2006)은 실제 학자나 청소년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요인들을 위기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빈곤, 학대, 부모의 사망,

1) 다음국어사전 <http://dic.daum.net>

2) 사회복지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

학교부적응, 십대임신, 소년비행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위기라는 용어를 적용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동의가 없이 다양한 의미로 또는 모호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청소년의 위기나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cWhiter 등은 위기(at risk)를 ‘현재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을 경우 미래에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적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흡연은 음주의 위기, 음주는 마약복용의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초등학교 때 행동장애, 공격성, 학업부진 등을 보인 학생이 이후 청소년기에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McWhiter, J. J., McWhiter, B. T., McWhiter, E. H., & Mcwhiter, R. J., 2007). 이와 같은 정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계속 중복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근 위기청소년이란 용어는 미국의 교육 수월성 추구를 위한 국가위원회 보고서(1983)가 중도에 학업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구본용 등, 2005 재인용). OECD(1995)가 정의한 바에도, 위기청소년(Youth at risk)이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직업이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해 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 충분히 기여(full contribution)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을 말한다. 즉, 위기청소년이란 학교부적응·학업중단, 폭력, 성, 약물, 가출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집단으로, 성인 역할을 제대로 못해 사회에의 기여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OECD 교육국의 Peter Evans(2005)는 이러한 청소년문제가 한 가지 위기요인은 지나치게 해롭지 않지만, 두 가지 위기요인은 위기상태를 4배로, 네 가지 위기요인은 위기상태를 10배로 증가시킨다는 연구를 인용하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민관 및 비영리 영역을 포함하는 각 영역간의 협력(cross-sectoral involving public-private and independent sectors)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이 정의는 OECD 회원국들 간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의 적응 여부 외에도 직업교육기관에서의 이탈, 그리고 실직상태에 있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는 청소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구본용 등, 2005). 즉, 스위스는 위기청소년을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 중학교 중퇴자, 고등학교 미진학자, 직업교육훈련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 직업교육 중퇴자, 고등학교 교육을 마쳤으나 실업자인 청소년 등으로 학업, 직업교육 중단과 실업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르웨이 역시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교육과 직업적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윤철

경, 2005). 이스라엘에서는 적절한 학업활동, 사회생활, 가족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에 해가 되는 상황이나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면서, 교육적 위기상황, 개인적 위기상황, 사회적 위기상황, 가족적 위기상황을 청소년의 중요한 위기상황과 징후로 제시하고 있다(Chaim Lahav, 2005). 여기서 교육적 위기상황은 낮은 성취도, 학교부적응, 학습부진, 학습흥미 부족, 잦은 결석 등이 포함되며, 개인적 위기상황은 낮은 자아존중감, 무력감, 약물복용 등의 위험행동을 포함한다. 사회적 위기상황에는 폭력·범죄에의 연루, 성적 학대, 가족이나 환경 등에 범죄자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되며, 가족적 위기상황에는 이주가족, 이혼, 한부모, 사망, 질병, 방임, 학대, 경제적 빈곤, 부모의 기능문제 등이 포함된다.

구본용 등(2005)은 위기청소년을 일련의 개인·환경적 위협에 노출되어 행동·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개인·환경적 위협이란 위험요인을 말하며, 청소년의 행동·심리적 문제는 위험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발생한다. 즉, 가출, 학업중단 및 실업, 폭력·성매매·약물 오남용 등의 비행 및 범죄, 불안·우울 등 심리적 장애, 자살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을 위기청소년으로 보았다. 윤철경 등(2006)은 위기청소년이란 구체적인 위기행동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는 청소년들로 정의하였다. 즉, 개인적으로 성격이나 기질 면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가정에서 언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 가정폭력의 가능성이 크며, 부모로부터 효과적이지 못한 감독과 훈련 기술을 제공받고, 학교 무단결석과 기타 학교문제로 인한 실패, 그리고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 빈곤상태에서의 삶을 사는 청소년들로 정의내렸다.

또한, 강석영 등(2009)은 위기청소년을 가정이나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결손가정, 경제적 인 문제, 학교폭력 피해, 유해환경 등의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힘든 위험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현, 윤명성(2007)은 위기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탈한 청소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을 개인적·가족적·교육적·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서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은 물론 학교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청소년이라고 정의내리고자 한다. 이러한 위기청소년은 가출, 비행 및 범죄, 학교부적응과 학업중단, 인터넷중독이나 스마트폰중독, 폭력, 약물, 성매매 및 성폭력, 자살, 직업훈련 기관이나 직장 부적응 등의 행동을 나타낼 위험이 높다.

## 2. 위기청소년의 특성과 유형

### 가. 위험요인

윤철경(2005)은 약물·폭력·가출·범죄 등 문제행동으로 표출되는 개인적 위기상황, 빈곤·가족해체·학대 등 가족적 위기상황, 학습부진·학업중단 등 교육적 위기상황, 그리고 실업·범죄 피해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위기상황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네 가지 위기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경우 위기청소년은 한 가지 문제보다는 몇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는 위기청소년이 처해있는 위기상황이 여러 문제들의 조합 결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위기청소년들이 나타내는 문제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구본용 등, 2005).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위기에 이르는 요인을 위험요인(risk factor)으로 설명하였다. 위험요인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발달상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평균적으로 높은 특성이나 변인을 말하는 것으로(Pollard et al., 1999; 유영준, 오윤수, 2013 재인용) 위험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위기결과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Garnezy(1990)는 위험요인이란 일반청소년 집단과 비교하여 청소년들이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라고 정의하였으며, Horowitz(1987)는 인간의 타고난 특성이 환경적 질과 독특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발달모형을 주장하면서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또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Bronfenbrenner(1979) 역시 인간의 발달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였으며, 생태학적 이론을 통해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 환경 등 다양한 환경요인이 상호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청소년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Lerner(1991)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청소년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들의 발달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생태학적 모형은 청소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에 대해 거시적이며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이준기, 정경용, 김용수, 2012 재인용)고 하였다.

이에 국내외 연구자들도 위험요인을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와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강근모, 이준기, 2015; 김보영, 이정숙, 2009; 오승환, 2010; 이상균, 2000; 전영천, 2010; 정묘순, 서수균, 2014; 진혜민, 배성우, 2012; 황혜원 등, 2006; Garnezy, 1990). 그리고 그동안의 누적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문제행동 및 위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혀냈다(이창호 등, 2013; 진혜민 등,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위험요인을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 및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 수준의 위험요인 중 광범위하게 거론되는 것은 우울과 공격적 행동이다. 이들 변

인은 그 자체로서 위험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후의 발달적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개인요인으로는 정신건강 문제, 낮은 자존감 및 학습동기, 비행 등(유성경, 이소래, 송수민, 2000)이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 중 우울은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최대의 변인(강혜원, 김영희, 2011; 이해경, 2002; 광금주, 문은영, 1993)이며, 청소년 비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민원홍, 2013; 이혜순, 옥지원, 2012; 이석형, 2007). 또한 자살이나(김보영, 이정숙, 2009), 가출의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한다(강근모, 이준기, 2015). 또한 공격성이나 충동성 역시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진혜민 등, 2011), 공격성을 적절히 발산하지 못하면 위기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Loeber & Stouthamer-Loeber, 1987; 임진섭, 2009 재인용). 충동성 또한 흡연(전영천, 2010)과 비행의 위험요인이다(진혜민 등, 2012).

둘째, 가족은 청소년에게 직접적이며 강력하게 작용하는 중요한 체계이다. Johnson(1997)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요인을 4가지 범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가족위험요인으로 부모나 형제의 약물남용, 부모의 수퍼비전 부족, 부모의 교육적 지지와 개입의 결여, 부모가 연루된 범죄행동, 학교 중퇴한 형제, 이주가정, 가정폭력을 들었다(배주미 등, 2010 재인용). 특히 갈등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위험요인이며 (이석형, 2008; 이주리, 2011). 자녀와 부모 간의 유대감 부족(Blum, 1998; 배주미 등, 2010 재인용), 가정불화(이석형, 2007) 등도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가족갈등, 부부갈등, 신체학대, 언어학대, 방임 역시 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진혜민 등, 2012).

셋째, 또래는 청소년 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이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고 따돌림을 당한다면 학업중단을 하거나(김옥엽 등, 2004), 범죄행동이나 폭력과 같은 행동을 보일 수 있다(한종철, 김인경, 2000). 집단 괴롭힘으로 또래들로부터 소외와 폭력으로 인해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우울, 불안, 심지어 자살과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한다(이해경, 김혜원, 2001). 또한 청소년들은 주변의 친한 또래가 비행을 할 경우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원, 2003). 청소년들은 또래비행청소년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행이 더 급증하게 되고 만성적인 비행에 빠지기 쉽다(Coie & Miller- Johnson, 2001; 배주미 등 2010 재인용). 부정적 또래압력, 비행또래 접촉은 흡연(전영천, 2010), 비행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며(진혜민 등, 2012), 특히 또래변인은 가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강근모 등, 2015).

넷째, 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와 교사와의 관계도 청소년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행청소년들의 32.8%가 ‘학교를 혐오’하고 있으며 62.2%는 ‘공부가 하기 싫다’고 응답하였고, 교사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거나 싫어하는 비율이 일반학생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해경, 2003). 교사의 관심과 지지의 부족은

학교에착과 학교몰입을 방해하여 청소년 학업과 학교에 대한 무관심을 유발하고, 수업시간이나 과제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 학업성취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정익중, 2009). 또한 Goldberg(1999)는 근신, 정확, 무단결석 등 학교에서의 부정적 경험도 학업중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Jang(1991)은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학생일수록 비행과 폭력 행동에 더 많이 관련되었다(김동일, 최수미, 2009 재인용)고 하였다. 낮은 학습의욕, 부정적 교사관계는 인터넷중독, 비행에 영향을 미치며(이준기, 정경용, 김용수, 2012; 진혜민, 배성우, 2012), 학교폭력 및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자살의 위험을 높인다(김보영, 이정숙, 2009).

다섯째, 지역사회는 청소년을 둘러싼 외부환경으로, 지역사회가 빈곤 등 물리적 측면에서 낙후되거나 범죄 등 위기행동이 가능한 유해한 환경일 경우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많이 발생한다(강석영 등, 2009; 김순규, 2008).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소외나 낮은 사회적 유대감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소외는 청소년이 따를 만한 역할모델이 존재하지 않고 문화적 학습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Sampson & Wilson, 1994).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긍정적인 역할모델이 부재할 경우 비행에 빠져들 위험이 더 많다. 즉, 지역사회 소외와 유대의 약화로 인해 사회규범이 악화되어 비행으로 빠져들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다(Hagan, 1994; 배주미 등, 2010 재인용).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비행을 학습하게 되고(진혜민 등, 2012), 이는 청소년의 위기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나. 보호요인

청소년문제행동의 심각성이 증대됨에 따라 비단 청소년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청소년문제행동을 억제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들도 다양하게 수행되었다(김진호, 2010; 한상철, 2010).

보호요인은 부정적 결과가 예측되는 위기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정상발달을 이끄는 요인으로서,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립변인인 동시에 위험요인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완충하는 조절변인으로서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권재환, 이은희, 2006; 한상철, 2008). 따라서 Smith와 Carlson은 청소년 발달에서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보호요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체계적 접근을 기반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이준기, 정경용, 김용수, 2012 재인용).

위기청소년의 보호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요인은 위기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서, 심리적 요인과 유능감 등을 말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비행을 유발하는 충동과 불안 등의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 및 통제할 수 있고 과제해결에 자신감이 높으며, 대인관계에서 유연성과 탄력성이 높아 위험요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한상철, 2008). 이 외에도 적극적인 대처전략, 자기효능감 등이 청소년의 적응을 도와(유인선, 2011) 자살, 가출 등의 생각을 억제한다(문동규, 2012).

둘째, 가족보호요인으로는 원만한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지, 양육태도 등을 주요 보호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구본용, 유제민, 2003). Blum(1998)은 성격, 가족, 환경 요인의 3가지 보호요인에 초점을 두어 위기청소년을 설명하였는데, 이 중 가족요인으로 부모와의 유대감, 가족유대(cohesion), 가족구조, 형제 친밀감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적절한 관리와 감독은 인터넷중독, 가출, 비행 등의 위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이준기 등, 2012 재인용).

셋째, 청소년기에는 또래집단과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중 친구의 지지는 학업 스트레스, 교사나 또래집단과의 관계 등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강석영 등, 2009).

넷째, 또래지지 못지않게 교사지지와 학습에 대한 흥미는 학교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과 학업중단이라는 위기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돕는다(이준기, 정경용, 김용수, 2012).

다섯째, 사회적 지지 또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유인선, 2011). 종교나 지역사회 운동팀과 같은 청소년들의 단체활동 참여 역시 위험행동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다. 위기 수준 및 유형

청소년의 위기는 내용에 따라 수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위기 수준을 정상생활 수준의 일반군에서부터 고위험 수준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위기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개입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위기수준과 위기유형을 분류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Burt 등의 분류

Burt 등(1992)은 학업중단, 알콜과 같은 약물사용, 범죄 행동 등 고위험 수준의 경험을 하는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법과 서비스 증가를 목적으로 위기에 대한 개념적 틀을 4가지 위기 수준으로 나누었다(구본용 등, 2005; 배주미 등, 2010).

- 위기 전조(risk antecedents) : 이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 미래의 문제에 대한 취약



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적 제세력(environmental forces)을 뜻하는 것으로, 빈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웃 환경 등이 이에 포함된다.

- 위기 표식(risk markers) :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적·맥락적 요인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불화가 심한 가정환경, 가정 폭력 및 학대, 부모의 이혼, 자연적 재해, 정체성 위기, 고용주의 착취 및 임금체불, 친구들과의 불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문제행동(risk behaviors) : 이는 위기 전조 및 위기 표식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나타내 보이는 쉬운 부정적 행동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심리적·신체적 안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 성매매, 흡연 및 음주, 자살충동 및 시도, 비행친구들과의 어울림, 빈번한 무단결석, 폭력 및 권위적 인물과의 갈등 등이 해당된다.
- 위기 결과(risk outcomes) : 청소년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대표되는 사회 안전망에서 이탈하여 성장에 명백히 부정적 결과를 낼 수 있는 조건으로, 가출, 범죄, 학업중단, 정신적 장애 및 자살 등의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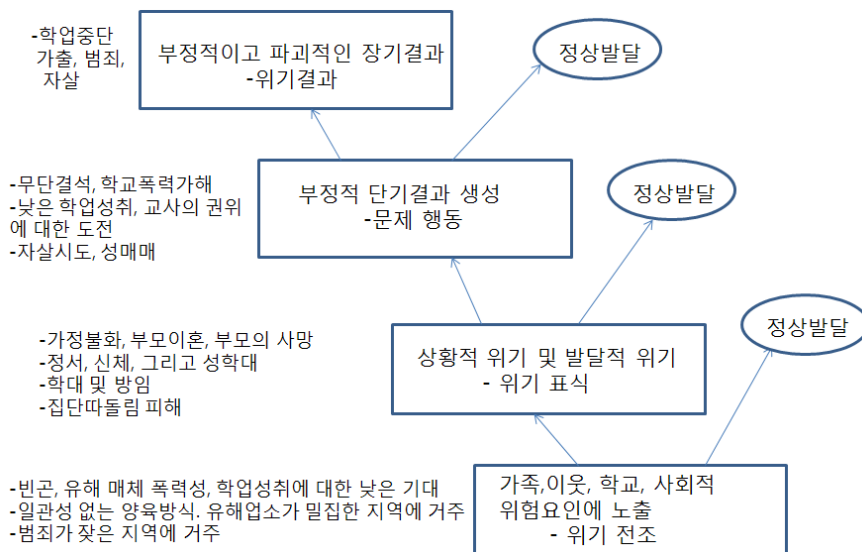


그림 1. 위기의 진행 과정

## 2) Connexions의 분류

영국의 Connexions 프로그램은 2001년에 13세-19세의 위기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민간, 비영리기관이 협력하여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Connexions는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낮은 단계, 중간

단계, 높은 단계로 구분하였다(윤철경, 2005).

- 낮은 단계 :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별 문제가 없으며 학업성적도 우수한 집단이 해당된다. 학업과 진로상담 정도가 필요한 수준이다.
- 중간 단계 : 이 단계는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복합적인 위기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안전하고 평화롭게 성인기로 넘어가도록 해야 할 집단이다.
- 높은 단계 :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이미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집단이며,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도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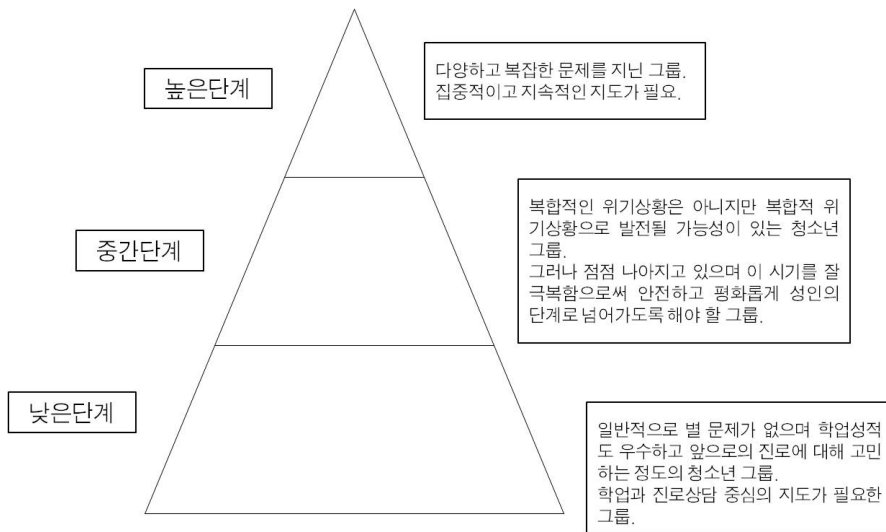


그림 2. Connexions의 청소년 위기수준

### 3) 지승희 등의 위기수준 분류

지승희 등(2006)은 전국의 1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상담자에게 문제행동, 환경영역, 정신건강 영역에 해당되는 가상 사례를 제시하고 위험성 수준 및 위기 수준을 평정하도록 한 다음, 평정 내용 일치도가 70% 미만인 영역에 대해 전문가 합의를 거쳐 위기수준의 기준을 확정하였다.

- 1수준(고위험군) :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파괴적인 위기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로, 자살시도, 집단폭행, 반 전체의 왕따, 성폭행 피해 및 가해, 성매매, 은둔형외톨이, 게임중독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학대, 유기,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환경 영역에 속한다.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있다.

- 2수준(위험군) : 파괴적이지는 않지만 위기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로, 자살에 대한 잦은 생각, 친구들과의 왕따, 도벽, 가출경험, 무단결석 등의 문제행동과 부모와의 갈등이나 의사소통 결여 등의 가정적 환경영역에 속한다. 심리적 문제를 개인 스스로 통제 못하는 상태이다.
- 3수준(잠재적 위험군) : 위기상황이 나타날 잠재적 조건을 갖춘 경우로, 흡연 및 음주 등의 문제행동과 비행친구들과의 어울림, 교사와의 갈등, 유해환경 노출 등의 환경적 영역에 속한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 4수준(정상군) : 문제 및 잠재적 조건을 보이지 않는 경우이다.

#### 4) McWhiter 등의 위기수준 분류

McWhiter 등(2007)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그에 따른 문제 상황을 연속선상에서 발전해 갈 수 있는 5단계 위기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윤철경, 2005; 배주미 등, 2010).

- 최저위기(minimal risk) : 좋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고, 학교나 가족 환경, 사회관계가 긍정적이며 심리적 환경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 저위기(remote risk) : 최저위기에 비해 약간은 부족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고, 약간은 부족한 가정, 학교, 사회관계를 갖고 있으며 몇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단계이다.
- 고위기(high risk) : 부정적인 가족, 학교, 사회관계 하에 스트레스 요인이 많으며, 부정적인 태도나 감정, 기술 부족 등 개인적 위기징후로 발전되는 단계이다.
- 위기행동 임문(imminent risk) : 청소년이 어느 한 가지 유형의 문제행동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 위기행동(at-risk category activity) : 임문수준의 행동에서 다른 범주의 위기행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이다.

#### 5) 구분용 등의 위기유형 분류

구분용 등(2005)은 위기청소년의 경우 한 가지 위기로인을 갖고 있기보다 동시에 몇 가지 위기로인들을 갖고 있다고 보고, 위기청소년이 처해있는 상황을 Chaim Lahav(2005)와 윤철경(2005)이 제시한 네 가지 위기상황(개인적 위기상황, 가족적 위기상황, 교육적 위기상황, 사회적 위기상황)을 토대로 하여 4가지 유형으로 조합하여 구분하였다.

- 유형 I : 청소년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의 위기상황 내에 있는 경우이다.
- 유형 II :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위기상황 내에 있는 경우이다.

- 유형 III :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위기상황 내에 있는 경우이다.
- 유형 IV :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네 가지 모두의 위기상황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이다.

표 1. 청소년 위기 유형

유형	위기상황
유형 I	개인
	가족
	교육
	사회
유형 II	개인×가족
	개인×교육
	개인×사회
	가족×교육
	가족×사회
	교육×사회
유형 III	개인×가족×교육
	개인×가족×사회
	개인×교육×사회
	가족×교육×사회
유형 IV	개인×가족×교육×사회

구분용 등(2005)은 이러한 위기상황들의 조합이 결국은 위기청소년들을 둘러싼 위기상황이 단일요인보다는 두 가지 이상이 복수로 중복되어 나타날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위기문제들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어느 한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처한 복수의 위험요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3. 청소년 위기실태조사관련 선행연구

#### 가. 선행연구

##### 1)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2005)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구분용 등, 2005)는 위기(가능)청소년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분석하고, 지역중심의 위기(가능)청소년을 사전에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및 부모·가정을 중심으로 한 다차원적인 지원방안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팀의 문항개발, 전문가 자문 및 타당도 검토, 예비검사 실시 및 결과분석을 거쳐

최종 문항을 개발하였다.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는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 등 5개 영역으로 각각 구분하였고, 위기결과 영역으로 가정, 가출, 학업중단, 학교폭력, 약물, 인터넷 중독, 성폭력 피해, 절도, 자살 등을 척도에 넣어 위기평정척도를 개발하였다. 위기수준은 1수준(보통), 2수준(잠재적 위험군), 3수준(고위험군)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고등학생 984명만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위기상황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일반 학생이 아닌 학교밖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을 탐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2)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윤철경 등, 2006)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지원체계사업 실태를 분석하여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동반자 대상의 위기청소년 상담사례(상담기록지)를 분석하여 위기청소년의 특징과 위기로인,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특징을 밝혔다. 청소년 위기 조사영역으로는 개인적 특징 및 개인 위기영역, 가정환경 및 가족위기 영역, 개인 위기영역으로 나누었으며, 특히 개인 위기영역 항목에 정서 및 정신건강, 약물문제, 성문제, 폭력문제, 자살문제, 학대피해, 행동문제(인터넷중독, 절도, 갈취 등), 가출문제 등을 포함하였다. 보호요인 조사영역으로는 개인 보호영역, 환경 내 보호영역으로 나누어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위기수준은 저, 중, 고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조사대상을 2006년 통합지원체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37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중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7개 지역의 청소년동반자사업 대상 청소년 478명(초·중·고 403명, 학교밖 청소년 75명)만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 3)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지승희 등, 2006)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추진한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증대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실태와 위기수준에 따른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설문지 제작, 예비조사와 전문가 평정을 통해 설문 문항을 수정하였다.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문제행동 영역, 환경영역, 정신건강 영역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위기수준을 1수준(고위험군), 2수준(위험군), 3수준(잠재적 위험군), 4수준(정상군)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을 초5부터 중·고 재학중인 일반청소년(2,529명)과 학교밖 청소년(439명)을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대상의 선정을 표본설계에 근거하여 하지 않고 16개 광역 행정

단위별 청소년 구성비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였다는 점이다.

#### 4)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2009)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강석영 등, 2009)는 청소년의 위기가능 정도와 위기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개발하고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구조화한 위기평정척도를 사용하여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에 전국 16개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어 온 청소년위기실태조사를 수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된 내용은 6개의 청소년 위험요인 영역(정서적·심리적 요인,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영역)과 청소년들의 위기결과를 9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위기결과에는 가정 문제, 가출, 학업중단, 학교폭력, 약물, 인터넷 중독, 성폭력, 절도, 자살 등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위기수준은 1수준(보통), 2수준(잠재적 위험군), 3수준(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주 조사대상은 중·고등학생(69,754명, 일부 지역은 청소년관련시설의 위기청소년 677명도 포함됨)으로 한정되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2005년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의 위기평정척도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과 조사대상의 선정을 표본설계에 근거하여 하지 않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할당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1388전화 이용실태를 조사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된다.

#### 5)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2010)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배주미 등, 2010)는 2005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 문헌 등을 검토하여 기존의 위기평정척도 구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전문가 검증과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문항을 선정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하여 표본설계에 의한 표본추출로 전국적인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초5부터 중·고 재학중인 일반청소년(89,827명)과 위기·취약청소년(3,776명)을 대상으로 위기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위가요인은 크게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위험요인 문항에 따른 위기정도를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 3개로 분류하고, 위기결과 해당유무에 따라 6개 수준(1수준:고위험군, 2수준:행동적 위험군, 3수준:결과적 위험군, 4수준:심리환경적 위험군, 5수준:잠재군, 6수준:일반군)으로 위기수준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위기결과는 학교문제 인터넷문제, 술·담배 등, 학교폭력, 자살, 성문제, 가출, 학업중단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표본설계를 통해 전국적인 표본추출을 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나, 보호요인을 조사하였음에도 분석이나 제언 등에 활용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남는다.

## 나. 선행연구에 따른 시사점

본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의 청소년의 위기개념을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청소년의 위기실태 조사 문항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지어 본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선행 실태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개발 과정은 선행 문헌연구를 통한 연구팀의 문항개발, 전문가 자문 및 타당성 검토, 예비검사 실시 및 결과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최종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가 시범실시에 그치긴 하나, 문항개발 과정은 거의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조사 대상은 일반 초·중·고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혹은 청소년동반자 대상 청소년이었다. 특히, 지승희 등(2006)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조사 대상이었다. 강석영 등(2009)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주 조사 대상이었고, 그 외 전국 16개 시·도 중 7개 지역에서 학교밖 청소년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배주미 등(2010)의 연구에서는 다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고,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도 전국적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제의 자연령화 추세, 종단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위기실태의 비교 분석 차원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고교에 재학 중인 일반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시범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셋째, 앞에서 살펴 본 5개의 선행 실태조사연구 모두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 영역으로 위기영역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3개의 선행 연구가 거의 보호요인으로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실태조사의 영역은 이 5개 영역을 바탕으로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영역을 삼고자 한다.

넷째, 선행연구에서 보면, 위기상황에 따른 위기결과 또는 위기행동(문제) 영역에 있어 비슷하면서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현재 시점에서 청소년의 위기개념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위기결과를 도출하여 향후 정부의 위기청소년 정책개발과 효과적인 지원사업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문항들을 살펴보면 2005년, 2006년, 2009년, 2010년도 사용한 척도들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상당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연도별로 위험요인, 위기결과, 보호요인 척도들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문항은 유지하고, 기타 문항 중 필요한 것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2015년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여 신규문항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의 각 요인별 문항분석과 연구결과 비교는 표2와 표3에 제시하였다. 아울러 선행연구들의 문항과 2015년 개발된 문항의 비교는 부록 6에 제시하였다.

표 2. 선행연구 문헌분석 비교표

구분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 연구(2005)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2006)		위기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2009)		위기청소년 위기 실태조사(2010)	
	정서적 심리적 문제	우울 불안 공격성/충동성 부정적 자존감	정서 및 정신 건강	정서적 문제(무기치감 및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충동적 행동 등) 정신건강문제 낮은 지능 기타	정신 건강 영역	부정적 자존감, 불안, 우울, 공격성	정서적/심리적 요인	정서적/심리적 요인	개인	개인
개인	신체적 문제	신체적 자아	자살문제	자살계획 및 시도, 자살 유가족	문제 행동 영역	가출경험, 무단결석, 폭력(가해 피해), 가정폭력(가해 피해), 집단따돌림, 괴롭힘, 자살시도, 인터넷 중독(게임 과다), 절도·갈취, 성매매, 성폭력, 습관적인 음주흡연, 약물 등 유해물질 사용	개인 요소	위험 요인	개인	개인
	체험 문제	흡연, 음주경험	악물문제	술, 담배,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가족	스트레스 대처 문제	회피중심	학대 피해	신체적 학대경험 성적 학대경험	환경 영역	혼숙경험, 성관계경험, 성매매 경험, 성폭력경험, 성매매사이트접속, 임신경험, 미혼모, 성병경험 등	가정 요소	가정	가정	가정
	가정 문제	학대 경험, 성폭력경험, 성매매사이트접속, 임신경험, 미혼모, 성병경험 등	성문제	혼숙경험, 성관계경험, 성매매 경험, 성폭력경험, 성매매사이트접속, 임신경험, 미혼모, 성병경험 등						
가족	가정 문제	학대 경험, 성폭력경험, 성매매사이트접속, 임신경험, 미혼모, 성병경험 등	가출 문제	가출경험, 현재 가출 중, 가출중 보호시설 이용경험	환경 영역	가출경험, 현재 가출 중, 가출중 보호시설 이용경험	가정 요소	가정	가정	가정
	스트레스 대처 문제	회피중심	행동 문제	인터넷중독, 무량, 어린시절 도벽, 절도, 금품갈취, 방화, 오토바이폭주, 사범문제 등						
가족	가정 문제	학대 경험, 성폭력경험, 성매매사이트접속, 임신경험, 미혼모, 성병경험 등	폭력문제	조작가담, 폭력피해, 폭력가해, 경험 등	환경 영역	조작가담, 폭력피해, 폭력가해, 경험 등	가정 요소	가정	가정	가정
	가정 문제	학대 경험, 성폭력경험, 성매매사이트접속, 임신경험, 미혼모, 성병경험 등	가족 특기사항 및 가족 내 위기 요인	가족 특기사항 및 형제관계 위기 가족형태 부모의 결혼상태 가족 경제상황 가족원 간 폭력·폭언 여부 및 범법자 유무						
가족	가정 문제	학대 경험, 성폭력경험, 성매매사이트접속, 임신경험, 미혼모, 성병경험 등	추거환경	추거환경의 안정수준	환경 영역	경제적 수준, 유기 및 방임, 부모와의 갈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친구들과 어울림, 교사와의 갈등, 주변 유해환경 노출,	가정 요소	가정	가정	가정
	가정 문제	학대 경험, 성폭력경험, 성매매사이트접속, 임신경험, 미혼모, 성병경험 등	추거지역	추거지역의 특징						



구분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 연구(2005)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2006)	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2009)	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2010)
	학교	개인적 특징 및 개인 위기 영역	학업관련 현재신분	재학생(학년, 성적, 학교위기요인: 짝은 혹은 장기간 결석, 지각, 조퇴, 교사와의 갈등, 성적하락에피소드, 학습의욕 보이나 성적 오르지 않음, 괴롭힘 피해, 가해 등)			
	학교	학업성적, 학교에 대한 흥미, 교사의 무관심, 방과 후 시간낭비	학업관련 현재신분	재학생(학년, 성적, 학교위기요인: 짝은 혹은 장기간 결석, 지각, 조퇴, 교사와의 갈등, 성적하락에피소드, 학습의욕 보이나 성적 오르지 않음, 괴롭힘 피해, 가해 등)		학교	학교생활
	또래	또래의 비행여부	친구관계	동성 친구관계 이성 친구관계, 친구 없음		또래	반사회적 친구
	지역 사회	주변환경				지역 사회	지역사회
위 기 결 과	가정, 기술, 지살 학업중단, 학교폭력, 약물, 인터넷중독, 성폭력피해, 절도					가정문제, 기술 학업중단, 학교폭력 약, 인터넷 중독, 지살, 성폭력, 절도	기술, 학업중단 학교문제, 학교폭력 술담배 등, 인터넷문제, 지살, 성문제
포 호 요 인	개인	긍정적 자존감, 분명한 장래희망, 사회적 유능감, 자기통제성,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	개인적 특징	낙천적인 성격, 유머감각, 책임의식, 변화 동기, 자기통제성,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 사회적 유능감, 학업 등 성취영역에서의 성공경험,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부여 등			
	가정	부모와의 관계, 가족의 지지	목표의식	목표의식 유무: 진학욕구, 취업욕구, 자격증 취득욕구 유무 등			
	또래	친한 친구, 건전한 과외활동	부모 형태	부모의 정서적 지지, 형제나 기타 친지의 정서적 지지, 가족의 경제적 여유, 도움을 주는 친구 등			
	학교	학교생활의 흥미, 학업에 대한 관심, 교사의 관심과 지지	친구	도움을 주는 친구 등			
	지역 사회	지역주민의 관심과 애정	교사	도움을 주는 교사			
						없음	없음

표 3. 선행연구 결과 비교표

위기(가능)청소년지원모델 개발연구(2005)	위기청소년지역사회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연구(2006)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2009)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2010)
<p>▶ 전국 7개 시도 중2-고2학생 984명 (서울 139명, 대구 72명, 경기 363명, 강원 55명, 충청 130명, 경상 101명, 전라 124명)</p>	<p>▶ 위기청소년으로 인지된 각 지역의 청소년동반자 사업대상 478명 (태도시 188명, 소도시 201명, 농어촌 89명)</p>	<p>▶ 전국 16개 시도 40개 학교 초5-고3 학생 2,968명 (초등생 738명, 중학생 696명, 인문계고 797명, 실업계고 311명)과 학업중단 청소년 439명</p>	<p>▶ 16개 시도 중고등학생 69,754명(중학생 30,787명, 인문계고등학생 22,662명, 전문계고등학생(15,437명) 과 학업중단 청소년 677명</p>	<p>▶ 전국 16개 시도 초5-고3 학생 89,827명과 위기·취약청소년 3,776명, 총 93,603명</p>
<p>위험요인(81문항) + 위기결과(18문항) + 보호요인(54문항) = 총153문항</p>	<p>기초자료(12문항) + 위험요인 및 위기결과 (69문항) + 보호요인(19문항) + 지원관련(30문항) = 총130문항</p>	<p>기초자료(11문항+보호요인포함) + 위기상황(문제행동,환경, 정신건강영역)(39문항) = 총 50문항</p>	<p>기초자료 (12문항:1388,보호요인포함) + 위험요인(81문항) + 위기결과(18문항) = 총 111문항</p>	<p>기초자료 (14문항:1388, 보호요인포함) + 위기요소(44문항) + 위기결과(32문항) + 보호요인(10문항) = 총 100문항</p>
<p>1수준: 보통 2수준: 잠재적위험군 3수준: 고위험군</p>	<p>저위기 중위기 고위기</p>	<p>1수준: 고위험군 2수준: 위험군 3수준: 잠재적위험군 4수준: 정상군</p>	<p>1수준: 보통 2수준: 잠재적위험군 3수준: 고위험군</p>	<p>1수준: 고위험군 2수준: 행동적위험군 3수준: 결과적위험군 4수준: 심리환경적위험군 5수준: 잠재군 6수준: 일반군</p>
<p>3수준 3% 2수준 13% 1수준 84%</p>	<p>고위기 12.3% 중위기 41.2% 저위기 46.5%</p>	<p>1수준 11.0% 2수준 17.2% 3수준 23.9% 4수준 48.0%</p>	<p>3수준 2.4% 2수준 13.1% 1수준 84.5%</p>	<p>1수준 1.2% 2수준 3.1% 3수준 4.2% 4수준 0.8% 5수준 10.3% 6수준 80.4%</p>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에서의 청소년의 위기개념을 재정립하고 위기실태조사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위기청소년의 개념, 위기수준, 위기유형을 탐색하였다. 또한 기존의 실태조사 문항들을 분석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최종문항을 선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 개발된 실태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연구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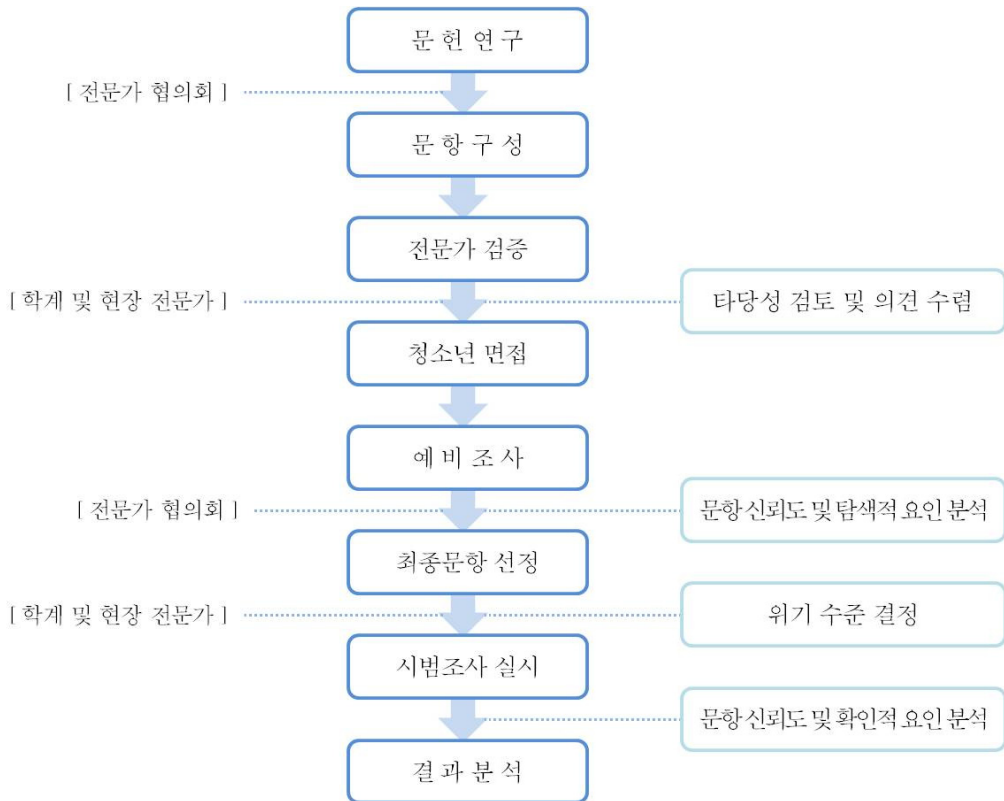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방법 및 절차

## 2. 위기실태조사 문항개발 및 타당화

### 가. 문헌 연구

국내·외 연구보고서, 자료집, 관련 실태조사 등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청소년의 위기개념과 위기수준, 위기유형 등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상황에 적합한 위기청소년의 개념과 위기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실태조사 문항들을 분석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위기문항들을 추가하여 실태조사 문항개발을 하고자 하였다.

### 나. 1차 문항 구성

실태조사 문항 구성은 3인의 공동연구진(사회복지학 박사 1인, 상담심리학 박사 1인, 심리학 석사 1인)과 보조연구자(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수료 1인)가 함께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정의와 위기결과를 도출하고, 그 내용을 4인의 전문가협의회(임상심리학 박사 1인, 심리학 박사 1인, 상담전공 교육심리학 박사 2인)의 자문을 받아 확정하였다. 또한, 전문가협의회에서는 문항 구성은 위기 영역별로 2010년에 기 개발된 문항을 통계적 비교를 위해서도 가능한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위기 상황들을 위기결과에 따라 추가 개발하는 것에 대한 자문도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먼저, 2010년 기 개발된 문항을 중심으로 2005년과 2006년, 2009년의 실태조사 문항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총체적으로 검토·분석하였다. 둘째, 위험요인과 위기결과, 보호요인의 설문 영역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하위영역별 문항을 개발하였다. 하위문항 개발 시에는 기존의 위기관련 척도자료와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설문문항,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의 패널자료를 참조하였다. 셋째,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아니면 2010년의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 전문가의 검증을 받은 문항을 제외한 미검증 문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며 살펴보았다. 넷째, 수차례의 공동연구진 회의를 거쳐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문항은 인구통계학적인 기초문항을 제외한 위험요인과 위기결과, 보호요인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위험요인 영역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로 구분하였고, 하위요인들은 우울·불안(9문항), 공격성·충동성·부주의(9문항), 가정폭력·부모와의 갈등·방임(10문항), 가정환경(2문항), 가족구성원(4문항), 비행친구(4문항), 학교생활(5문항), 지역사회 환경(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4. 위험요인 문항 구성<sup>3)</sup>

영역	하위요인	문항 수
개인	우울 · 불안	9문항
	공격성 · 충동성 · 부주의	9문항
가정	가정폭력 · 부모와의 갈등 · 방임	10문항
	가정환경	2문항
	가족구성원	4문항
또래	비행친구	4문항
학교	학교생활	5문항
지역사회	지역사회환경	3문항
위험요인		총 46문항

위기결과 문항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5문항), 약물(3문항), 학교 폭력(10문항), 비행 및 범죄(3문항), 자살(3문항), 성문제(7문항), 가출(3문항), 학업중단 및 학교부적응(3문항), 직장 및 직업훈련기관 부적응(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문제와 학교밖 청소년의 직장 등 적응문제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당초 위기결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하였던 가정폭력 영역은 전문가 검증 후 위험요인으로만 분류하기로 정리하고 삭제하였다.

표 5. 위기결과 문항 구성

영역	하위요인	문항 수
인터넷 및 스마트폰중독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2문항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3문항
약물	술	1문항
	담배	1문항
	약물	1문항
학교폭력	학교폭력-피해	5문항
	학교폭력-가해	5문항
비행 및 범죄	갈취	1문항
	절도	1문항
	사법적 문제	1문항

3) 가정환경, 가족구성원, 학교생활, 지역사회 환경 요인명은 최종문항 구성 시 부모간 갈등, 문제가족원, 학교생활 부적응, 지역사회 유해환경으로 요인명이 변경되었다.

영역	하위요인	문항 수
자살	자살사고	1문항
	자살계획	1문항
	자살시도	1문항
성문제	성매매	3문항
	성폭력-피해	2문항
	성폭력-가해	1문항
	원치않는 임신	1문항
가출	가출	2문항
	가출팸	1문항
학업중단 및 학교부적응	무단결석	1문항
	학업중단	2문항
직장 및 직업훈련기관 부적응	부적응	3문항
	직장생활 폭력-피해	2문항
	직장생활 폭력-가해	1문항
위기결과		총 43문항

보호요인 영역 역시 위험요인과 마찬가지로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로 구분하였다. 하위요인들로는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6문항), 가족의 관심 및 신뢰(3문항), 친구 관계(2문항), 교사의 관심 및 관계(2문항), 지지체계(2문항)로 구성되었다.

표 6. 보호요인 문항 구성

영역	하위요인	문항 수
개인	자기존중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	6문항
가정	가족의 관심 및 신뢰	3문항
또래	친구관계	2문항
학교	교사의 관심 및 관계	2문항
지역사회	지지체계	2문항
보호요인		총 15문항

## 다. 전문가 검증을 통한 타당화 작업

공동연구진이 1차적으로 구성한 실태조사 설문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최종 문항 개발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였다(부록 2 참조).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는 학계 전문가 8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및 팀장 16명, 쉼터 및 학교밖 청소년 관계 전문가 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검증문항은 2010년도 문항 중 기 검증된 문항을 제외하고, 그

당시 수정 변경된 후 미 검증된 문항과 올해 개발한 신규 문항, 그리고 2010년도 문항 가운데 공동연구진이 검토·수정한 문항을 포함하여 총 120문항 중 인구통계학적 기초문항(16문항)을 제외한 71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검증 기간은 2015년 6월 16일부터 6월 27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검증 방법은 전문가들에게 설문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한 후 답신을 받았다. 의견조사 내용은 각 설문문항이 위기청소년의 위기실태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타당한 지 여부를 묻기 위해 5점 척도를 사용하여 1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에서 5점 '매우 타당하다'까지로 구성하였다. 또한, 실태조사의 요인분류 및 각 문항에 대한 의견은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각 문항에 대한 타당도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각 문항의 타당도는 5점 만점에 최저 3.17점에서 최고 4.77점까지의 점수 분포를 보였다. 4점 미만의 문항과 그 외 문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연구진이 다시 검토 회의를 거쳐 수정하였다.

표 7. 전문가 검증 결과<sup>4)</sup>

구분	문항	내 용	평균	표준 편차	
위험	우울 불안	21	이유 없이 불안하다.	4.50	0.68
		22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다.	4.07	0.91
		23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4.33	1.27
		24	긴장이 될 때가 많다.	4.27	1.20
		25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3.17	1.12
요인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26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부터 한다.	4.83	0.95
		29	화가 나면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	4.70	0.47
		30	화를 내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더 도움이 된다.	3.70	1.18
인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31	수업을 듣거나 할 때 대답해서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4.00	0.81
		32	생각없이 함부로 말을 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	3.83	1.05
		33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 해야 한다.	4.10	1.35
		34	조심성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한다.	3.87	1.01
가정환경	가정폭력 부모와의 갈등 방임	39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고 긴장된다.	4.20	0.71
		41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4.03	0.96
		43	부모님은 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4.57	0.63
가정환경	46	부모님은 싸우실 때 폭력을 사용한다.	4.43	0.73	

4) 가정환경, 가족구성원, 학교생활, 지역사회 환경 요인명은 최종문항 구성 시 부모간 갈등, 문제가족원, 학교생활 부적응, 지역사회 유해환경으로 요인명이 변경되었다.

구분	문항	내 용	평균	표준 편차	
위 험 요 인	가족 구성원	47	가족 중에 범죄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갔던 사람이 있다.	3.97	1.03
		48	가족 중 약물중독이나 알코올중독인 사람이 있다.	4.43	0.82
		49	비행을 저지르는 형제 또는 자매가 있다.	4.17	0.95
	비행친구	51	가까운 친구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4.30	1.18
		52	가까운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있다.	4.57	1.10
		53	가까운 친구 중에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갔던 친구가 있다.	4.37	1.13
		54	가까운 친구 중에 폭력서클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4.57	1.17
	학교생활	56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4.03	1.00
		57	나는 좋아하는 학교 선생님이 하나도 없다.	4.17	1.02
		58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4.23	0.94
		59	나는 학교에 좋아하는 친구가 한명도 없다.	4.60	0.72
	지역사회 환경	61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 등 유흥업소가 많다.	4.07	0.83
	위 기 결 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64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게임·채팅 등) 사용으로 인해 타인(부모, 교사 등)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4.53
65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게임·채팅 등)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4.37	0.85
66			지난 한 달 동안 게임이나 채팅(인터넷·스마트폰)을 하루에 3~4시간 이상 한 적이 있다.	3.77	0.97
67			지난 한 달 동안 게임이나 채팅(인터넷·스마트폰)을 하느라고 일상 생활을 못한 적(결석, 지각, 학원가기, 친구만나기 등)이 있다.	4.60	0.50
68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4.67	0.55
약물		71	지난 한 달 동안 가스, 본드, 마약류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4.03	1.07
위 기 결 과	학교폭력	72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4.60	0.56
		74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4.77	0.50
		75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있다.	4.67	0.61
		76	지난 1년 동안 사이버폭력(SNS, 카톡 등에서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4.63	0.56
		77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다.	4.60	0.56
	학교폭력	79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4.63	0.56
		80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후배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	4.57	0.57
		81	지난 1년 동안 사이버폭력(SNS, 카톡 등에서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한 적이 있다.	4.73	1.01



구분	문항	내 용	평균	표준 편차
비행 및 범죄	82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4.45	0.69
	83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있다.	4.55	0.78
성문제	87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다.	4.47	1.50
	88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유혹을 느끼거나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	4.33	1.21
	93	원치않는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한 적이 있다.	4.70	1.09
가출	94	지난 1년 동안 가출 한 경험이 있다.	4.47	0.90
위 학업중단	97	현재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을 받고 있다.	3.93	1.11
기 가정폭력	99	나는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	4.50	0.78
	100	나는 부모님을 자주 때리거나 심한 욕설을 한다.	4.67	0.66
결 과 직장 및 직업훈련 기관 부적응	101	직장이나 직업훈련기관에 이유없이 결근 또는 조퇴를 한 적이 있다.	4.27	1.20
	102	직장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주변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부딪힌 적이 있다.	4.17	1.66
	103	직장 생활이나 직업훈련에 적응하지 못해 그만 둔 적이 있다.	4.30	1.15
	104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3.90	1.42
	105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4.07	1.39
	106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에게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을 한 적이 있다.	4.23	1.30
보 후 요 인	107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4.57	0.73
	108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4.57	0.63
	109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4.30	0.84
	110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유를 생각해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4.43	0.73
	111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을 안다.	4.20	0.96
	112	내가 마음먹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4.27	0.94
가정	113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격려해준다.	4.66	0.55
	114	우리 가족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	4.17	0.89
	115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4.60	0.62
또래	116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	4.66	0.55
	117	나는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다.	4.21	0.90
학교	118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나 지도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4.72	0.53
지역사회	119	우리 동네에는 내가 마음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4.07	1.13
	120	우리 동네에는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4.31	1.04

실태조사 문항과 요인분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 정리한 내용은 다음의 표 8, 표 9와 같다. 공동연구진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1차 실태조사 설문문항 중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사법적 문제나 가출팸은 새롭게 추가하였다. 위기결과로 분류해서 살펴보려고 했던 가정폭력문제는 위험요인의 특성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동연구진 회의를 통해 위기결과에서 삭제하였다.

표 8.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구분	문항	의견 내용	
위험요인	우울 불안	21	• 불안 정도를 보려면 ‘이유가 명확하지 않는데 불안할 때가 많다’로 변경
		22	• 걱정이나 불안, 긴장 등으로 인한 결과적인 현상으로 보임
		24	• 약간 추상적,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긴장이 될 때 같이 동반되는 증상, 즉 땀이 난다든지 등의 표현이 좋을 듯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26	• ‘욕설부터 한다’는 ‘욕부터 하게 된다’로 수정
		29	• 청소년들은 ‘고함’이란 단어를 잘 모름. ‘큰 소리를 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로 수정
		30	•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정도가 크다고 해서 5로 답할 것 같지 않음 • ‘원하는 것을 얻는데’를 ‘문제를 해결하는데’로 수정 • 화를 내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결론은 공격성과 충동성 등을 판별하는 것은 타당해보이지 않음. 오히려 학습의 효과로 생각됨. • ‘화를 내는 것이’라는 표현보다, ‘폭력이나 위협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표현 수정
		31	• 수업 장면에 한정 짓는 것보다 일반화하여 ‘나는 대답해서 한 장소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가 좋을 듯
	가정폭력 부모와의 갈등 방임	35~44	• ‘부모님은 내가 뭘 먹고 다니는지 관심도 없다’와 같은 내용 추가
		39	• 청소년들이 곤란해 하는 이중문장임.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불편하고’를 ‘불편하거나’로 수정 • 불편하고 긴장되는 것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음. 청소년들에게는 ‘불편하다’ 하나만 질문하는 것이 충분함. • 부모 모두와 함께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부모님(혹은 아버지나 어머니)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긴장된다.’로 수정 • ‘긴장’ 보다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다’는 표현이 더 맞을 듯
41		•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를 ‘부모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느낀 적이 없다.’로 변경	
가정환경	46	• 폭력을 구체적으로 정의. ‘부모님은 싸우실 때 큰소리를 지르거나 서로를 때릴 때가 있다.’로 수정	
가족구성원	47~50	• 가족구성원과 또래 요인에 대해서 하위 점수를 구하는 목적이라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즉, 문항별 빈도나 반응만 관심이라면 적절하지만 이러한 문항들의 합이 크다고 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구분	문항	의견 내용	
위험요인	비행 친구	51	• 술 외에 담배를 하는 친구도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53	• ‘경찰서나 파출소에 잡혀갔던’을 ‘조사를 받았던’으로 수정 • 경찰이나 파출소 외에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의 경험이 있는 친구도 추가하여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가까운 친구 중에 경찰에 잡혀갔거나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다. (경찰서 뿐 아니라 실제 비행청소년 중 재판받은 경험이 있는 친구가 많음)
	학교 생활	56	• 부적응 청소년은 학업에서의 실패가 학교생활 부적응을 가져온다고 이해하고 있음
		57	• ‘나는 좋아하는 학교 선생님이 하나도 없다.’를 ‘나를 좋아하거나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선생님이 하나도 없다’로 수정 • ‘좋아하는 선생님이 하나도 없다’라는 문항은 위기청소년이 아니라도 답할 수 있음
58		•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를 ‘나에게 잘 대해주는 선생님이 없다’로 수정 •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는 문항은 추상적임. 어떤 교사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도, 다른 교사와는 사이가 좋을 수 있음.	
	60	• 학교가는 행위 자체를 싫어하는 학생이 있어서 ‘나는 학교를 다니기 싫다’가 적함	
위기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64~68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갈등은 가족(부모, 형제 등)과 타인(교사, 친구 등)으로 구분하여 질할 필요 • 인터넷 및 스마트폰이 요즘 청소년 문화여서 이 문항들로 위기결과를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임. 그러나 하루 3~4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은 위기결과로도 타당함 • 67번 문항의 예시 중 ‘친구만나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
	약물	71	• 최근 가스나 본드의 경우 거의 안하고, 마약의 경우에는 실제로 한다 해도 솔직하게 체크하는 경우가 드물 것이라 생각됨. • ‘마약류’를 ‘몸에 해가 되는 약물’로 표기
	학교폭력	72~81	• 학교폭력 문항 중 ‘친구’는 ‘친구나 선후배’로 수정
	비행 및 범죄	82,83	• 청소년들은 때때로 강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 강제로 삭제 • 두 개의 문항이 중복되는 느낌 →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훔치거나 빼앗은 적이 있다”로 수정
과	성매매 및 성폭력 (성문제)	87	•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을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성매매와 관련된 것에 접촉한 적이 있다’로 수정 • ‘성매매’라는 용어보다는 ‘조건만남’으로 표기(아이들의 이해)
		88	• ‘지난 1년간 타인으로 인해 성매매 유혹을 느끼거나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로 수정 (최근 청소년 성매매는 자발적인 경험보다 비자발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고 있음)
		93	•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한 임신중절이나 출산의 경험’으로 수정
가출	94	• 한 번의 가출로 판별하기보다는 2회 이상이나 빈도에 따르면 좋겠다 생각. 즉 ‘지난 1년 동안 2회 이상 가출 한 경험이 있다’로 수정	

구분	문항	의견 내용	
위 기 결 과	96	• 무단결석 외에 무단조퇴나 지각 등에 관한 문항 추가 필요	
	97	•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숙려제’라는 말을 모를 수 있으므로 간략한 설명 필요 • 청소년들이 숙려제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으므로 ‘현재 나는 학교를 그만둘 마음을 가지고 있다.’로 수정 •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다’로 수정 • ‘자퇴숙려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로 수정. 한번이라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아닌 경우 보다 위기도가 높을 수 있음.	
	99	• 현재 진행형보다 비행경험이나 위기경험에 대해 ‘~ 한 적이 있다’고 묻는 것이 나을 듯 •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구분하여, 두 문항으로 구성 • 언어, 정서, 신체 학대 등 구체적인 예시를 함께 제시	
	100	• 문장자체가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어서 제대로 요인분류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됨.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다’ 정도가 적절함.	
직장생활 부적응	103	• 직장생활 뒤에 직업훈련기관을 함께 넣는 것이 다른 문항과 일관성이 있어 보임	
보 호 요 인	개인	108	• 자칫 왜곡된 자아상을 물어볼 수 있음. 비행청소년의 경우 친구들과 같이 저지른 비행행동에 대해 혼자 책임지는 행동이 멋있어 보일 수 있음. 그럴 경우,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
		109	• 진로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는 것으로 수정
		111	• ‘~ 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가 더 타당함
	가정	114	• 조금 구체적인 방법을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예: 충고, 격려, 지지, 관심 등)
	또래	117	• ‘마음이 맞는 친구’ 보다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친구’라는 표현이 더 나을 듯
	학교	118	• 교사 부분에서 ‘나는 믿고 따르는 선생님이 있다’도 넣으면 좋을 듯
지역 사회	119, 120	• 현 시대의 개인주의 특성상 응답자가 소수일 것으로 사료되어 보호요인 문항으로 적절하지 않음 • 우리 사회가 예전과 달리 지역사회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이웃과의 관계나 왕래가 적어졌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요인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음	
기타		• 연구대상을 학생 또는 학교밖 청소년인지에 따라 문항이 달라질 필요 있음.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비교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학교밖 청소년만 별도로 하는 것도 방안임 • 보호요인 문항이 상대적으로 적고 문제중심의 위기요인이 너무 많아 위기청소년을 문제중심으로만 분석하려는지 우려됨. 강점과 자원중심으로 청소년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바람 • 위기실태조사이다보니 부정적 문항이 많은 듯. 보호요인 문항들이 들어간 것은 좋음. 문항배치를 잘 해야 할 것 같음. • 위기결과 중 직장 등 부적응관련 문항이 좀 많은 듯. • 학교폭력 문항도 너무 많음 • 보호요인 중 청소년 주위에 닮고 싶은 사람, 신뢰하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지도 파악 필요	

표 9. 요인분류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구분		의견 내용	
위험요인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적 요인명(가정-가정폭력· 부모와의 갈등방임, 또래-비행친구)과 중립적 요인명(가정-가정환경, 가족구성원, 학교-학교생활)이 섞여있음.</li> <li>• 평가적 용어를 중립적 용어로 통일 할 필요 있음 (예; 가정폭력 부모와의 갈등 방임 → 부모-자녀관계 / 또래 → 친구관계)</li> </ul>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를 하나의 요인으로 묶었을 때, 대상이 있는 경우와 혼자 있는 경우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질 수 있을 것 같음</li> </ul>	
	가정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위험요인 중 가정의 경제적 상태와 가족해체의 정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위험요인 중 가정요인에 가정의 경제적 상태와 가족의 구조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어야 함</li> </ul>
		가정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환경이라 함은 총체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가정환경’을 ‘부부관계’ 혹은 ‘부모관계’로 변경</li> <li>• 부모직업 또는 이혼 및 재혼으로 이사를 자주 다닌 경우, 아이들 적응 및 성격에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항도 추가하면 좋을 듯.</li> <li>•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빈곤, 실직, 불안한 고용형태 등)가 낮을 경우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요인에 추가</li> </ul>
		가족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에 신체적·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형제나 부모가 있을 경우, 가출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청소년이 많았음. 또 부모 혹은 형제 중 자살한 경우, 혹은 시도한 것을 목격한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 중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수준의 장애가 있거나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 나 ‘가족 중 자살했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라는 문항 추가하면 좋을 듯.</li> </ul>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에 대해 묻고 있는 문항들이 전체적으로 소극적</li> <li>• ‘학교에서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이나 말(거짓말이나 친구의 물건 훔치기 등)로 누명을 쓴 적이 있다.’는 문항 추가</li> <li>• 또한 ‘억울하게 선생님에게 욕설을 듣거나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라는 문항도 추가</li> </ul>		
위기결과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결과 문항 중 ‘약물, 가출, 비행 및 범죄’가 따로 분류된 것을 ‘비행 및 범죄’ 하나로 묶는 것도 좋을 듯</li> <li>• 학교폭력 범위와 비행 및 범죄의 범위가 중첩되므로 문항 또한 중첩된다.</li> </ul>	
	학교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을 ‘폭력’이라는 대분류로 놓고, 그 아래 소분류로 ‘학교폭력’, ‘가정폭력’으로 변경</li> </ul>	
	비행 및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문항들만이 비행 및 범죄 항목을 대표 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생김</li> <li>• ‘지난 1년 동안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나 법원에 다녀온 적이 있다’ 추가</li> </ul>	
	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출팜을 형성해 생활해 본 적이 있다’ 추가</li> </ul>	
	학업중단 및 학교부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결과 분류 중 학업중단 및 학교부적응의 내용을 세분화하는 부분이 필요</li> </ul>	
	가정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은 위기결과가 아니므로 위험요인에 들어가야 할 듯</li> <li>• 가정폭력 문항 99번은 위험요인의 가정폭력 문항과 겹치므로 99번과 100번은 위험요인에 포함시켜도 될 것 같음</li> </ul>	

구분		의견 내용
위 기 결 과	직장 및 직업훈련기관 부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장 및 직업훈련기관 부적응 요인에서 직장이라는 명칭을 아르바이트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음. 청소년들이 근로활동을 할 때 아르바이트를 직장으로 인식하기보다 가 법계 알바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실제로 직장이라고 할 만큼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음</li> <li>직장이나 직업훈련기관에 결근만큼 지각, 이탈 등도 경력을 쌓아가거나 이직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두 문항으로 분리하여 '결근한 적이 있다.'와 '한 시간이상 지각하거나 허락없이 이탈한 적이 있다.'로 묻기</li> </ul>
보 호 요 인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항에서 요인분류는 적절해 보이지만, 요인 간 문항 수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남. 특히 학교요인을 118번 하나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li> <li>위험요인의 문항에 비해 보호요인에 대한 설문이 부족해 보임. 이는 청소년의 '위기적 측면' 만을 부각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여 우려됨. 보호요인을 파악하는 문항을 좀 더 다듬고 늘려야 할 것임</li> <li>위험요인에 비해 보호요인의 영역과 문항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위기실태조사이지만 동시에 보호요인도 잘 탐색하는 것이 필요</li> </ul>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요인의 '학교' 영역을 '학업'으로 바꾸면 자발적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지가 될 수 있을 듯</li> <li>학교는 청소년의 적응에 매우 영향력이 있으므로 보호요인 중 학교요인의 문항이 한 개 더 필요</li> </ul>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요인에 관련된 분류 중 '지역사회'가 있는데, 이 분류는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 요즘 청소년들이 사는 세상에는 서로 이웃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음.</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 향유 정도'를 추가하면 좋겠음. 연평균 350명 정도 아이들을 만나는데, 가출 전 가정에서 문화적 혜택을 누렸던 아이들은 자아존중감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높고, 적응력, 탄력성 수준이 높아 위험에 노출되어도 지혜롭게 방어하거나 금방 빠져나오게 됨.</li> </ul>

## 라. 청소년 면접 실시

1차적으로 구성된 설문지 내용에 대해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 4명과 학교밖 청소년 3명에게 문장의 적절성, 난해성, 이해도 등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을 실시한 이유는 초등학생에게는 문장이 어렵지는 않은지, 아니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고, 학교밖 청소년에게는 문항 내용이 응답하기에 적절한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1차 면접은 2015년 6월 26일에 학교밖 청소년 그룹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문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설문실시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면접은 7월 4일에 초등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초등학생들은 '새터민', '비행', '폭력서클', '인격모독', '직업훈련기관', '직장상사', '연루', '가출팸' 등의 단어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중 일부는 수정하였고, 수정 안 한 나머지 용어는 실시 안내문에 상세히 기재하여 필요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도록 유도하였다.

## 마. 예비조사 및 요인분석

### 1) 예비조사 대상

예비조사는 전문가 검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반영·수정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과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지역은 전국을 크게 서울·경기·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조사 대상은 서울, 부산, 충남, 전남 순천의 초·중·고 각 30명씩 총 360명의 일반학생과 인천, 부산, 충남, 전남지역의 학교밖 청소년 40명을 포함하여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 기간은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해당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응답한 386명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예비조사 대상 분포

단위: 명(%)

지역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밖 청소년	전체
서울광역시	26	30	35	0	91
인천광역시	0	0	0	10	10
부산광역시	44	29	26	12	111
충청남도	25	28	20	6	79
전라남도	31	33	31	0	95
합계	126	120	112	28	386

### 2) 신뢰도

예비조사 위험요인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가정영역의 위험요인 중 가족구성원 척도(.52)를 제외하면 .75~.93으로 나타났다.

표 11. 예비조사 위험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sup>5)</sup>

위험요인	하위요인	신뢰도	
개인	우울·불안	.92	.93
	공격성·충동성·부주의	.86	

5) 가정환경, 가족구성원, 학교생활, 지역사회 환경 요인명은 시범조사 시 부모간 갈등, 문제가족원, 학교생활 부적응, 지역사회 유해환경으로 변경되었다.

위험요인	하위요인	신뢰도	
가정	가정폭력 · 부모와의 갈등 · 방임	.93	.92
	가정환경	.75	
	가족구성원	.52	
학교	학교생활	.79	.79
또래	비행친구	.81	.81
지역사회	지역사회	.76	.76

예비조사 보호요인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7~.91로 나타났다.

표 12. 예비조사 보호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보호요인	신뢰도	
개인	.88	.94
가정	.91	
학교	.87	
또래	.87	
지역사회	.88	

### 3) 요인분석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위험요인은 주축분해법을 직접 오블리민 방식으로 25회 반복회전하여 구하였다. 분석결과 우울과 불안은 요인 1, 공격성은 요인 5, 충동성과 부주의는 요인 6, 가정폭력, 부모와의 갈등, 가정환경은 요인 3, 방임은 요인 7, 학교생활은 요인 4, 지역사회 환경은 요인 10, 가족구성원은 요인 8에, 비행친구는 요인 2에 적재되었다.



표 13. 예비조사 위험요인 요인분석<sup>6)</sup>

구분	요인									
	1	2	3	4	5	6	7	8	9	10
우울1	.800	.091	-.370	-.471	.399	-.231	-.195	.090	.230	-.419
우울2	.770	.112	-.337	-.555	.423	-.181	-.261	.112	.278	-.436
우울3	.810	.056	-.377	-.485	.319	-.238	-.215	.116	.248	-.407
우울4	.832	.085	-.330	-.510	.335	-.212	-.296	.102	.205	-.486
불안1	.780	.110	-.384	-.408	.367	-.302	-.257	.085	.201	-.454
불안2	.694	.179	-.308	-.318	.315	-.415	-.305	.041	.073	-.353
불안3	.778	.112	-.312	-.325	.197	-.433	-.186	-.006	.087	-.420
불안4	.595	.118	-.332	-.218	.332	-.300	-.159	.049	-.120	-.379
불안5	.730	.120	-.343	-.313	.260	-.420	-.203	.058	-.082	-.451
공격성1	.501	.303	-.342	-.363	.592	-.424	-.329	.154	-.021	-.388
공격성2	.399	.157	-.389	-.329	.783	-.279	-.252	.151	-.084	-.339
공격성3	.313	.129	-.346	-.306	.727	-.145	-.256	.182	.053	-.349
공격성4	.391	.146	-.239	-.255	.607	-.351	-.253	.217	.143	-.264
공격성5	.365	.059	-.295	-.382	.528	-.311	-.289	.075	.268	-.329
충동성1	.382	.184	-.241	-.400	.425	-.532	-.266	.197	.234	-.350
충동성2	.462	.165	-.211	-.300	.319	-.725	-.173	.077	.060	-.367
충동성3	.222	.206	-.141	-.226	.259	-.531	-.198	.049	.112	-.306
부주의1	.337	.072	-.251	-.302	.159	-.582	-.108	.123	-.021	-.299
가정폭력1	.391	.143	-.817	-.291	.304	-.142	-.339	.127	.095	-.340
가정폭력2	.301	.226	-.839	-.287	.332	-.102	-.375	.244	.036	-.334
가정폭력3	.286	.135	-.854	-.231	.280	-.110	-.395	.192	.024	-.285
가정환경1	.430	.047	-.662	-.337	.239	-.329	-.257	.268	.165	-.395
가정환경2	.337	.077	-.755	-.279	.252	-.315	-.377	.264	.129	-.333
부모와의갈등1	.456	.150	-.604	-.409	.229	-.272	-.376	.150	.489	-.421
부모와의갈등2	.428	.307	-.669	-.346	.273	-.244	-.381	.187	.484	-.409
부모와의갈등3	.495	.298	-.631	-.400	.232	-.291	-.379	.078	.506	-.458
부모와의갈등4	.454	.134	-.716	-.395	.344	-.170	-.460	.083	.390	-.440
방임1	.241	.286	-.417	-.392	.213	-.170	-.806	.205	.037	-.325
방임2	.216	.320	-.391	-.342	.242	-.119	-.857	.196	.158	-.415
방임3	.229	.216	-.315	-.304	.232	-.100	-.786	.192	.173	-.389

6) 구분에 제시된 하위요인 번호는 문항 순서대로 배열된 것임(부록 3 참조)

구분	요인									
	1	2	3	4	5	6	7	8	9	10
학교생활1	.333	.188	-.267	-.700	.239	-.140	-.344	-.021	.135	-.427
학교생활2	.379	.228	-.194	-.745	.279	-.310	-.281	.164	.169	-.445
학교생활3	.405	.097	-.322	-.737	.282	-.236	-.335	.045	.135	-.402
학교생활4	.455	.122	-.399	-.610	.240	-.283	-.503	.100	.094	-.397
학교생활5	.472	.211	-.280	-.728	.322	-.339	-.352	.105	.143	-.440
지역사회환경1	.342	.147	-.251	-.357	.215	-.227	-.277	.214	-.007	-.665
지역사회환경2	.428	.084	-.374	-.427	.275	-.226	-.341	.162	.104	-.760
지역사회환경3	.312	.251	-.197	-.297	.201	-.267	-.292	.055	.192	-.615
가족구성원1	.074	.205	-.083	-.049	.145	-.033	-.182	.452	.066	-.124
가족구성원2	.132	.150	-.191	-.174	.214	-.061	-.076	.424	-.052	-.147
가족구성원3	-.039	.102	-.077	.037	.039	-.070	-.104	.410	-.026	-.061
가족구성원4	.119	.288	-.236	-.152	.041	-.091	-.168	.615	.108	-.218
비행친구1	.144	.714	-.154	-.160	.095	-.293	-.266	.295	.056	-.203
비행친구2	.125	.748	-.196	-.191	.023	-.114	-.217	.308	.189	-.249
비행친구3	.070	.866	-.142	-.192	.111	-.152	-.283	.390	.072	-.291
비행친구4	.065	.542	-.062	-.084	.176	-.033	-.199	.062	-.010	-.092

보호요인도 주축분해법을 직접 오블리민 방식으로 25회 반복회전하여 구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은 요인 1, 가정은 요인 5, 또래는 요인 3, 학교는 요인 4, 지역사회는 요인 2에 적재되었다.

표 14. 예비조사 보호요인 요인분석<sup>7)</sup>

구분	요인				
	1	2	3	4	5
개인 1	.751	.457	-.449	.475	-.587
개인 2	.805	.405	-.419	.437	-.568
개인 3	.630	.380	-.316	.398	-.488
개인 4	.755	.419	-.437	.474	-.526
개인 5	.740	.559	-.643	.576	-.728
개인 6	.767	.496	-.559	.561	-.680
가정 1	.684	.512	-.555	.545	-.910
가정 2	.637	.410	-.591	.549	-.825
가정 3	.646	.482	-.600	.518	-.899
또래 1	.522	.536	-.839	.565	-.610
또래 2	.560	.476	-.926	.612	-.626
학교 1	.485	.403	-.532	.861	-.489
학교 2	.573	.524	-.544	.903	-.550
지역사회 1	.499	.833	-.510	.476	-.480
지역사회 2	.516	.944	-.440	.485	-.485

## 바. 최종문항 선정

예비조사 결과와 전문가 검증을 토대로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문항 전반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후 학계(3인) 및 현장전문가(2인)와 연구진이 함께 하는 2차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의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실태조사에 활용될 최종문항은 위험요인, 위기결과, 보호요인 관련 104개 문항과 인구학적 일반문항 16개를 포함하여 총 1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비조사에 사용한 1차 문항과 최종문항으로 수정 변경된 내용 결과는 표 15에 제시하였다.

변경된 문항을 살펴보면, 위기결과 문항 중 가출과 직장생활 부적응 문항에 ‘모두 지난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명시하여 다른 문항들과 일치시켰다. 보호요인 문항 중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로 변경하였다. 또한, 위험요인의 하위요인 분류명을 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가정폭력, 부모와의 관계, 부모간 갈등’은 ‘가정폭력, 부모와의 갈등관계’로 정하고, 그에 따라 문항 배열을 조정하였다.

7) 구분에 제시된 하위요인 번호는 문항 순서대로 배열된 것임(부록 3참조)

표 15. 최종문항 선정 결과 비교

문항	변경 전	변경 후
95	가출팸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가출팸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다.
98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이나 직업훈련기관에 이유 없이 결근 또는 조퇴를 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이나 직업훈련기관에 이유 없이 결근 또는 조퇴를 한 적이 있다.
99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주변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부딪힌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주변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부딪힌 적이 있다.
100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생활이나 직업훈련기관에 적응하지 못해 그만 둔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생활이나 직업훈련기관에 적응하지 못해 그만 둔 적이 있다.
101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102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103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에게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을 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에게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을 한 적이 있다.
110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사. 최종문항 구성

최종문항은 위험요인, 위기결과, 그리고 보호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요인은 크게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8개의 하위영역에서 청소년의 위험요인의 현황을 질문하는 문항들이다. 하위영역의 요인명은 2차 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험요인 문항은 모두 46개이며, 17번에서 62번까지이다.

표 16. 위험요인 문항

영역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개인	우울·불안	9	17, 18, 19, 20, 21, 22, 23, 24, 25
	공격성·충동성·부주의	9	26, 27, 28, 29, 30, 31, 32, 33, 34
가정	가정폭력·부모와의 갈등 관계·방임	10	35, 36, 37, 40, 41, 42, 43, 44, 45, 46
	부모간 갈등	2	38, 39,
	문제 가족원	4	55, 56, 57, 58
또래	비행친구	4	59, 60, 61, 62
학교	학교생활부적응	5	47, 48, 49, 50, 51
지역사회	지역사회 유해환경	3	52, 53, 54

위기결과 문항은 청소년들이 실제 위험요인의 실행 여부 및 이슈화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행동에 노출되었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위기결과 문항은 총 43개이며, 63번에서 105번까지이다.

표 17. 위기결과 문항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5	63, 64, 65, 66, 67
약물	3	68, 69, 70
학교폭력-피해	5	71, 72, 73, 74, 75
학교폭력-가해	5	76, 77, 78, 79, 80
비행	3	81, 82, 83
자살	3	84, 85, 86
성문제	7	87, 88, 89, 90, 91, 92, 93
가출	3	94, 95, 104
학업중단	3	96, 97, 105
직장생활부적응	6	98, 99, 100, 101, 102, 103

보호요인 문항은 청소년들이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위기결과로 표출되지 않는지, 무엇이 그런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 문항들이다. 보호요인 문항은 위험요인과 마찬가지로 크게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 영역에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6번에서 120번까지이다.

표 18. 보호요인 문항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개인	6	106, 107, 108, 109, 110, 111
가정	3	112, 113, 114
또래	2	115, 116
학교	2	117, 118
지역사회	2	119, 120

### 3. 시범조사 실시

#### 가. 시범조사 및 요인분석

##### 1) 시범조사 대상

2015년에 완성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최종문항을 이용하여 문항의 타당화 및 청소년의 위기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부록 1 참조). 시범조사 지역은 서울·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시범조사는 예비조사 이외의 지역인 대전, 경기, 강원, 경북, 전북지역의 초·중·고 각 30여명씩 총 455명의 일반학생과 광주, 경남 등의 학교밖 청소년 57명을 포함하여 총 5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범조사 기간은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해당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 2) 신뢰도

최종 선정된 실태조사 질문지의 위험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표 19와 같다. 모든 하위요인에 걸쳐서 .70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가족원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52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낮은 신뢰도 계수를 갖는 이유로는 문항에 대한 응답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특정 응답지에만 집중적으로 응답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 문항의 분산을 검토해본 결과, 다른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의 분산이 대체로 1이상인데 반하여 문제가족원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4개 문항의 분산은 .084~.343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처럼 낮은 신뢰도 계수가 반드시 낮은 신뢰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항의 내용상 이와 같은 반응 패턴이 현실을 반영하는 정상적인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표 19. 위험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구 분	문항수	하위요인	위험요인
우울·불안	9	.92	.92
공격성·충동성·부주의	9	.83	
가정폭력·부모와의 갈등관계·방임	10	.91	.90
부모간 갈등	2	.80	
문제가족원	4	.52	
학교생활부적응	5	.84	.84
지역사회 유해환경	3	.70	.70
비행친구	4	.81	.81

보호요인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도 .82 이상이었다. 보호요인의 전체 및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표 20과 같다.

표 20. 보호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구 분	문항수	신뢰도	
개인	6	.84	.92
가정	3	.88	
또래	2	.82	
학교	2	.85	
지역사회	2	.85	

### 3) 요인분석

최종 선정된 위험요인 척도 및 보호요인 척도의 문항이 사전에 설정한 요인에 적절히 부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 가) 위험요인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에서 위험요인 척도 문항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위험요인은 8개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는데, '우울·불안(17번-25번)', '공격성·충동성·부주의(26번-34번)', '가정폭력·부모와의 갈등관계·방임(35번-37번, 40번-46번)', '부모간 갈등(38번-39번)', '문제가족원(55번-58번)', '학교생활부적응(47번-51번)', '지역사회 유해환경(52번-54번)', '비행친구(59번-62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는 위험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모형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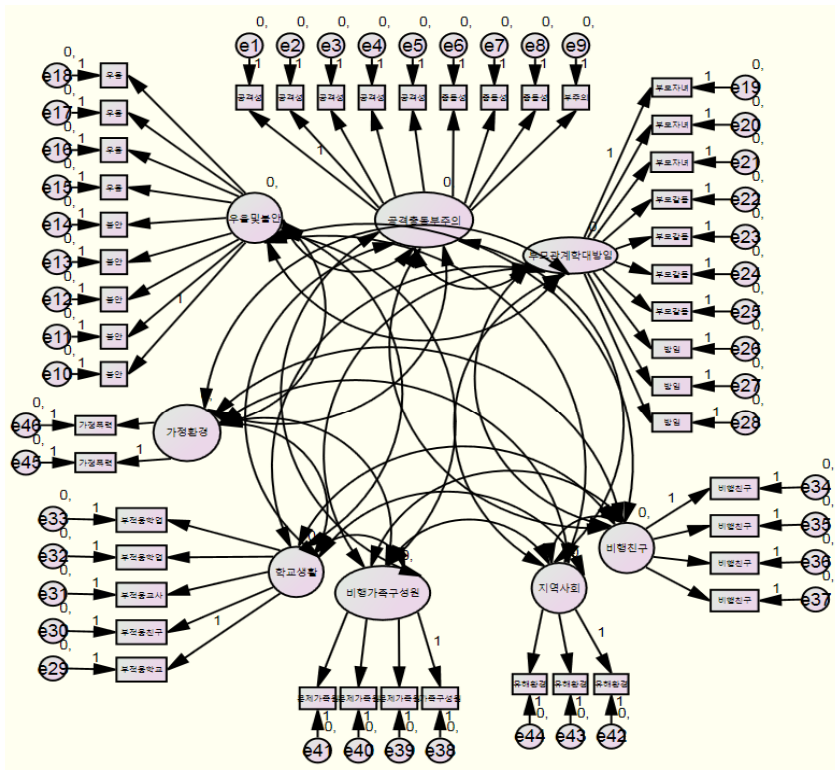


그림 4. 위험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 법칙타당성을 충족하여야 한다(우종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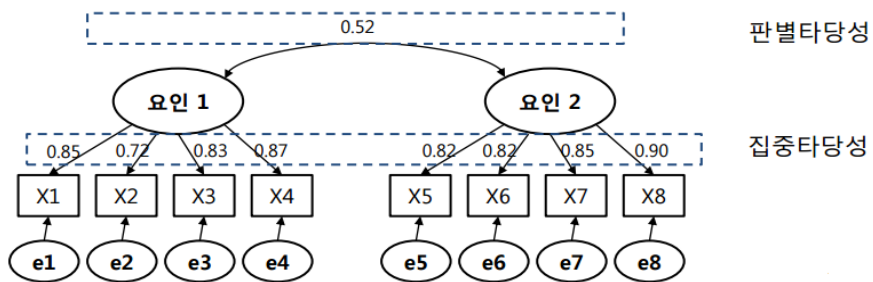


그림 5. 타당성 구분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계수의 값이 .5이상이어야 하며,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5이상, 개념신뢰도(C.R.)가 .7이상의 기준을 넘어야 한다. AVE는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의 제곱한 값들의 합을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의 제곱의 합과 오차분의 합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개념신뢰도는 표준화된 요인적재량 합의 제곱을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의 합의 제곱과 오차분산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먼저, 위험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IFI, TLI, CFI는 각각 0.810, 0.785, 0.809로 해석기준 0.9이상은 아니었으나 RMSEA값은 0.071로 0.08 이하인 경우 괜찮은 합치도로 판명되므로 해석 기준에서 괜찮은 합치도로 나타났다. 이같은 해석의 근거는 홍세희(2000)와 심우엽(2012)의 연구에 기반을 두었다. 즉, 홍세희는 2000년도에 발표한 연구에서 'RMSEA<.05 이면 좋은 적합도, RMSEA<.08 이면 괜찮은 적합도, RMSEA<.10 이면 보통 적합도이다'라고 하였고, 심우엽은 'RMSEA는 .70으로 이 값은 무난하며 따라서 본 연구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위험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위험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집중타당성)<sup>8)</sup>

구분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우울 · 불안 →	우울1	0.922	0.054	17.195	0.841	0.573	0.923
	우울2	0.753	0.045	16.736	0.816		
	우울3	0.959	0.056	17.261	0.844		
	우울4	0.921	0.052	17.552	0.860		
	불안1	0.952	0.058	16.335	0.795		
	불안2	0.892	0.063	14.047	0.676		
	불안3	1.125	0.074	15.183	0.735		
	불안4	0.753	0.063	11.986	0.573		
	불안5	1.000	0	0	0.689		
공격성 · 충동성 · 부주의 →	공격성1	1.000	0	0	0.734	0.340	0.901
	공격성2	0.799	0.053	15.076	0.721		
	공격성3	0.673	0.052	13.003	0.623		
	공격성4	0.828	0.064	12.964	0.622		
	공격성5	0.546	0.044	12.503	0.600		

8) 구분에 제시된 하위요인 번호는 문항 순서대로 배열된 것임(부록 4 참조)

구분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AVE	개념 신뢰도
공격성·총동성·부주의 →	총동성1	1.041	0.081	12,879	0.618		
	총동성2	1.056	0.084	12,547	0.602		
	총동성3	0.752	0.079	9,552	0.460		
	부주의1	0.756	0.079	9,595	0.462		
가정폭력· 부모와의 갈등관계· 방임 →	가정폭력1	1.000	0	0	0.777	0.689	0.956
	가정폭력2	0.886	0.048	18,453	0.781		
	가정폭력3	0.805	0.045	17,979	0.765		
	부모와의 갈등관계1	1.021	0.062	16,511	0.712		
	부모와의 갈등관계2	1.146	0.063	18,191	0.772		
	부모와의 갈등관계3	1.084	0.062	17,362	0.743		
	부모와의 갈등관계4	0.868	0.046	18,893	0.796		
	방임1	0.522	0.041	12,774	0.570		
	방임2	0.532	0.041	12,946	0.577		
	방임3	0.505	0.045	11,306	0.510		
부모간 갈등 →	부모간 갈등1	1.259	0.066	19,116	0.816	0.801	0.890
	부모간 갈등2	1.000	0	0	0.876		
학교생활부적응 →	학교생활부적응1	0.654	0.044	14,820	0.666	0.550	0.859
	학교생활부적응2	0.872	0.053	16,381	0.726		
	학교생활부적응3	0.722	0.043	16,855	0.745		
	학교생활부적응4	0.539	0.035	15,318	0.686		
	학교생활부적응5	1.000	0	0	0.798		
지역사회유해환경 →	지역사회유해환경1	1.230	0.117	10,518	0.661	0.658	0.850
	지역사회유해환경2	1.038	0.092	11,344	0.783		
	지역사회유해환경3	1.000	0	0	0.585		
문제가족원 →	문제가족원1	0.438	0.057	7,645	0.491	0.876	0.963
	문제가족원2	0.514	0.082	6,303	0.376		
	문제가족원3	0.264	0.042	6,314	0.377		
	문제가족원4	1.000	0	0	0.749		
비행친구 →	비행친구1	1.000	0	0	0.720	0.878	0.965
	비행친구2	0.897	0.058	15,472	0.756		
	비행친구3	1.031	0.061	16,952	0.901		
	비행친구4	0.363	0.037	9,803	0.476		

표 21의 결과에서 보면, 공격성·충동성·부주의 요인에서 충동성3(33번), 부주의(34번) 문항이 각각 0.460, 0.462로 표준화 계수 해석기준 0.5 이상을 넘지 못하였다. 또한 공격성·충동성·부주의 요인의 AVE 값이 0.340으로 나타나 해당 요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념신뢰도 값은 0.901로 0.8을 넘어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가족원 요인에서 문제가족원1(55번), 문제가족원2(56번), 문제가족원3(57번) 문항의 표준화 계수가 0.491, 0.376, 0.377로 나타나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AVE 값과 개념신뢰도 값이 해석 기준을 넘어서 이 두 방법에서 살펴본다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집중타당성검증을 실시하였다면 다음은 판별타당성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판별타당성 검증 방법은 표 22와 같이 두 가지가 있다.

표 22. 판별타당성 검증 방법

방법	내용
AVE > 상관계수의 제곱값 또는 AVE의 제곱근 값 > 상관계수	두 구성개념간 각각의 AVE 값과 두 구성개념간 상관계수 제곱값을 비교하여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함
상관계수 ± 2 X S.E가 1을 포함하는지의 여부	두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에 2를 더한 후 그리고 뺀 후 각각 표준오차를 곱했을 때 값의 범위가 1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1을 포함하면 판별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이 중 두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AVE 값이 더 커야 한다는 첫 번째 판별타당성검증 결과는 표 23과 같다. AVE 값과 비교하여 상관계수 제곱의 값들이 작아야 하는데, ‘공격성·충동성·부주의’의 AVE 값과 비교하여 상관계수 제곱 값들이 크게 나타났다.

표 23. 위험요인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1

구분	우울·불안	공격성·충동성·부주의	가정폭력 부모와의 갈등관계·방임	가정 환경	학교 생활 부적응	지역 사회 유해 환경	문제가족원	비행 친구	AVE
우울·불안	1								0.573
공격성·충동성·부주의	0.501	1							0.340
가정폭력·부모와의 갈등관계·방임	0.347	0.388	1						0.689
부모간 갈등	0.243	0.317	0.629	1					0.801
학교생활 부적응	0.453	0.452	0.347	0.204	1				0.550

구분	우울·불안	공격성·충동성·부주의	가정폭력 부모와의 갈등관계·방임	가정환경	학교생활부적응	지역사회유해환경	문제가족원	비행친구	AVE
지역사회 유해환경	0.398	0.383	0.353	0.252	0.442	1			0.658
문제가족원	0.050	0.093	0.147	0.130	0.063	0.120	1		0.876
비행친구	0.030	0.095	0.131	0.044	0.089	0.093	0.269	1	0.878

두 번째 판별타당성 검증 방법의 결과는 표 24와 같다. 모든 위험요인 상호간 (상관계수+2)×S.E.와 (상관계수-2)×S.E. 값의 범위가 1을 포함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위험요인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2

내용	상관계수	S.E	(r+2)S.E.	(r-2)S.E.
부모간 갈등 ↔ 우울·불안	0.493	0.028	0.070	-0.042
부모간 갈등 ↔ 학교생활부적응	0.452	0.031	0.076	-0.048
학교생활부적응 ↔ 문제가족원	0.250	0.012	0.027	-0.021
문제가족원 ↔ 지역사회유해환경	0.347	0.009	0.021	-0.015
공격성·충동성·부주의 ↔ 우울·불안	0.708	0.040	0.108	-0.052
공격성·충동성·부주의 ↔ 가정폭력·부모와의 갈등관계·방임	0.623	0.026	0.068	-0.036
가정폭력·부모와의 갈등관계·방임 ↔ 비행친구	0.362	0.012	0.028	-0.020
비행친구 ↔ 지역사회	0.305	0.013	0.030	-0.022
우울·불안 ↔ 학교생활부적응	0.673	0.052	0.139	-0.069
우울·불안 ↔ 문제가족원	0.223	0.010	0.022	-0.018
우울·불안 ↔ 지역사회유해환경	0.631	0.037	0.097	-0.051
우울·불안 ↔ 비행친구	0.173	0.015	0.033	-0.027
우울·불안 ↔ 가정폭력·부모와의 갈등관계·방임	0.589	0.031	0.080	-0.044
가정환경 ↔ 문제가족원	0.361	0.008	0.019	-0.013
부모간 갈등 ↔ 지역사회유해환경	0.502	0.023	0.058	-0.034
부모간 갈등 ↔ 비행친구	0.209	0.011	0.024	-0.020
부모간 갈등 ↔ 가정폭력·부모와의 갈등관계·방임	0.793	0.023	0.064	-0.028
가정환경 ↔ 공격성·충동성·부주의	0.563	0.024	0.062	-0.034
학교생활부적응 ↔ 지역사회유해환경	0.665	0.043	0.115	-0.057
학교생활부적응 ↔ 비행친구	0.299	0.019	0.044	-0.032
가정폭력·부모와의 갈등관계·방임 ↔ 학교생활부적응	0.589	0.034	0.088	-0.048
공격성·충동성·부주의 ↔ 학교생활부적응	0.672	0.043	0.115	-0.057
비행친구 ↔ 문제가족원	0.519	0.006	0.015	-0.009
가정폭력·부모와의 갈등관계·방임 ↔ 비행가족구성원	0.384	0.008	0.019	-0.013

내용	상관계수	S.E	(r+2)S.E.	(r-2)S.E.
공격성 · 충동성 · 부주의 ↔ 문제가족원	0.305	0.009	0.021	-0.015
가정폭력 · 부모와의 갈등관계 · 방임 ↔ 지역사회유해환경	0.594	0.025	0.065	-0.035
공격성 · 충동성 · 부주의 ↔ 지역사회유해환경	0.619	0.030	0.079	-0.041
공격성 · 충동성 · 부주의 ↔ 비행친구	0.309	0.014	0.032	-0.024

### 나) 보호요인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에서 보호요인 척도 문항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보호요인은 5개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는데, ‘개인(106번-111번)’, ‘가정(112번-114번)’, ‘또래(115번-116번)’, ‘학교(117번-118번)’, ‘지역사회(119번-120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은 보호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모형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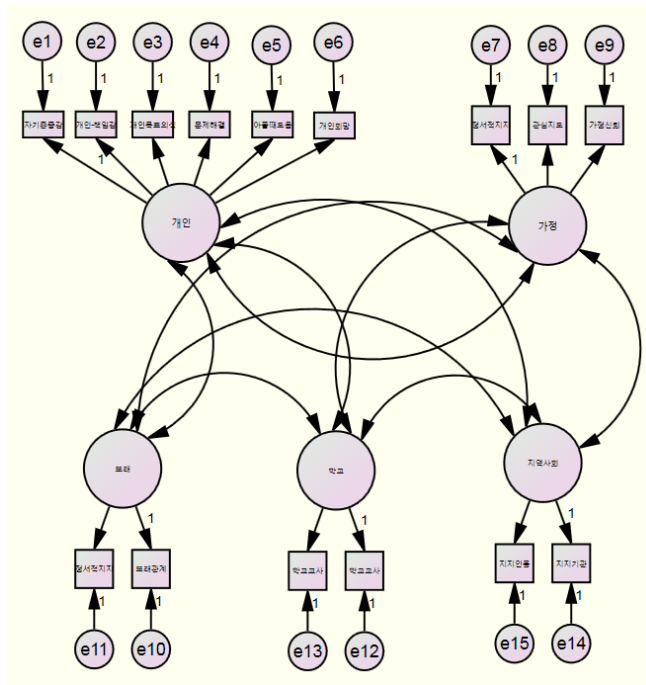


그림 6. 보호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보호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IFI, TLI, CFI는 각각 0.944, 0.926, 0.943으로 해석기준 0.9 이상을 넘어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 RMSEA값은 0.077로 0.08 이하인 경우 괜찮은 합치도로 판명되므로 해석 기준에서 괜찮은 합치도로 나타났다. 보호요인의 확인적 요

인분석의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준화계수 해석기준에서 볼 때 표준화계수의 값이 0.5 이상이었으며, AVE 값과 개념신뢰도 또한 해석기준을 넘어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보호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집중타당성)<sup>9)</sup>

구분	비표준화계수	S.E.	C.R.	표준화계수	AVE	개념 신뢰도
개인1	1,000	0	0	0,711	0,515	0,863
개인2	0,817	0,062	13,173	0,642		
개인3	0,848	0,072	11,797	0,573		
개인4	0,889	0,062	14,238	0,695		
개인5	0,956	0,064	14,978	0,733		
개인6	0,930	0,060	15,375	0,754		
가정1	1,000	0	0	0,910	0,768	0,963
가정2	0,799	0,036	22,292	0,803		
가정3	0,891	0,039	22,565	0,809		
또래1	1,154	0,068	16,893	0,822	0,755	0,860
또래2	1,000	0	0	0,862		
학교1	0,950	0,049	19,300	0,826	0,712	0,832
학교2	1,000	0	0	0,895		
지역사회1	1,005	0,056	18,039	0,864	0,650	0,787
지역사회2	1,000	0	0	0,851		

보호요인 척도의 판별타당성검증 결과는 표 26, 표 27과 같다.

판별타당성검증 방법 중 표 26은 첫 번째 결과를 보여준다. AVE 값과 비교하여 상관계수 제공의 값들이 작아야 하는데, 모든 상관계수 제공의 값이 각 구성개념의 AVE 값 보다 작게 나타났다.

표 26. 보호요인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1

구분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	AVE
개인	1					0,515
가정	0,640	1				0,768
또래	0,480	0,366	1			0,755
학교	0,340	0,345	0,340	1		0,712
지역사회	0,345	0,316	0,316	0,465	1	0,650

9) 구분에 제시된 하위요인 번호는 문항 순서대로 배열된 것임(부록 4 참조)

두 번째 방법에 따른 판별타당성검증 결과, 모든 보호요인의 하위요인 상호간 (상관계수 +2)×S.E.와 (상관계수-2)×S.E. 값의 범위가 1을 포함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은 그 결과를 나타낸다.

표 27. 보호요인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2

구분	상관계수	S.E	+2S.E.	-2S.E.
개인 ↔ 가정	0.800	0.041	0.115	-0.049
개인 ↔ 또래	0.693	0.034	0.092	-0.044
개인 ↔ 학교	0.583	0.045	0.116	-0.064
개인 ↔ 지역사회	0.587	0.049	0.127	-0.069
가정 ↔ 또래	0.605	0.034	0.089	-0.047
가정 ↔ 학교	0.587	0.046	0.119	-0.065
가정 ↔ 지역사회	0.562	0.052	0.133	-0.075
또래 ↔ 학교	0.583	0.040	0.103	-0.057
또래 ↔ 지역사회	0.562	0.046	0.118	-0.066
학교 ↔ 지역사회	0.682	0.065	0.174	-0.086

## 나. 위기수준 결정

### 1) 기준점수 설정

전체 위기청소년을 2010년도에 분류한 위험군, 잠재군, 일반군의 세 집단으로 동일하게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인 앵고프 방식의 형태를 일부 활용하여 위험군 vs. 잠재군, 잠재군 vs. 일반군 두 집단의 분할점수(cut-off score)를 구하였다.

분할점수 산출을 위하여 이미 1차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했던 10명의 학계 및 현장전문가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준거설정의 의미, 위험요인의 하위영역과 관련된 설문문항, 그리고 설문문항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의 상세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였다. 그리고 설문지 작성 시에는 두 가지 수준의 경계선에 있는 청소년을 생각하면서 위험군 vs. 잠재군, 잠재군 vs. 일반군 경계에 있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체크하도록 하였다. 표 28은 전문가들이 평정하여 결정한 기준 점수(원점수)를 나타낸다.

표 28. 위험요인의 위험수준 기준점수(원점수)

위험요인	문항수	만점	위험군/잠재군		잠재군/일반군		전체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우울·불안	9	36	24.10	24.00	19.00	19.00	8.08	6.93
공격성·충동성·부주의	9	36	24.80	24.50	19.20	17.50	8.82	5.48
가정폭력·부모와의 갈등관계·방임	10	40	28.30	29.00	19.80	19.00	3.26	5.12
부모간 갈등	2	8	5.70	6.00	4.40	5.00	0.81	1.42
학교생활부적응	5	20	14.60	14.50	10.50	11.00	3.71	3.78
지역사회유해환경	3	12	6.90	6.50	5.00	5.00	2.04	2.20
문제가족원	4	16	6.20	6.00	2.80	3.00	0.43	1.22
비행친구	4	16	10.40	10.00	4.40	4.00	1.11	2.66

## 2) 위기수준 결정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평정하여 결정한 기준점수를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점수 분포 상의 각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표준점수(z점수)로 환산하였다. 이렇게 환산된 각 하위요인의 표준점수를 합산(8개 z점수의 합)하여 전체 위기수준의 절단점(cut-off score)을 도출하였다. 표 29는 각 하위요인별 절단점 및 전체 절단점을 나타낸다.

표 29. 하위요인 및 전체 절단점(z점수)

위험요인의 하위요인	일반군/잠재군	잠재군/위험군
우울·불안	1.59	2.33
공격성·충동성·부주의	1.90	2.93
가정폭력·부모와의 갈등관계·방임	3.24	4.90
부모간 갈등	2.55	3.48
학교생활부적응	1.80	2.88
지역사회유해환경	1.34	2.20
문제가족원	1.93	4.69
비행친구	1.23	3.49
전체	15.58	26.90



당초 본 연구에서는 2010년도 위기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하위요인별 표준점수를 합산한 전체 점수(z점수의 합)를 활용하여 각 청소년의 위험 수준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점수를 적용한 결과,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첫째, 위험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를 정교하게 적용하였던 2010년도의 절단점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절단점은 매우 높았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설정된 일반군과 잠재군을 가르는 점수 15.58점은 2010년도에 잠재군과 위험군을 가르는 전체점수(8개 하위요인의 z점수 합, 13.23점) 보다 높은 것이었다. 둘째,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청소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은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평정 점수를 토대로 결정한 절단점을 적용했을 때, 위험요인에 있어서의 위험수준별 추정인원수를 나타낸다.

표 30. 위험요인에 있어서의 위험수준별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 추정치

위험수준	빈도	퍼센트
일반군	504	98.4
잠재적 위험군	8	1.6
고위험군	0	0.0
전체	512	100.0

※ 각 위험요인의 z점수를 합산한 후 위험수준을 범주화 함

이와 같이 엄격하게 설정된 절단점은 향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게 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절단점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에 있어서도 2010년 조사에서처럼 함께 모여 조율하는 작업과정이 없어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런 이유로 연구진은 2010년도의 절단점을 활용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31은 2010년도에 수행된 조사에서 활용한 절단점을 나타낸다.

표 31. 2010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 도출한 분할점수<sup>10)</sup>

영역	Z점수척도상 잠재군/일반군 분할점수	Z점수척도상 위험군/잠재군 분할점수
우울·불안	0.20	1.35
공격성·충동성·부주의	- 0.07	1.01
가정폭력·부모와의갈등관계·방임(부모관계·학대·방임)	1.20	3.12

10) ( )속 영역은 2010년도 분류내용임

영역	Z점수척도상 잠재군/일반군 분할점수	Z점수척도상 위험군/잠재군 분할점수
부모간 갈등(가정환경)	1,12	2,33
문제가족원(반사회적가족)	0,82	1,54
학교생활부적응(학교생활)	0,68	1,86
지역사회유해환경(지역사회)	0,29	1,16
비행친구(반사회적친구)	0,72	0,87

※ 출처: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이와 같은 절단점을 적용하여 위험요인에 있어서의 위험수준별 인원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위험요인에 있어서의 위험수준별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 추정치(2010년 절단점 적용)

위험수준	빈도	퍼센트
일반군	431	84,2
잠재적 위험군	65	12,7
고위험군	16	3,1
전체	512	100,0

본 연구에서는 위험요인 척도를 통해 나타난 위험수준과 위기결과 항목에서 나타난 문제행동 또는 경험과의 조합으로 총 6개의 위기수준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에서 활용하였던 방법과 동일하다. 위험수준과 위기결과에 따른 여섯 수준으로의 위기수준 분류 및 위기결과 항목에 해당하는 문항은 아래의 표 33, 표 34, 표 35에 제시하였다.

특히 표 35에 제시된 위기결과 항목에 해당하는 문항과 위기결과의 수준은 2차 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즉,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63번부터 105번까지의 43개 문항 중 12개 문항은 제외하고 31개 문항만 위기결과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외된 항목은 2010년과 비교하기 위하여 2010년에 제외한 문항은 본 연구에서도 제외시켰으며, 2015년 신규 개발된 문항 중에서도 2010년과 위기결과의 수준을 비교검토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일부 문항은 연구진이 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제외시켰다.

표 33. 위기수준(위기 6 수준) 분류

위험수준	위기결과	위기결과 항목에 해당 있음	위기결과 항목에 해당 없음
	고위험군	1수준	4수준
	잠재적 위험군	2수준	5수준
	일반군	3수준	6수준

※ 출처: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표 34. 위기수준(위기 6 수준) 분류 설명

구 분		설 명
1수준	위험군	고위험군 위험요인이 고위험군에 속하면서 위기결과 항목에 1문항 이상 응답한 청소년군
2수준		행동적 위험군 위험요인이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면서 위기결과 항목에 1문항 이상 응답한 청소년군
3수준		결과적 위험군 위험요인이 일반군에 속하나 위기결과 항목에 1문항 이상 응답한 청소년군
4수준		심리환경적 위험군 위험요인이 고위험군에 속하나 위기결과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군
5수준	잠재군	위험요인이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나 위기결과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군
6수준	일반군	위험요인이 일반군에 속하면서 위기결과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군

※ 출처: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표 35. 위기결과 항목에 해당되는 문항과 수준

문항내용	전혀 없다	1번	2-3번	주 1-2회	거의 매일
65. 지난 한 달 동안 게임이나 채팅(인터넷·스마트폰)을 하루에 3~4시간 이상 한 적이 있다.	0	1	2	3	<u>4</u>
66. 지난 한 달 동안 게임이나 채팅(인터넷·스마트폰)을 하느라 일상생활을 못한 적(결석, 지각, 불규칙한 식사 및 수면 등)이 있다.	0	1	2	<u>3</u>	<u>4</u>
67.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0	1	2	3	<u>4</u>
68.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0	1	2	3	<u>4</u>
69. 지난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0	1	2	3	<u>4</u>
70. 지난 한 달 동안 가스, 마약 등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	0	1	2	<u>3</u>	<u>4</u>
71.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u>3</u>	<u>4</u>
72.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u>4</u>

문항내용		전혀 없다	1번	2-3 번	주 1-2회	거의 매일
73.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u>4</u>
74.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에게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있다.	0	1	2	<u>3</u>	<u>4</u>
75.	지난 1년 동안 사이버폭력(SNS, 카톡 등에서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u>3</u>	<u>4</u>
76.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다.	0	1	2	<u>3</u>	<u>4</u>
77.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u>4</u>
78.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0	1	2	3	<u>4</u>
79.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	0	1	2	<u>3</u>	<u>4</u>
80.	지난 1년 동안 사이버폭력(SNS, 카톡 등에서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u>4</u>
81.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0	1	2	<u>3</u>	<u>4</u>
82.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있다.	0	1	2	<u>3</u>	<u>4</u>
85.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0	1	2	<u>3</u>	<u>4</u>
86.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0	<u>1</u>	<u>2</u>	<u>3</u>	<u>4</u>
89.	지난 1년 동안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0	<u>1</u>	<u>2</u>	<u>3</u>	<u>4</u>
90.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0	<u>1</u>	<u>2</u>	<u>3</u>	<u>4</u>
92.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0	<u>1</u>	<u>2</u>	<u>3</u>	<u>4</u>
93.	원치 않는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한 적이 있다.	0	<u>1</u>	<u>2</u>	<u>3</u>	<u>4</u>
94.	지난 1년 동안 가출 한 경험이 있다.	0	1	2	<u>3</u>	<u>4</u>
95.	지난 1년 동안 가출팸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다.	0	1	<u>2</u>	<u>3</u>	<u>4</u>
100.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생활이나 직업훈련기관에 적응하지 못해 그만 둔 적이 있다.	0	1	2	<u>3</u>	<u>4</u>
101.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u>4</u>
102.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u>3</u>	<u>4</u>
문항내용		아니다		그렇다		
104.	지금 가출한 상태이다.	0		<u>1</u>		
105.	지금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0		<u>1</u>		

※ 위 설문문항 중 진하게 밑줄 친 번호에 체크한 경우 위기결과 항목에 해당되는 수준임.

※ 단, 65번과 66번은 동시에 모두 체크되어야 위기결과 항목에 해당 됨.

## IV. 시범조사 결과 분석

2015년에 완성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최종문항을 이용하여 초·중·고 일반학생 455명과 학교밖 청소년 57명을 포함하여 총 512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1. 조사대상

#### 가. 시도별

조사대상의 대부분은 대전(20.4%), 경기(21.3%), 강원(18.9%), 경북(18.5%), 전북(20.4%) 지역 일반 학생청소년이었다. 위기·취약 청소년은 대전(17.5%), 광주(19.3%), 강원(19.3%), 충북(10.5%), 경북(10.5%), 경남(15.8%) 등에서 주로 표집되었다. 표 36는 전체 조사대상에 대한 시도별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표 36.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시도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대구광역시	1 ( 0.2)	0 ( 0.0)	1 ( 0.2)
대전광역시	93 ( 20.4)	10 ( 17.5)	103 ( 20.1)
광주광역시	0 ( 0.0)	11 ( 19.3)	11 ( 2.1)
경기도	97 ( 21.3)	0 ( 0.0)	97 ( 18.9)
강원도	86 ( 18.9)	11 ( 19.3)	97 ( 18.9)
충청북도	0 ( 0.0)	6 ( 10.5)	6 ( 1.2)
충청남도	0 ( 0.0)	1 ( 1.8)	1 ( 0.2)
경상북도	84 ( 18.5)	6 ( 10.5)	90 ( 17.6)
경상남도	0 ( 0.0)	9 ( 15.8)	9 ( 1.8)
전라북도	93 ( 20.4)	0 ( 0.0)	93 ( 18.2)
전라남도	1 ( 0.2)	3 ( 5.3)	4 ( 0.8)
합계	455 (100.0)	57 (100.0)	512 (100.0)

## 나. 성별

총 조사대상 중 남자 청소년은 47.1%였으며, 여자 청소년은 52.9%였다. 위기·취약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이 61.4%로 일반 청소년의 경우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37.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성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남	206 ( 45.3)	35 ( 61.4)	241 ( 47.1)
여	249 ( 54.7)	22 ( 38.6)	271 ( 52.9)
합계	455 (100.0)	57 (100.0)	512 (100.0)

## 다. 학교별

조사대상 중 초등생은 26.0%, 중학생은 31.2%, 고등학생은 33.8%이었다. 대안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는 청소년은 1.8%였다. 마지막으로 어느 곳도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7.2%(37명)이었다.

표 38.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학교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초등학교	133 ( 29.2)	0 ( 0.0)	133 ( 26.0)
중학교	158 ( 34.7)	2 ( 3.5)	160 ( 31.2)
인문계고등학교	132 ( 29.0)	1 ( 1.8)	133 ( 26.0)
전문계고등학교	32 ( 7.0)	8 ( 14.0)	40 ( 7.8)
대안학교	0 ( 0.0)	3 ( 5.3)	3 ( 0.6)
검정고시 학원	0 ( 0.0)	6 ( 10.5)	6 ( 1.2)
해당사항 없음	0 ( 0.0)	37 ( 64.9)	37 ( 7.2)
합계	455 (100.0)	57 (100.0)	512 (100.0)

## 라. 학년별

조사대상 중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 각각 20.9%, 24.8%, 19.5%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다른 학년은 5~9% 정도의 분포를 보였다.

표 39.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학년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초등학교 5학년	107 ( 23.5)	0 ( 0.0)	107 ( 20.9)
초등학교 6학년	26 ( 5.7)	0 ( 0.0)	26 ( 5.1)
중학교 1학년	0 ( 0.0)	0 ( 0.0)	0 ( 0.0)
중학교 2학년	127 ( 27.9)	0 ( 0.0)	127 ( 24.8)
중학교 3학년	31 ( 6.8)	2 ( 3.5)	33 ( 6.4)
고등학교 1학년	94 ( 20.7)	6 ( 10.5)	100 ( 19.5)
고등학교 2학년	38 ( 8.4)	6 ( 10.5)	44 ( 8.6)
고등학교 3학년	32 ( 7.0)	0 ( 0.0)	32 ( 6.3)
해당사항 없음	0 ( 0.0)	42 ( 73.7)	42 ( 8.2)
무응답	0 ( 0.0)	1 ( 1.8)	1 ( 0.2)
합계	455 (100.0)	57 (100.0)	512 (100.0)

#### 마. 거주형태별

조사대상 청소년에게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85.0%(435명)는 친부모와 함께 산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친아버지와 살고 있는 경우는 3.7%였으며 친어머니와 살고 있는 경우 8.2%이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경우는 13.7%로 나타났다.

표 40.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거주형태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친부모	400 ( 87.9)	35 ( 61.4)	435 ( 85.0)
친아버지	17 ( 3.7)	2 ( 3.5)	19 ( 3.7)
친어머니	29 ( 6.4)	13 ( 22.8)	42 ( 8.2)
새아버지	4 ( 0.9)	1 ( 1.8)	5 ( 1.0)
새어머니	2 ( 0.4)	0 ( 0.0)	2 ( 0.4)
조부모	59 ( 13.0)	11 ( 1.2)	70 ( 13.7)
친척	3 ( 1.1)	1 ( 1.8)	6 ( 1.2)
형제자매	372 ( 81.8)	38 ( 7.1)	410 ( 80.1)
친구 또는 선후배	2 ( 0.4)	0 ( 0.0)	2 ( 0.4)
청소년보호자	1 ( 0.2)	0 ( 0.0)	0 ( 0.0)

※ 복수응답 가능 문항

## 바. 부모 출신국별

조사 대상자 가운데 두 분 모두 한국인은 99.0%였으며, 부모 중 한분이라도 외국인인 경우는 전체의 0.4%인 2명이었다. 두 분 다 새터민인 경우는 0.2%의 분포를 보였다.

표 41.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부모 출신국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두 분 모두 한국인	451 ( 99.1)	56 ( 98.2)	507 ( 99.0)
한 분만 외국인	1 ( 0.2)	1 ( 1.8)	2 ( 0.4)
두 분 모두 새터민	1 ( 0.2)	0 ( 0.0)	1 ( 0.2)
모름	2 ( 0.4)	0 ( 0.0)	2 ( 0.4)
합계	455 (100.0)	57 (100.0)	512 (100.0)

## 사. 가정경제 수준별

조사대상 청소년 중 가정경제 형편에 대하여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는 경우는 10.9%에 해당하였다. 위기·취약 청소년의 경우는 전체 57명 중 40.4%가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고 한 반면, 일반 청소년은 7.2%만이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고 답하였다.

표 42.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매우 어려운 편	1 ( 0.2)	3 ( 5.3)	4 ( 0.8)
어려운 편	32 ( 7.0)	20 ( 35.1)	52 ( 10.1)
보통이다	323 ( 71.0)	32 ( 56.1)	355 ( 69.3)
잘사는 편	91 ( 20.0)	2 ( 3.5)	93 ( 18.2)
매우 잘사는 편	7 ( 1.5)	0 ( 0.0)	7 ( 1.4)
무응답	1 ( 0.2)	0 ( 0.0)	1 ( 0.2)
합계	455 (100.0)	57 (100.0)	512 (100.0)



## 아. 국가의 지원여부

조사대상 청소년에게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에 대해 물어본 결과, 51.0%(261명)는 ‘지원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13.1%, 기초생계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5.3%,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4.5%로 나타났다. 기초생계비를 지원 받는 경우는 일반청소년은 2.6%에 불과한 반면, 위기·취약 청소년은 26.3%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43.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분포

단위: 명(%)

구분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지원 없음	236 ( 51.9)	25 ( 43.9)	261 ( 51.0)
기초생계비지원	12 ( 2.6)	15 ( 26.3)	27 ( 5.3)
의료비 지원	15 ( 3.3)	8 ( 14.0)	23 ( 4.5)
급식비 지원	57 ( 0.1)	10 ( 17.5)	67 ( 13.1)
긴급복지지원	4 ( 0.9)	1 ( 1.8)	5 ( 1.0)
기타	2 ( 0.4)	0 ( 0.0)	2 ( 0.4)
모름	160 ( 35.0)	14 ( 24.6)	174 ( 34.0)

※ 복수응답 가능 문항

## 자. 물질적 지원 정도

현재 부모 등으로부터 받고 있는 물질적 지원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9.2%가 ‘부족함’ 또는 ‘전혀 못받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위기·취약청소년의 경우는 29.8%가 ‘부족함’ 또는 ‘전혀 못받음’이라고 응답하여 일반 청소년의 응답 비율(6.6%)보다 높았다.

표 44.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물질적 지원 여부 분포

단위: 명(%)

구분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전혀 못받음	9 ( 2.0)	8 ( 14.0)	17 ( 3.3)
부족함	21 ( 4.6)	9 ( 15.8)	30 ( 5.9)
보통	125 ( 27.5)	18 ( 31.6)	143 ( 27.9)
받고 있음	111 ( 24.4)	9 ( 15.8)	120 ( 23.4)
충분함	189 ( 41.5)	13 ( 22.8)	202 ( 39.5)
합계	455 (100.0)	57 (100.0)	512 (100.0)

## 차. 정서적 지원 정도

현재 부모 등으로부터 받고 있는 정서적 지원정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청소년의 11.1%가 '부족함' 또는 '전혀 못받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위기·취약 청소년의 경우 22.8%가 '부족함' 또는 '전혀 못받음'이라는 응답을 한 반면,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9.7%만이 '부족함' 또는 '전혀 못받음'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45.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정서적 지원 여부 분포

단위: 명(%)

구분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전혀 못받음	8 ( 1.8)	6 ( 10.5)	14 ( 2.7)
부족함	36 ( 7.9)	7 ( 12.3)	43 ( 8.4)
보통	130 ( 28.6)	23 ( 40.4)	153 ( 29.9)
받고 있음	99 ( 21.7)	10 ( 17.5)	109 ( 21.3)
충분함	182 ( 40.0)	11 ( 19.3)	193 ( 37.7)
합계	455 (100.0)	57 (100.0)	512 (100.0)

## 카. 도움 요청별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 '없다'는 응답비율은 6.3%였으며, '1명'이라는 응답은 7.6%, '2명~3명'은 32.0%, 마지막으로 '4명 이상'이라는 응답은 53.9%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없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하였으나, 위기·취약 청소년의 경우 '없다'는 응답은 15.8%에 달했다.

표 46.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도움을 청할 사람 여부 분포

단위: 명(%)

구분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없음	23 ( 5.1)	9 ( 15.8)	32 ( 6.3)
1명	31 ( 6.8)	8 ( 14.0)	39 ( 7.6)
2~3명	143 ( 31.4)	21 ( 36.9)	164 ( 32.0)
4명 이상	257 ( 56.5)	19 ( 33.3)	276 ( 53.9)
무응답	1 ( 0.2)	0 ( 0.0)	1 ( 0.2)
합계	455 (100.0)	57 (100.0)	512 (100.0)

## 타.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한 인지도

조사대상 청소년에게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을 아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의 58.8%는 ‘아니오’라는 응답을 하였다. 위기·취약 청소년의 경우는 42.1%가 ‘아니오’라는 응답을 하였고 ‘예’라는 응답은 57.9% 이었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는 ‘예’라는 응답이 39.1%에 불과하였다.

표 47.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1388 전화 인지도 분포

단위: 명(%)

구분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예	178 ( 39.1)	33 ( 57.9)	211 ( 41.2)
아니오	277 ( 60.9)	24 ( 42.1)	301 ( 58.8)
합계	455 (100.0)	57 (100.0)	512 (100.0)

## 파. 청소년전화 1388 이용 여부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의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97.1%가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예’라는 응답은 2.9%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위기·취약 청소년의 경우 ‘예’라는 응답비율이 17.5%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8.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1388 전화 이용 여부 분포

단위: 명(%)

구분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예	5 ( 1.1)	10 ( 17.5)	15 ( 2.9)
아니오	450 ( 98.9)	47 ( 82.5)	497 ( 97.1)
합계	455 (100.0)	57 (100.0)	512 (100.0)

## 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인지도

조사대상 청소년에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 아는지 물어본 결과, ‘예’라는 응답은 54.7%였고 ‘아니오’라는 응답이 45.3%였다. 위기·취약 청소년의 경우는 ‘예’라는 응답비율이 75.4%로 높게 나타났다.

표 49.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도 분포

단위: 명(%)

구분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예	237 ( 52.1)	43 ( 75.4)	280 ( 54.7)
아니오	218 ( 47.9)	14 ( 24.6)	232 ( 45.3)
합계	455 (100.0)	57 (100.0)	512 (100.0)

## 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여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예’라는 응답은 9.2% 였고, ‘아니오’라는 응답이 90.8%였다. 그러나 위기·취약 청소년의 경우는 52.6%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표 50.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여부 분포

단위: 명(%)

구분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예	17 ( 3.7)	30 ( 52.6)	47 ( 9.2)
아니오	438 ( 96.3)	27 ( 47.4)	465 ( 90.8)
합계	455 (100.0)	57 (100.0)	512 (100.0)

## 2. 위기수준

### 가. 위험요인에 따른 위험수준 분포

위험요인에 있어서의 위험수준을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조사 대상 청소년의 전체 위험수준 분포는 표 51과 같다. 즉, 고위험군은 3.1%, 잠재적 위험군은 12.7%, 일반군은 84.2%로 나타났다.

표 51. 위험요인에 따른 위험수준 분포

단위: 명(%)

위험수준	일반학생	위기·취약청소년	전체
고위험군	5 ( 1.1)	11 ( 19.3)	16 ( 3.1)
잠재적 위험군	48 ( 10.5)	17 ( 29.8)	65 ( 12.7)
일반군	402 ( 88.4)	29 ( 50.9)	431 ( 84.2)
합계	455 (100.0)	57 (100.0)	512 (100.0)

## 나. 위기수준 분포

위험요인 척도의 분석을 통해 산출한 세 개의 위험 수준 범주와 위기결과의 31개 항목에 대한 해당 여부의 조합으로 6수준의 위기수준을 산출하였다. 표 52는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수준은 2.5%, 2수준 5.9%, 3수준 7.4%, 4수준 0.6%로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은 전체의 16.4%의 분포를 보였다. 잠재군인 5수준은 6.8%, 일반군에 해당하는 6수준은 76.8%로 나타났다.

표 52. 위기수준 분포

단위: 명(%)

위기수준		일반학생	위기·취약청소년	전체
위험군	1수준	3( 0.7)	10(17.5)	13( 2.5)
	2수준	14( 3.1)	16(28.0)	30( 5.9)
	3수준	18( 3.9)	20(35.1)	38( 7.4)
	4수준	2( 0.4)	1( 1.8)	3( 0.6)
잠재군	5수준	34( 7.5)	1( 1.8)	35( 6.8)
일반군	6수준	384(84.4)	9(15.8)	393(76.8)
합계		455(100.0)	57(100.0)	512(100.0)

## 3. 위기결과

시범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위기결과를 분석하였다. 위기결과 분석은 앞의 표 35에서 제시한 위기결과에 해당되는 문항과 각 위기결과의 수준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표 35에서 제외시킨 문항은 이 위기결과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위기결과 문항 전체에 대한 결과는 부록 5에 제시하였다. 이때의 위기결과의 수준은 연구진이 제2차 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 기준에 따랐다.

### 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인터넷·스마트폰 중독문제의 경우 위기결과 수준이 일상생활장애는 주 1~2회 이상, 과다사용과 금단 항목은 거의 매일 나타난 경우를 위기결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과다사용과 일상생활장애는 모두 체크되어야만 위기결과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조사대상 청소년 중 인터넷·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는 경우가 13.4%(68명)로 가장 많았으며, 일상생활장애 7.7%(39명), 금단증상 2.8%(14명)로 나타났다. 위기·취약 청소년은 일반학생에 비해 과다사용이나 일상생활장애, 금단문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과다사용과 일상생활장애에 모두 체크한 청소년은 7.7%(39명)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는 가운데 일상생활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7.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기 분포

단위: 명(%)

구분		경험 유무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chi^2$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과다사용	유	54 ( 11.9)	14 ( 25.0)	68 ( 13.4)	.007**
		무	399 ( 88.1)	42 ( 75.0)	441 ( 86.6)	
		무응답	2	1	3	
	일상생활 장애	유	30 ( 6.6)	9 ( 16.1)	39 ( 7.7)	.012*
		무	423 ( 93.4)	47 ( 83.9)	470 ( 92.3)	
		무응답	2	1	3	
	금단증상	유	9 ( 2.0)	5 ( 8.9)	14 ( 2.8)	.003**
		무	444 ( 98.0)	51 ( 91.1)	495 ( 97.2)	
		무응답	2	1	3	

\*p<.05, \*\*p<.01, \*\*\*p<.001

## 나. 약물

약물의 경우 위기결과 수준이 술과 담배는 거의 매일하는 경우를, 가스나 마약은 주 1~2회 이상인 경우를 위기결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조사대상 청소년 중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청소년은 전체의 0.8%(4명), 거의 매일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은 4.5%(23명)로 나타났다. 주 1~2회 이상 가스 등을 사용한 청소년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경험은 위기·취약 청소년에서만 나타났으며, 위기·취약 청소년의 27.3%에서 흡연문제가 나타났다.

표 54.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약물 위기 분포

단위: 명(%)

구분		경험 유무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chi^2$
약물	술	유	0 ( 0.0)	4 ( 7.1)	4 ( 0.8)	.000***
		무	454 (100.0)	52 ( 92.9)	506 ( 99.2)	
		무응답	1	1	2	

구분		경험 유무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chi^2$
약물	담배	유	8 ( 1.8)	15 ( 27.3)	23 ( 4.5)	.000***
		무	446 ( 98.2)	40 ( 72.7)	486 ( 95.5)	
		무응답	1	2	3	
	가스나 마약	유	0 ( 0.0)	0 ( 0.0)	0 ( 0.0)	-
		무	454 (100.0)	56 (100.0)	510 (100.0)	
		무응답	1	1	2	

\*p<.05, \*\*p<.01, \*\*\*p<.001

## 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경우 위기결과 수준이 피해인 경우는 언어폭력, 따돌림, 가해인 경우는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이 거의 매일 이루어질 때를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나머지 항목은 주 1~2회 이상 나타날 때 위기결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살펴본 결과 언어폭력 피해 경험이 1.8%(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각각 0.6%(3명)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경험 역시 언어폭력 가해경험이 1.2%(6명)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행 가해경험이 0.8%(4명)로 나타났다.

표 55.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학교폭력 위기 분포

단위: 명(%)

구분		경험 유무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chi^2$
학교폭력 피해	신체폭력	유	2 ( 0.4)	0 ( 0.0)	2 ( 0.4)	.619
		무	452 ( 99.6)	56 (100.0)	508 ( 99.6)	
		무응답	1	1	2	
	언어폭력	유	7 ( 1.5)	2 ( 3.6)	9 ( 1.8)	.276
		무	447 ( 98.5)	54 ( 96.4)	501 ( 98.2)	
		무응답	1	1	2	
	따돌림	유	3 ( 0.7)	0 ( 0.0)	3 ( 0.6)	.542
		무	451 ( 99.3)	56 (100.0)	507 ( 99.4)	
		무응답	1	1	2	
	돈이나 물건 빼앗김	유	1 ( 0.2)	0 ( 0.0)	1 ( 0.2)	.725
		무	453 ( 99.8)	56 (100.0)	509 ( 99.8)	
		무응답	1	1	2	

구분		경험 유무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chi^2$
학교폭력 가해	사이버 폭력	유	2 ( 0.4)	1 ( 1.8)	3 ( 0.6)	.215
		무	451 ( 99.6)	55 ( 98.2)	506 ( 99.4)	
		무응답	2	1	3	
	신체폭행	유	4 ( 0.9)	0 ( 0.0)	4 ( 0.8)	.481
		무	450 ( 99.1)	56 (100.0)	506 ( 99.2)	
		무응답	1	1	2	
	언어폭력	유	5 ( 1.1)	1 ( 1.8)	6 ( 1.2)	.642
		무	449 ( 98.9)	54 ( 98.2)	503 ( 98.8)	
		무응답	1	2	3	
	따돌림	유	1 ( 0.2)	0 ( 0.0)	1 ( 0.2)	.725
		무	452 ( 99.8)	56 (100.0)	508 ( 99.8)	
		무응답	2	1	3	
	돈이나 물건 빼앗음	유	0 ( 0.0)	1 ( 1.8)	1 ( 0.2)	.004**
		무	454 (100.0)	55 ( 98.2)	509 ( 99.8)	
		무응답	1	1	2	
	사이버폭력	유	0 ( 0.0)	0 ( 0.0)	0 ( 0.0)	-
		무	453 (100.0)	56 (100.0)	509 (100.0)	
		무응답	2	1	3	

\*p<.05, \*\*p<.01, \*\*\*p<.001

## 라. 비행

비행의 경우 위기결과 수준이 갈취와 절도 모두 주1~2회 이상인 경우를 위기결과로 보았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비행 경험을 살펴본 결과 갈취와 절도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비행 위기 분포

단위: 명(%)

구분		경험 유무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chi^2$
비행	갈취	유	0 ( 0.0)	0 ( 0.0)	0 ( 0.0)	-
		무	453 (100.0)	56 (100.0)	509 (100.0)	
		무응답	2	1	3	
비행	절도	유	0 ( 0.0)	0 ( 0.0)	0 ( 0.0)	-
		무	453 (100.0)	56 (100.0)	509 (100.0)	
		무응답	2	1	3	

\*p<.05, \*\*p<.01, \*\*\*p<.001



## 마. 자살

자살관련 위기결과 수준이 자살계획은 주1~2회 이상, 자살시도는 2~3번 이상인 경우를 위기 결과로 분류하였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1.0%(5명)는 자살 계획을 세웠고, 1.6%(8명)는 자살 시도를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기·취약 청소년의 경우 일반학생에 비해 자살계획과 자살 시도경험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57.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자살 위기 분포

단위: 명(%)

구분		경험 유무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chi^2$
자살	자살계획	유	2 ( 0.4)	3 ( 5.4)	5 ( 1.0)	.000***
		무	451 ( 99.6)	53 ( 94.6)	504 ( 99.0)	
		무응답	2	1	3	
	자살시도	유	2 ( 0.4)	6 ( 10.7)	8 ( 1.6)	.000***
		무	451 ( 99.6)	50 ( 89.3)	501 ( 98.4)	
		무응답	2	1	3	

\*p<.05, \*\*p<.01, \*\*\*p<.001

## 바. 성문제

성문제 관련 위기결과의 수준이 성매매, 성폭력 피해, 성폭력 시도, 그리고 원치않는 임신·출산문제 모두 1번 이상인 경우 위기결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성문제 경험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피해경험이 1.0%(5명)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경험이 0.6%(3명)로 그 뒤를 이었다. 성폭력 시도 경험과 원치않는 임신출산 경험이 각각 0.2%(1명)로 나타났다.

표 58.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성문제 위기 분포

단위: 명(%)

구분		경험 유무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chi^2$
성문제	성매매	유	1 ( 0.2)	2 ( 3.6)	3 ( 0.6)	.002**
		무	452 ( 99.8)	54 ( 96.4)	506 ( 99.4)	
		무응답	2	1	3	

구분		경험 유무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chi^2$
성문제	성폭력 피해	유	3 ( 0.7)	2 ( 3.6)	5 ( 1.0)	.037*
		무	450 ( 99.3)	54 ( 96.4)	504 ( 99.0)	
		무응답	2	1	3	
	성폭력 시도	유	0 ( 0.0)	1 ( 1.8)	1 ( 0.2)	.004**
		무	453 (100.0)	55 ( 98.2)	508 ( 99.8)	
		무응답	2	1	3	
	임신출산	유	0 ( 0.0)	1 ( 1.8)	1 ( 0.2)	.004**
		무	452 (100.0)	54 ( 98.2)	506 ( 99.8)	
		무응답	3	2	5	

\*p<.05, \*\*p<.01, \*\*\*p<.001

## 사. 가출

가출의 위기결과 수준이 가출경험은 주 1~2회 이상인 경우, 가출팸에서의 생활경험은 2~3번 이상, 가출상태는 현재 가출한 상태인 경우를 위기결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1.2%(6명)는 가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0.6%(3명)는 가출팸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출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도 0.8%(4명)나 되었다. 가출문제는 일반 학생청소년에 비해 위기·취약 청소년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표 59.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가출 위기 분포

단위: 명(%)

구분		경험 유무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chi^2$
가출	가출경험	유	1 ( 0.2)	5 ( 8.9)	6 ( 1.2)	.000***
		무	452 ( 99.8)	51 ( 91.1)	503 ( 98.8)	
		무응답	2	1	3	
가출	가출팸	유	1 ( 0.2)	2 ( 3.6)	3 ( 0.6)	.002**
		무	452 ( 99.8)	54 ( 96.4)	506 ( 99.4)	
		무응답	2	1	3	
가출	가출상태	유	1 ( 0.2)	3 ( 5.5)	4 ( 0.8)	.000***
		무	449 ( 99.8)	52 ( 94.5)	501 ( 99.2)	
		무응답	5	2	7	

\*p<.05, \*\*p<.01, \*\*\*p<.001

## 아. 학업중단

학업중단의 위기결과 수준이 현재 학업중단한 상태인 경우를 위기결과로 보았다.

조사대상 청소년 중 7.5%(38명)는 현재 학업을 중단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대부분 위기·취약 청소년이었다. 학업중단 전에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을 받은 경우는 10.7%(6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학업중단 위기 분포

단위: 명(%)

구분		경험 유무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chi^2$
학업 중단	학업중단 상태	유	2 ( 0.4)	36 ( 64.3)	38 ( 7.5)	.000***
		무	447 ( 99.6)	20 ( 35.7)	467 ( 92.5)	
		무응답	6	1	7	

\* $p < .05$ , \*\* $p < .01$ , \*\*\* $p < .001$

## 자. 직장생활 부적응

직장생활 부적응 위기결과 수준이 직장 내 폭행 및 폭언 등 피해인 경우 거의 매일 일 때, 직장부적응이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주1~2회 이상 일 때를 위기결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조사대상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나 직장생활을 해 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부적응 경험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직장부적응으로 그만 둔 경험이 있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각각 0.3%(1명)로 나타났다. 직장 내에서 폭행이나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경우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일반학생 및 위기·취약 청소년 직장생활 부적응 위기 분포

단위: 명(%)

구분		경험 유무	일반학생 (n=279)	위기·취약 청소년 (n=46)	전체 (n=325)	$\chi^2$
직장생활 부적응	직장 부적응	유	1 ( 0.4)	0 ( 0.0)	1 ( 0.3)	.685
		무	274 ( 99.6)	45 (100.0)	319 ( 99.7)	
		무응답	4	1	5	

구분		경험 유무	일반학생 (n=279)	위기·취약 청소년 (n=46)	전체 (n=325)	$\chi^2$
직장생활 부적응	폭행폭언 피해	유	0 ( 0.0)	0 ( 0.0)	0 ( 0.0)	-
		무	275 (100.0)	45 (100.0)	320 (100.0)	
		무응답	4	1	5	
	성희롱 피해	유	0 ( 0.0)	1 ( 2.2)	1 ( 0.3)	.013*
		무	274 (100.0)	44 ( 97.8)	318 ( 99.7)	
		무응답	5	1	6	

\*p<.05, \*\*p<.01, \*\*\*p<.001

#### 4. 위기수준별 위기결과

시범조사 결과 나타난 위기결과를 위기수준별로 살펴보면 표 62와 같다.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일상생활장애문제를 제외하면 모든 위기결과가 1, 2, 3수준의 위험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위기결과를 1, 2, 3수준의 위험군 청소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일상생활장애 청소년은 각각 5.0%(25명), 3.4%(17명)가, 그리고 인터넷·스마트폰중독으로 인한 금단문제는 2.8%(14명)가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술은 0.8%(4명), 담배는 4.6%(23명)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청소년은 언어폭력 피해 1.8%(9명), 따돌림과 사이버폭력 피해 각각 0.6%(3명)가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경험 청소년은 언어폭력 가해 1.2%(6명), 신체폭행 가해 0.8%(4명)가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자살계획을 세워 본 청소년 1.0%(5명)가, 자살시도 경험 청소년은 1.6%(8명)가 모두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는 0.6%(3명)가, 성폭력 피해는 1.0%(5명)의 청소년이 모두 위험군에 속했고, 성폭력 시도 경험과 원치않는 임신문제는 각각 0.2%(1명)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모두 1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경험은 1.2%(6명), 가출팸에서의 생활경험은 0.6%(3명), 그리고 현재 가출상태인 청소년 중 0.8%(4명)가 모두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역시 1수준에 속하는 청소년은 1.0%(5명)인 반면, 2수준 및 3수준에 속하는 청소년은 6.6%(33명)에 이르렀다. 직장 내 부적응 문제는 2수준에 0.3%(1명), 직장 내 성희롱 피해경험 청소년은 1수준에 0.3%(1명)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험군에 속한 청소년들은 모두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특히 위험요인의 위험수준이 고위험군이나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면서 위기결과 항목에 응답한 1, 2수준의 위기청소년들은 현재 도움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2. 위기수준별 위기결과

단위: 명(%)

구분		수준	경험 유무	1수준 (n=13)	2수준 (n=30)	3수준 (n=38)	4수준 (n=3)	5수준 (n=35)	6수준 (n=393)	전체 (n=512)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과다 사용	유		4( 0.8)	11( 2.2)	10( 2.0)	0( 0.0)	9( 1.8)	34( 6.7)	68( 3.4)
		무		9( 1.8)	19( 3.7)	28( 5.5)	3( 0.6)	25( 4.9)	357(70.1)	441(86.6)
	일상생활 장애	유		5( 1.0)	8( 1.6)	4( 0.8)	1( 0.2)	5( 1.0)	16( 3.1)	39( 7.7)
		무		8( 1.6)	22( 4.3)	34( 6.7)	2( 0.4)	29( 5.7)	375(73.7)	470(92.3)
	금단	유		4( 0.8)	5( 1.0)	5( 1.0)	0( 0.0)	0( 0.0)	0( 0.0)	14( 2.8)
		무		9( 1.8)	25( 4.9)	33( 6.5)	3( 0.6)	34( 6.7)	391(76.8)	495(97.2)
약물	술	유		3( 0.6)	1( 0.2)	0( 0.0)	0( 0.0)	0( 0.0)	0( 0.0)	4( 0.8)
		무		10( 2.0)	29( 5.7)	38(7.5)	3( 0.6)	34( 6.7)	392(76.9)	506(99.2)
	담배	유		6( 1.2)	11( 2.2)	6( 1.2)	0( 0.0)	0( 0.0)	0( 0.0)	23( 4.5)
		무		7( 1.4)	18( 3.5)	32( 6.3)	3( 0.6)	34( 6.7)	392(77.0)	486(95.5)
	가스나 마약	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무		13( 2.5)	30( 5.9)	38( 7.5)	3( 0.6)	34( 6.7)	392(76.8)	510(100.0)
학교 폭력 가해	신체 폭행	유		0( 0.0)	0( 0.0)	2( 0.4)	0( 0.0)	0( 0.0)	0( 0.0)	2( 0.4)
		무		13( 2.5)	30( 5.9)	36( 7.1)	3( 0.6)	34( 6.7)	392(76.9)	508(99.6)
	언어 폭력	유		0( 0.0)	2( 0.4)	7( 1.4)	0( 0.0)	0( 0.0)	0( 0.0)	9( 1.8)
		무		13( 2.5)	28( 5.5)	31( 6.1)	3( 0.6)	34( 6.7)	392(76.9)	501(98.2)
	따돌림	유		1( 0.2)	0( 0.0)	2( 0.4)	0( 0.0)	0( 0.0)	0( 0.0)	3( 0.6)
		무		12( 2.4)	30( 5.9)	36( 7.1)	3( 0.6)	34( 6.7)	392(76.9)	507(99.4)
	돈물건 빼앗김	유		0( 0.0)	0( 0.0)	1( 0.2)	0( 0.0)	0( 0.0)	0( 0.0)	1( 0.2)
		무		13( 2.5)	30( 5.9)	37( 7.3)	3( 0.6)	34( 6.7)	392(76.9)	509(99.8)
	사이버 폭력	유		1( 0.2)	0( 0.0)	2( 0.4)	0( 0.0)	0( 0.0)	0( 0.0)	3( 0.6)
		무		12( 2.4)	30( 5.9)	36( 7.1)	3( 0.6)	34( 6.7)	391(76.8)	506(99.4)
	신체 폭행	유		1( 0.2)	0( 0.0)	3( 0.6)	0( 0.0)	0( 0.0)	0( 0.0)	4( 0.8)
		무		12( 2.4)	30( 5.9)	35( 6.9)	3( 0.6)	34( 6.7)	392(76.9)	506(99.2)
언어 폭력	유		2( 0.4)	1( 0.2)	3( 0.6)	0( 0.0)	0( 0.0)	0( 0.0)	6( 1.2)	
	무		11( 2.2)	29( 5.7)	34( 6.7)	3( 0.6)	34( 6.7)	392(77.0)	503(98.8)	

구분	수준	경험 유무	1수준 (n=13)	2수준 (n=30)	3수준 (n=38)	4수준 (n=3)	5수준 (n=35)	6수준 (n=393)	전체 (n=512)	
학교 폭력 피해	따돌림	유	1( 0.2)	0( 0.0)	0( 0.0)	0( 0.0)	0( 0.0)	0( 0.0)	1( 0.2)	
		무	12( 2.4)	30( 5.9)	37( 7.3)	3( 0.6)	34( 6.7)	392(77.0)	508(99.8)	
	물건 빼앗음	유	1( 0.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2)
		무	12( 2.4)	30( 5.9)	38( 7.5)	3( 0.6)	34( 6.7)	392(76.9)	509(99.8)	
	사이버 폭력	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무	13( 2.6)	30( 5.9)	38( 7.5)	3( 0.6)	34( 6.7)	391(76.8)	509(100.0)	
비행	갈취	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무	13( 2.6)	30( 5.9)	38( 7.5)	3( 0.6)	34( 6.7)	391(76.8)	509(100.0)	
	절도	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무	13( 2.6)	30( 5.9)	38( 7.5)	3( 0.6)	34( 6.7)	391(76.8)	509(100.0)	
자살	자살 계획	유	2( 0.4)	1( 0.2)	2( 0.4)	0( 0.0)	0( 0.0)	0( 0.0)	5( 1.0)	
		무	11( 2.2)	29( 5.7)	36( 7.1)	3(0.6)	34( 6.7)	391(76.8)	504(99.0)	
	자살 시도	유	4( 0.8)	2( 0.4)	2( 0.4)	0( 0.0)	0( 0.0)	0( 0.0)	8( 1.6)	
		무	9( 1.8)	28( 5.5)	36( 7.1)	3( 0.6)	34( 6.7)	391(76.8)	501(98.4)	
성문제	성매매	유	2( 0.4)	1( 0.2)	0( 0.0)	0( 0.0)	0( 0.0)	0( 0.0)	3( 0.6)	
		무	11( 2.2)	29( 5.7)	38( 7.5)	3( 0.6)	34( 6.7)	391(76.8)	506(99.4)	
	성폭력 피해	유	2( 0.4)	1( 0.2)	2( 0.4)	0( 0.0)	0( 0.0)	0( 0.0)	5( 1.0)	
		무	11( 2.2)	29( 5.7)	36( 7.1)	3( 0.6)	34( 6.7)	391(76.8)	504(99.0)	
	성폭력 시도	유	1( 0.2)	0( 0.0)	0( 0.0)	0( 0.0)	0( 0.0)	0( 0.0)	1( 0.2)	
		무	12( 2.4)	30( 5.9)	38( 7.5)	3( 0.6)	34( 6.7)	391(76.8)	508(99.8)	
	임신 출산	유	1( 0.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2)
		무	12( 2.4)	29( 5.7)	38( 7.5)	3( 0.6)	34( 6.7)	390(76.9)	508(99.8)	
가출	가출 경험	유	4( 0.8)	2( 0.4)	0( 0.0)	0( 0.0)	0( 0.0)	0( 0.0)	6( 1.2)	
		무	9( 1.8)	28( 5.5)	38( 7.5)	3( 0.6)	34( 6.7)	391(76.8)	503(98.8)	
	가출팜	유	2( 0.4)	1( 0.2)	0( 0.0)	0( 0.0)	0( 0.0)	0( 0.0)	3( 0.6)	
		무	11( 2.2)	29( 5.7)	38( 7.5)	3( 0.6)	34( 6.7)	391(76.8)	506(99.4)	

구분 \ 수준		경험 유무	1수준 (n=13)	2수준 (n=30)	3수준 (n=38)	4수준 (n=3)	5수준 (n=35)	6수준 (n=393)	전체 (n=512)
가출	가출 상태	유	2( 0.4)	1( 0.2)	1( 0.2)	0( 0.0)	0( 0.0)	0( 0.0)	4( 0.8)
		무	11( 2.2)	29( 5.7)	36( 7.1)	3( 0.6)	34( 6.7)	388(76.8)	501(99.2)
학업 중단	학업중단 상태	유	5( 1.0)	15( 3.0)	18( 3.6)	0( 0.0)	0( 0.0)	0( 0.0)	38( 7.5)
		무	8( 1.5)	15( 3.0)	20( 4.0)	3( 0.6)	34( 6.7)	387(76.6)	467(92.5)
직장생활 부적응	직장 부적응	유	0( 0.0)	1( 0.3)	0( 0.0)	0( 0.0)	0( 0.0)	0( 0.0)	1( 0.3)
		무	9( 2.8)	21( 6.6)	27( 8.4)	3( 0.9)	19( 5.9)	240(75.0)	319(99.7)
	폭행 폭언 피해	유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무	9( 2.8)	22( 6.9)	27( 8.4)	3( 0.9)	19( 5.9)	240(75.0)	320(100.0)
	성희롱 피해	유	1( 0.3)	0( 0.0)	0( 0.0)	0( 0.0)	0( 0.0)	0( 0.0)	1( 0.3)
		무	8( 2.5)	22( 6.9)	27( 8.5)	3( 0.9)	19( 6.0)	239(74.9)	318(99.7)

## 5. 보호요인

마지막으로, 위기수준별 보호요인의 평균 점수 및 표준편차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1수준에서 3수준까지는 대체로 보호요인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요인 척도 점수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으나 위기결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 위기수준이 4수준으로 분류된 청소년의 경우는 2수준이나 3수준의 청소년 보다 보호요인 점수가 더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 청소년 집단이나 위기·취약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나타났다. 또한 이런 경향은 개인 요인 점수에서 두드러졌다. 표 63은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및 그 하위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일반 학생청소년과 위기·취약 청소년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참고로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척도의 ANOVA 결과 및 사후검증 결과를 부록 7에 제시하였다.

표 63.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sup>1)</sup>

위기 수준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			전체		
	일반	위기 취약	합계	일반	위기 취약	합계	일반	위기 취약	합계	일반	위기 취약	합계	일반	위기 취약	합계	일반	위기 취약	합계
1	11.67 (0.58)	13.10 (3.73)	12.77 (3.30)	7.67 (2.89)	5.40 (2.12)	5.92 (2.40)	3.33 (2.31)	5.10 (2.56)	4.69 (2.53)	2.00 (3.46)	4.20 (2.49)	3.69 (2.75)	1.00 (1.00)	3.80 (2.62)	3.15 (2.61)	25.67 (6.03)	31.60 (11.03)	30.23 (10.20)
2	14.86 (3.39)	15.56 (4.03)	15.23 (3.70)	7.07 (1.94)	7.88 (2.13)	7.50 (2.05)	5.57 (1.50)	6.38 (1.78)	6.00 (1.68)	3.93 (2.02)	5.44 (1.59)	4.73 (1.93)	4.00 (2.04)	5.13 (2.19)	4.60 (2.16)	35.43 (8.90)	40.38 (9.34)	38.07 (9.33)
3	17.44 (4.15)	16.50 (5.92)	16.95 (5.11)	9.71 (1.65)	9.50 (2.80)	9.60 (2.31)	7.47 (.94)	6.65 (1.66)	7.03 (1.42)	5.29 (2.14)	5.65 (2.58)	5.49 (2.36)	4.41 (2.74)	5.05 (2.89)	4.76 (2.80)	42.83 (11.29)	43.35 (12.72)	43.11 (11.90)
4	14.33 (3.21)	9.00 (-)	13.00 (3.74)	9.00 (3.0)	5.00 (-)	8.00 (3.16)	5.67 (2.08)	7.00 (-)	6.00 (1.83)	4.67 (1.15)	6.00 (-)	5.00 (1.15)	5.33 (2.31)	5.00 (-)	5.25 (1.89)	39.00 (7.94)	32.00 (-)	37.25 (7.37)
5	15.60 (3.75)	17.00 (-)	15.63 (3.71)	7.41 (2.15)	8.00 (-)	7.42 (2.13)	5.78 (1.57)	6.00 (-)	5.79 (1.54)	4.54 (1.94)	6.00 (-)	4.58 (1.93)	4.19 (2.09)	6.00 (-)	4.24 (2.09)	37.51 (9.15)	43.00 (-)	37.66 (9.07)
6	18.53 (3.76)	20.14 (4.30)	18.56 (3.77)	10.19 (1.20)	11.00 (1.73)	10.21 (1.99)	6.85 (1.54)	6.57 (.98)	6.85 (1.53)	5.83 (1.87)	6.29 (1.80)	5.83 (1.86)	5.29 (2.17)	4.29 (3.35)	5.27 (2.19)	46.69 (8.92)	48.29 (9.72)	46.72 (8.93)

11) (-) : N=1인 경우로 표준편차가 없음



한편, 위험요인 척도 점수를 기준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의 경우, 위기결과 척도의 항목에서 해당 사항 여부에 따라 1수준과 4수준의 위기수준으로 분류되는데, 이 때 두 집단 간 보호요인 전체 점수 및 5개 하위요인 척도 점수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 때 1종 오류의 증가를 통제하기 위하여 Bonferroni correction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alpha = .05$  수준에서 보호요인 척도 전체 점수는 물론이고 5개 하위요인 척도 모두의 점수에서도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2수준과 5수준 간, 그리고 3수준과 6수준 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64는 그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64. 집단 간 평균 차 검증결과(보호요인 전체 점수 및 5개 하위요인 척도 점수)

비교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			전체		
	t	df	p	t	df	p	t	df	p	t	df	p	t	df	p	t	df	p
1수준 vs. 4수준	-.12	15	.91	-1.41	15	.18	-.95	15	.36	-.91	15	.38	-1.48	15	.16	-1.27	15	.23
2수준 vs. 5수준	.18	66	.66	-.44	66	.66	.16	66	.59	.33	66	.74	.70	66	.49	.182	66	.86
3수준 vs. 6수준	-1.90	41.05	.065	-1.76	422	.08	.70	422	.49	-.87	40.39	.39	-1.09	40.32	.28	-2.31	41.19	.08

## V. 요약 및 논의

### 1.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위기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고, 새롭게 개발된 문항을 이용하여 시범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였다.

먼저, 실태조사 문항 개발을 하기 전에 문헌연구와 기존의 연구 등을 검토하여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상황에 적합한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즉, 위기청소년을 개인적·가족적·교육적·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서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은 물론 학교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청소년이라고 정의하였다.

둘째, 실태조사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위기실태 조사도구들을 분석하였고, 2015년 현재 시점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위험요인과 위기결과들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를 전문가협의회의 자문과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1차 문항을 도출하였다.

셋째, 이 1차 문항을 이용하여 서울, 부산, 충남,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일반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38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2차 전문가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8개의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최종문항을 완성하였다. 최종 개발된 위기실태조사 문항에는 위험요인 46개 문항, 위기결과 43개 문항, 보호요인 15개 문항,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기초문항 16개를 포함하여 총 1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2015년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문항으로 최종 완성된 도구를 활용하여 대전, 경기, 강원, 경북,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일반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512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최종문항이 사전에 설정한 요인에 적절히 부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현장 전문가들의 평정을 통해 청소년의 위기수준 절단점(cut-off score)을 도출하였다. 시범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위험요인 척도에 있어서의 위험수준이 고위험군 3.1%, 잠재적 위험군 12.7%, 일반군 84.2%로 나타났다.

시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학생이 455명(88.9%), 학교밖 청소년이 57명(11.1%) 이었다. 남자청소년이 241명(47.1%) 이었으며 여자 청소년은 271명(52.9%) 이었고, 이 중 초등학교생은 26.0%, 중학생 31.2%, 고등학생 33.8%였다. 조사대상 청소년 중 가정경제 형편에 대해 10.9%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어렵다'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등의 정서적 지원 여부에 대해 11.1%의 청소년들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었으나, 일반청소년이 9.7%만 부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위기·취약청소년은 22.8%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해 아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58.8%인 301명은 ‘모른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위기·취약 청소년의 경우는 ‘안다’는 응답이 57.9%나 되었다. 1388 전화를 이용해 본 청소년은 2.9%에 불과하였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의 54.7%로 절반 이상이 센터에 대해 알고 있었고, 위기·취약 청소년의 경우는 75.4%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9.2%가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위기·취약 청소년의 경우는 52.6%가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기·취약 청소년이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 알고 이용해 본 경험이 많은 것은 센터가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위기수준별로 살펴보면, 1수준이 2.5%, 2수준 5.9%, 3수준 7.4%, 4수준 0.6% 등 전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16.4%로 나타났다. 5수준의 잠재군은 6.8%, 6수준의 일반군은 76.8%로 나타났다. 위기·취약 청소년의 경우는 1수준이 17.5%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일반 학생청소년 0.7%에 비해 높았다. 2, 3 수준 역시 위기·취약 청소년이 일반 학생청소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분포를 보였다. 반면, 일반군인 6수준은 일반 학생청소년이 84.4%로 위기·취약 청소년 15.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위기결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관련 과다사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일상생활장애 7.7%, 금단증상이 2.8%로 나타났다. 흡연문제 4.5%, 술 0.8%,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 피해 1.8%,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 피해가 각각 0.6%로 나타났고, 학교폭력 가해 중에는 언어폭력이 1.2%, 신체폭행이 0.8%로 나타났다. 자살관련 문제 중에는 자살 계획이 1.0%, 자살 시도가 1.6%의 응답률을 보였다. 성폭력 피해 1.0%, 성매매 경험청소년이 0.6%로 나타났다. 가출경험도 1.2%나 되었으며, 이 중 가출팸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0.6%로 나타났고, 현재 가출상태에 있는 청소년은 0.8%나 되었다. 또한 학업중단상태인 청소년도 7.5%의 분포를 보였다.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직장 부적응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이 각각 0.3%로 나타났다.

위기·취약 청소년과 일반 학생청소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인터넷·스마트폰중독관련 과다 사용이나 일상생활장애, 금단문제, 흡연, 사법적인 문제, 자살사고·자살계획·자살시도 등 자살관련 문제, 성매매나 성폭력 피해, 임신출산문제, 그리고 가출과 학업중단 문제에서 위기·취약 청소년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범조사 결과 나타난 위기결과를 위기수준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위기결과는 1, 2, 3 수준인 위험군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일상생활 장애 문제는 1수준부터 6수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위기수준과 보호요인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1수준에서 3수준까지는 대체로 보호요인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요인 척도 점수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으나 위기결과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어 위기수준이 4수준으로 분류된 청소년의 경우는 2수준이나 3수준의 청소년보다 보호요인 점수가 더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 학생이나 위기·취약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이런 경향은 개인요인 점수에서 두드러졌다.

## 2. 논의 및 제언

2015년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최종문항을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시범조사의 분석결과는 위험요인 척도상의 위험수준별 추정인원 비율이나 위기수준별 추정인원 비율 등에서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본 연구의 시범조사 결과 고위험군 3.1%, 잠재적 위험군 12.7%, 일반군 84.2%로 나타났는데, 2010년도에는 일반청소년 중 고위험군 2.0%, 잠재적 위험군 13.4%, 일반군 84.6%로 나타났다. 2015년에 개발한 실태조사 도구가 최근에 더욱 이슈화되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행동들을 반영하여 2010년에 비해 위기결과 항목이 약 2배 정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위기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이는 시범조사 대상자 중 위기·취약 청소년 수나 범위가 2010년에 비해 더 적고, 또 이들의 심각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2010년에는 위기·취약 청소년의 조사 대상 범위가 넓터, 그룹홈, 양육시설, 보호관찰, 소년원학교 등 다양한 반면, 2015년에는 시범조사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계된 학교밖 청소년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위기수준이 다소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위험요인 척도 상의 위험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분할점수 설정 절차를 보다 엄격히 통제하고 재산출할 필요가 있다. 앵고프 방식(Modified Angoff)을 통해 위험수준의 분할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에 14명의 전문가가 다 함께 모여서 엄격한 통제 하에 추진되었던 2010년도 조사에 비해 제한된 여건상 10명의 전문가들에게 독립적 평정이 맡겨졌던 본 조사에서는 분할점수가 높게 설정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결국 올해 분할점수는 201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지만, 2016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시에는 사전에 분할점수 산출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재산출하고자 한다.

셋째, 위험요인 척도의 하위요인 척도에 할당된 문항 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위험요인의 하위요인 문항 수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종단적으로 비교하고 데이

터베이스화해서 청소년의 위기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본 연구의 목적과 결부해 볼 때 2010년과 비교해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사실 문항의 수는 그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가중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하위요인의 문항 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개별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경험적 증거 또는 이론적 뒷받침이 제시되고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 척도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경우, 각 개별 문항에 대한 보다 정교한 검토 및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위험요인 척도의 하위요인 중 문제가족원 척도는 2010년과 동일한 문항이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52로 2010년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척도는 범죄나 비행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 보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4개의 문항의 문항 간 상관은 .33 이하로 낮으며, 각 척도의 분산도 .35 이하로 낮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문항 수준에서 반응 범위에 제한이 있음을 나타낸다.<sup>12)</sup> 현재 이 하위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은 '전혀 없다', '조금 있다', '많이 있다'의 3점 척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문항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다'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 하위척도는 적절한 정도의 변산을 갖는 척도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하위요인 척도와도 의미있는 상관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이 척도의 문항은 4개의 개별 문항으로 구성된 하나의 척도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이 문항들을 청소년의 위험 수준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조건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개별 문항도 연속성을 가정하는 3점 척도나 아니라 '있다'와 '없다'의 이분 문항으로 제시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섯째, 위기수준을 6개의 수준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도 연구에서 위기수준을 위험요인의 위험수준과 위기결과 척도 점수의 조합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기수준을 위험수준과 위기결과 척도 점수의 조합으로 결정하는 방법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는 보호요인 척도의 평균 점수 차 검증 결과, 1, 2, 3 수준에 각각 상응하는 4, 5, 6 수준과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수준의 6수준 중 1과 4, 2와 5, 3과 6의 구분은 임의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기의 6수준 분류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대상별 문항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을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을, 그리고 위기·취약 청소년은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일반

12) 그러나 다른 신뢰도 계수가 높은 하위요인들에 있어서는 문항간 분산이 대체로 .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우울불안 하위요인 척도의 경우 각 문항의 분산이 한 문항(.53)을 제외하면 .8 ~ 1.50을 보이고 있다.

학생청소년 중 초등학생의 경우 성매매·성폭력·원치않는 임신 등 성문제 관련 문항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교사가 응답을 거부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직장생활 관련 문항은 아르바이트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일반 학생청소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내년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시 대상별 문항 조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지는 이유이다. 따라서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위기·취약 청소년용 문항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단축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위기·취약 청소년의 경우는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학교밖 청소년 외에 쉼터나 그룹홈, 보호관찰, 소년원 학교 등도 당연히 포함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청소년 위기실태 시범조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시범조사 결과 고위험군 3.1%, 잠재적 위험군 12.7%, 일반군 84.2%로 나타났다. 위기수준별로도 1수준에서 4수준까지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16.4%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의 위기청소년 정책은 주로 문제해결 및 지원에 중점을 두어왔다. 고위험군 청소년이나 위기수준별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조치로서의 지원정책은 특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효율적 전달체계의 활용과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잠재적 위험군이나 일반군 중 경계선 상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 정책이나 사업추진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위기청소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의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다원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부처간 효율적 연계협력 체제가 필요하다.

청소년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적이며, 조사결과 나타난 다양한 위기결과에서도 보는 것처럼 위기청소년 관련 문제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등 여러 부처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범 부처간 효율적인 연계체계 구축과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부처마다 예산은 물론 인력, 시설 등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면 부처간 연계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 중앙 차원에서의 정책사업 조정과 협력, 그리고 산하유관기관 간의 효율적 연계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면 서비스 지원대상인 위기청소년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그 결과는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부처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 그 효과가 미미

하다는 평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위기청소년 유형별, 수준별 맞춤형 위기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위기실태 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위기 유형별, 위기 수준별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전문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정책사업과 상설 치료센터 설치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것처럼, 가출, 학업중단, 자살 등의 문제에 대한 맞춤형 개입방안이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히 학업중단 문제는 관련 부처간 협업도 이루어져 왔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까지 설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는 갑자기 확대된 사업의 추진방향성 면에서 혼란을 겪고 있고,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목말라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은 전문인력과 전문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위기청소년별 전문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청소년 문제 예측과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2010년 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올해 개발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될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다양한 결과를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2010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협조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될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결과는 2010년과 비교하여 제시될 것이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실태조사 결과들은 축적된 빅데이터 자료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위기 문제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된 위기 문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사업개발의 단초로 활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관련 기관들의 사업개발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이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양적 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과는 별도로 위기청소년 집단의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위기청소년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 어려움, 위기상황에 빠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위기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으며,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전국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호소할 수 있는 관문으로서의 1388 청소년

전화에 대한 인지도가 조사결과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YS-Net이라는 지역사회 안전망사업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전달체계로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절반수준을 갓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나마 이 정도의 수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직접 시범조사에 나서주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얻은 결과로 보여지며, 내년도 표본설계에 입각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면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 청소년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나 쉽게 손에 닿을 수 있고 가까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강근모, 이준기(2015). 청소년 가출관련변인의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6(2), 115-144.
- 강석영, 김동민, 하창순(2009).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
- 강성래(2003).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태 분석 : 가출경험집단과 가출미경험집단 비교 중심으로. 국  
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혜원, 김영희(2011). 생의 의미수준에 따른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교  
정담론**, 5(2), 27-50.
- 곽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구분용, 금명자, 김동일, 김동민, 남상인, 안현의, 주영아, 한동우(2005).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  
델 개발연구. 청소년위원회.
- 구분용, 유제민(2003). 중퇴에 관한 위협 및 보호요인의 신경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33-146.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청소년백서 2007**.
- 권재환, 이은희(2006).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  
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1), 325-351.
- 김기태(2006). **위기개입론 : 일상생활의 위기와 극복방법**. 서울: 대왕사.
- 김동일, 최수미(2009).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상담지원서비스 효과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3(2), 279-295.
- 김보영, 이정숙(2009). 청소년 자살생각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9(5).  
651-661.
- 김성정(1997).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순규(2008).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 요인과 보호요인 :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  
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66-93.
- 김옥엽, 이연숙, 원유미(2004). 전라북도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의식 및 위협요인과 보호요인의  
분석. **상담학연구**, 5(3), 725-741.
- 김진호(2010). 청소년문제행동과 보호환경의 관계에 대한 문제행동통제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  
회지**, 7(4), 151-173.

- 김향초(2009).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서울: 학지사.
- 문동규, 김영희(2012). 청소년 자살생각과 관련된 억제변인의 메타회귀분석. **청소년학연구**, 19(1), 59-83.
- 민원홍(2013). **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재연(2010). **청소년의 자살위기와 레질리언스**.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주미, 김동민, 정슬기, 강태훈, 박현진(2010).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
- 심우엽(2012).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행복감 관계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 **교원교육**, 28, 101-121.
- 오승환(2010). 청소년 가출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 요인 -가출충동과 가출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301-324.
-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2000). **청소년 비행 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영준, 오윤수(2013) 청소년 위험요인이 위기결과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21(4), 125-145.
- 유인선(2011). **청소년의 학교적응요인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철경(2005). 한국의 위기 청소년지원정책 진단 및 정책과제." 위기청소년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국제적 동향 및 정책과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69-97. 청소년위원회 · OECD.
-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과제 보고서.
- 윤철경, 조홍식, 김향초, 이규미, 우정자(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정다정(2014).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동원 (2003).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고찰: 범행의 발전양상과 재범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15(2), 335-367.
- 이상균(2000). 청소년의 학교비행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사회복지연구**, 15(1), 109-132.
- 이상현, 윤명성(2007). 위기청소년의 가정과 학교생활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4(1), 89-118.

- 이석형(2007).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사회복지개발연구**, 13(1), 55-76.
- 이석형(2008). 청소년비행 보호요인에 관한 타당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5(1), 223-248.
- 이주리(2011). 기초연구 : 부모 및 친구애착과 비행 간 관계 : 종단 연구. **놀이치료연구**, 15(2), 21-30.
- 이준기, 정경용, 김용수 (2012). 생태체계학적 접근에 근거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청소년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소년보호연구**, 18, 55-83.
- 이창호, 김동민, 심용출, 이미경, 전소연, 차진영(2013). **청소년 위기 요인 메타분석-학교폭력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혜경, 김혜원(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 이혜경(2002). 청소년의 음란물, 음란채팅, 중독경험에 있어서 사회심리적 예측변인들의 비교. **청소년학연구**, 9(2), 165-190.
- 이혜경(2003). 교사용 청소년 행동문제평가척도의 개발 :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10(4), 233-262.
- 이혜순, 옥지원(2012). 청소년의 가족기능과 우울이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19(3), 374-382.
- 이혜순, 옥지원(2012). 청소년의 충동성, 자이존중감, 우울수준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 438-446.
- 임영식(199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3), 1-26.
- 임진섭(2009). 청소년비행과 공격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2SLS(2 Stage 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한 분석. **사회복지연구**, 40(4), 101-126.
- 전영천(2010). 청소년의 음주행동 및 흡연행동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1(1).
- 정묘순, 서수균(2014). 청소년 자살시도 예측변인: 자살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2), 145-171.
- 정익중(2009). 청소년비행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한국청소년연구**, 20(3), 253-280.
- 지승희, 양미진, 이자영, 김태성 (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2011). 비공식낙인,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21-148.
- 진혜민, 배성우(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 한상철(2008). 청소년 기층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4(1), 273-298.

- 한상철(2010). 청소년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 감소를 위한 보호요인의 완충효과 분석. **미래청소년 학회지**, 7(1), 125-149.
- 한종철, 김인경(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2), 103-114.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1), 161-177.
- 황혜원, 신정이, 박현순(2006). 초기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생태체계적 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아동과 권리**, 10(4), 497-526.
- Burt, M. R., Resnick, G., & Mathesone, N.(1992). *Comprehensive Service Integration Programs for at-Risk Youth*. Final Report.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MA: Havard University Press.
- Coie, J. D., & Miller-Johnson, S.(2001). *Peer factors and interventions*. In R. Loeber & D. P. Farrington (Eds.), *Child delinquents: Development, intervention, and service needs*. Thousand Okas: CA: Sage Publications.
- Evans, P.(2005). Community-based Approaches and Cross-sectoral Partnerships for Youths at-risk in OECD Countries. *2005 International Symposium*, 3-16. National Youth Commission · OECD.
- France, K.(1990a). *Crisis Intervention: A Handbook of Immediate Person Help(2nd ed.)*. Springfield,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9-203.
- Garmezzy N. A(1990). *closing note: Reflections on the future*. In: Rolf J, Masten A, Cicchetti D, Nuechterlein K, Weintraub S, editor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0, 527-534.
- Hagan, J.(1994). *Crime and disrepute*. Thousand Okas: Pine Forge Press.
- Horowitz, F. D.(1987). *Exploring developmental theories: Toward a structural/behavioral model of development*. Hillsdale, NJ : Erlbaum.
- Lahav, C.(2005). Children and Youth at-risk & a Case Study in Israel : An Overview - 2005. *2005 International Symposium*, 134-146. National Youth Commission · OECD.
- Lerner, R. M.(1991). Changing organism context relations as the basic process of development: A developmental-contextu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7-32.
- McWhiter, J. J., McWhiter, B. T., McWhiter, E. H., & Mcwhiter, R. J.(2007). *At-Risk Youth :*

A comprehensive Response, Brooks/cole.

Pollard, J. A., Hawkins, J. D., and Arthur, M. W.(1999). Risk and protection: Are both necessary to understand diverse behavioral out comes in adolescence? *Social Work Research*, 23(8), 145-158.

Sampson, R. J., & Wilson, W. J.(1994). *Toward a theory of race, crime, and urban inequality*. In: Hagan, J. & Peterson, R. D. (Eds.), *Crime and inequal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Smith, C. & Carlson, B. E.(1997). Stress, coping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youth. *Social Service Review*, 72, 231-256.



## 부 록

1.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설문지
2.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3. 1차 설문문항(예비조사) 요인별 구분-위험요인/보호요인
4. 최종 설문문항(시범조사) 요인별 구분-위험요인/보호요인
5. 전체 위기결과 분석
6. 2015년 문항과 선행연구 문항 비교
7.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척도의 ANOVA 및 사후검증 결과

## [부록 1]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설문지

# 2015년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와 관련된 연구,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생각과 생활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므로 여러분의 이름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전체응답은 한꺼번에 통계처리 될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학교나 보호자에게 알려지지 않으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향후 청소년을 위한 제도나 지원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한 문장도 빠뜨리지 말고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연구부 드림

통계법 제32조에 의하여 응답자는 조사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하며,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의 ( ) 속에 V표시를 해 주세요

1. 성별 : ① 남자 ( ) ② 여자 ( )

2. 나이 : \_\_\_\_\_세

3. 재학 중인 학교 및 기관은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
| ① 초등학교     | ( ) | ② 중학교           | ( ) |
| ③ 인문계 고등학교 | ( ) | ④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 ) |
| ⑤ 대안학교     | ( ) | ⑥ 김정고시 학원       | ( ) |
| ⑦ 직업학교     | ( ) | ⑧ 직업훈련기관        | ( ) |
| ⑨ 소년원 학교   | ( ) | ⑩ 해당 없음         | ( ) |

4. 현재 몇학년에 재학 중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     |
|------------|-----|------------|-----|-----------|-----|
| ① 초등학교 5학년 | ( ) | ② 초등학교 6학년 | ( ) | ③ 중학교 1학년 | ( ) |
| ④ 중학교 2학년  | ( ) | ⑤ 중학교 3학년  | ( ) | ⑥ 고등학교1학년 | ( ) |
| ⑦ 고등학교 2학년 | ( ) | ⑧ 고등학교 3학년 | ( ) | ⑨ 해당 없음   | ( ) |

5.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     |
|---------|-----|-----------|-----|---------|-----|
| ① 서울특별시 | ( ) | ② 부산광역시   | ( ) | ③ 인천광역시 | ( ) |
| ④ 대구광역시 | ( ) | ⑤ 대전광역시   | ( ) | ⑥ 광주광역시 | ( ) |
| ⑦ 울산광역시 | ( ) | ⑧ 세종시     | ( ) | ⑨ 경기도   | ( ) |
| ⑩ 강원도   | ( ) | ⑪ 충청북도    | ( ) | ⑫ 충청남도  | ( ) |
| ⑬ 경상북도  | ( ) | ⑭ 경상남도    | ( ) | ⑮ 전라북도  | ( ) |
| ⑯ 전라남도  | ( ) | ⑰ 제주특별자치도 | ( ) |         |     |

6.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모두 V 표시 하세요)

- |                                      |     |                        |     |
|--------------------------------------|-----|------------------------|-----|
| ① 친아버지                               | ( ) | ② 친어머니                 | ( ) |
| ③ 새아버지                               | ( ) | ④ 새어머니                 | ( ) |
| ⑤ 할머니나 할아버지                          | ( ) | ⑥ 친척                   | ( ) |
| ⑦ 형제자매                               | ( ) | ⑧ 친구 또는 선후배            | ( ) |
| ⑨ 청소년보호자(슈터,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소년원 등) ( ) |     |                        |     |
| ⑩ 혼자살고 있다                            | ( ) | ⑪ 기타(구체적으로 누구와? _____) |     |

7. 부모님의 출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두 분 모두 한국인 ( )                      ② 두 분 모두 외국인 ( )
- ③ 한 분만 외국인 ( )                        ④ 두 분 모두 새터민 ( )
- ⑤ 한 분만 새터민 ( )                        ⑥ 두 분 모두 중국교포 ( )
- ⑦ 한 분만 중국교포 ( )                      ⑧ 모르겠다 ( )

8.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매우 어려운 편이다 ( )                      ② 어려운 편이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잘사는 편이다 ( )
- ⑤ 매우 잘사는 편이다 ( )

9. 국가나 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모두 V 표시 하세요)

- ① 없다 ( )                                      ② 기초생계비지원 ( )
- ③ 의료비 지원 ( )                              ④ 급식비 지원 ( )
- ⑤ 긴급복지지원(가장의 사망, 질병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원받는 경우)( )
- ⑥ 기타 ( )                                      ⑦ 모르겠다 ( )

10.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물질적 지원(예-학비, 학원비, 용돈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                      ② 부족하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받고 있는 편이다 ( )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 )

11.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정서적 지원(예-고민상담, 대화, 관심, 칭찬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                      ② 부족하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받고 있는 편이다 ( )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 )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0	1	2	3	4
29. 화가 나면 고향을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	0	1	2	3	4
30. 화를 내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더 도움이 된다.	0	1	2	3	4
31. 답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0	1	2	3	4
32.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	0	1	2	3	4
33.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 해야 한다.	0	1	2	3	4
34. 조심성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한다.	0	1	2	3	4
35. 부모님은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하신다.	0	1	2	3	4
36.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0	1	2	3	4
37. 부모님은 화가 나면 나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흥기로 위협 하신다.	0	1	2	3	4
38. 부모님은 자주 싸우신다.	0	1	2	3	4
39. 부모님은 싸우실 때 폭력을 사용한다.	0	1	2	3	4
40.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0	1	2	3	4
41.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다.	0	1	2	3	4
42.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0	1	2	3	4
43.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0	1	2	3	4
44. 부모님은 내가 술이나 담배를 해도 내버려 두신다.	0	1	2	3	4
45. 부모님은 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0	1	2	3	4
46. 부모님은 내가 특별한 이유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0	1	2	3	4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7.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0	1	2	3	4
48.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0	1	2	3	4
49.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0	1	2	3	4
50. 나는 학교에 좋아하는 친구가 한명도 없다.	0	1	2	3	4
51. 나는 학교가 싫다.	0	1	2	3	4
52.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 등 유흥업소가 많다.	0	1	2	3	4
53.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0	1	2	3	4
54.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0	1	2	3	4

※ 다음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항	전혀 없다	조금 있다	많이 있다
55. 가족 중에 범죄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갔던 사람이 있다.	0	1	2
56. 가족 중 약물중독이나 알코올중독인 사람이 있다.	0	1	2
57. 비행을 저지르는 형제 또는 자매가 있다.	0	1	2
58. 가족 중 가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람이 있다.	0	1	2
59. 가까운 친구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0	1	2
60. 가까운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있다.	0	1	2
61. 가까운 친구 중에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갔던 친구가 있다.	0	1	2
62. 가까운 친구 중에 폭력서클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0	1	2

※ 다음은 여러분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항 내용	전혀 없다	1번	2-3번	주1-2 회	거의 매일
63.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게임·채팅 등) 사용으로 인해 타인(부모, 교사 등)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0	1	2	3	4
64.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게임·채팅 등)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0	1	2	3	4
65. 지난 한 달 동안 게임이나 채팅(인터넷·스마트폰)을 하루에 3~4시간 이상 한 적이 있다.	0	1	2	3	4
66. 지난 한 달 동안 게임이나 채팅(인터넷·스마트폰)을 하루 이상 생활을 못한 적(결석, 지각, 불규칙한 식사 및 수면 등)이 있다.	0	1	2	3	4
67.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0	1	2	3	4
68.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0	1	2	3	4
69. 지난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0	1	2	3	4
70. 지난 한 달 동안 가스, 마약 등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	0	1	2	3	4
71.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72.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73.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74.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에게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있다.	0	1	2	3	4
75. 지난 1년 동안 사이버폭력(SNS, 카톡 등에서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76.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다.	0	1	2	3	4
77.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4
78.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0	1	2	3	4
79.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	0	1	2	3	4

문항내용		전혀 없다	1번	2-3번	주1-2 회	거의 매일
80.	지난 1년 동안 사이버폭력(SNS, 카톡 등에서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4
81.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0	1	2	3	4
82.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있다.	0	1	2	3	4
83.	지난 1년 동안 사건에 관련되어 경찰서나 법원에 불려간 적이 있다.	0	1	2	3	4
84.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0	1	2	3	4
85.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0	1	2	3	4
86.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0	1	2	3	4
87.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다.	0	1	2	3	4
88.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유혹을 느끼거나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	0	1	2	3	4
89.	지난 1년 동안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0	1	2	3	4
90.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91.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0	1	2	3	4
92.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0	1	2	3	4
93.	원치 않는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한 적이 있다.	0	1	2	3	4
94.	지난 1년 동안 가출 한 경험이 있다.	0	1	2	3	4
95.	지난 1년 동안 가출팸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다.	0	1	2	3	4
96.	지난 1년 동안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0	1	2	3	4
97.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학업중단하기 전 받는 상담)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다.	0	1	2	3	4

※ 다음은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혹은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하세요.  
만약 경험이 없다면 104번 문항으로 넘어가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없다	1번	2-3번	주1-2 회	거의 매일
98.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이나 직업훈련기관에 이유 없이 결근 또는 조퇴를 한 적이 있다.	0	1	2	3	4
99.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주변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부딪힌 적이 있다.	0	1	2	3	4
100.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생활이나 직업훈련기관에 적응하지 못해 그만 둔 적이 있다.	0	1	2	3	4
101.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102.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103.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에게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을 한 적이 있다.	0	1	2	3	4

※ 다음 문항에 대하여 √표를 하세요.

문 항 내 용	아니다	그렇다
104. 지금 가출한 상태이다.	0	1
105. 지금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0	1

※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하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6.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0	1	2	3	4
107.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0	1	2	3	4
108.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0	1	2	3	4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9.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유를 생각해 보고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110.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0	1	2	3	4
111. 내가 마음먹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0	1	2	3	4
112.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다.	0	1	2	3	4
113. 우리 가족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	0	1	2	3	4
114.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0	1	2	3	4
115.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	0	1	2	3	4
116. 즐겁게 어울리는 친구가 있다.	0	1	2	3	4
117. 나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0	1	2	3	4
118.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나 지도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0	1	2	3	4
119. 우리 동네에는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0	1	2	3	4
120. 우리 동네에는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0	1	2	3	4

수고 많으셨습니다.

★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

## [부록 2]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설문문항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내년도 전국규모의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바, 올해 본원에서는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를 위한 문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랜 기간 동안 위기 청소년을 위해 일해오신 선생님께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설문 문항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의 방향 예측과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래 질문들은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설문 문항 초안으로 전국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질문할 내용입니다. 문항내용의 타당성 여부 및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문 결과는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 설문 실시 요령 〉

1. 아래 설문을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답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6월 27일(토)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메일 : smrlem3@kyci.or.kr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구자 황순길 051-662-3010, 공동연구자 김화연 051-662-3134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문항 중 색이 없는 문항은 2010년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당시 기 검증된 문항이고, 색이 있는 문항은 미검증 문항입니다. 색이 있는 미검증 문항에 대해서만 체크해 주십시오.

※ 다음은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문항 중 위험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이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문항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지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인	문항내용	전혀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개 인	17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		
	18 나에게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		
	19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		
	20 나는 늘 슬프다.			—		
	21 이유 없이 불안하다.	1	2	3	4	5
	22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다.	1	2	3	4	5
	23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1	2	3	4	5
	24 긴장이 될 때가 많다.	1	2	3	4	5
	25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1	2	3	4	5
	26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부터 한다.	1	2	3	4	5
	27 다른 사람과 치고받으며 잘 싸운다.			—		
	28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		
	29 화가 나면 고향을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	1	2	3	4	5
	30 화를 내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더 도움이 된다.	1	2	3	4	5
31 수업을 듣거나 할 때 답답해서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1	2	3	4	5	
32 생각없이 함부로 말을 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	1	2	3	4	5	
33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 해야 한다.	1	2	3	4	5	
34 조심성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한다.	1	2	3	4	5	

요인	문항내용	전혀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타당하다
가정 폭력 부모와의 갈등 방임	35	부모님은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하신다.				
	36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37	부모님은 화가 나면 나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흥기로 위협 하신다.				
	38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39	1	2	3	4	5
	40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41	1	2	3	4	5
	42	부모님은 내가 술이나 담배를 해도 내버려 두신다.				
	43	1	2	3	4	5
	44	부모님은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 라고 하지 않으신다.				
가정 환경	45	부모님은 자주 싸우신다.				
	46	1	2	3	4	5
가족 구성원	47	1	2	3	4	5
	48	1	2	3	4	5
	49	1	2	3	4	5
	50	가족 중 가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람이 있다.				
또래 비행 친구	51	1	2	3	4	5
	52	1	2	3	4	5
	53	1	2	3	4	5
	54	1	2	3	4	5

요인		문항내용	전혀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타당하다
학교	학교 생활	55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				
		56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1	2	3	4	5
		57 나는 좋아하는 학교 선생님이 하나도 없다.	1	2	3	4	5
		58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1	2	3	4	5
		59 나는 학교에 좋아하는 친구가 한명도 없다.	1	2	3	4	5
		60 나는 학교가 싫다.	-				
지역 사회	지역 사회 환경	61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 등 유흥업소가 많다.	1	2	3	4	5
		62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				
		63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				

※ 다음은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문항 중 위기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이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문항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지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인		문항내용	전혀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타당하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64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게임·채팅등) 사용으로 인해 타인(부모,교사 등)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1	2	3	4	5
	65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게임·채팅등)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1	2	3	4	5
	66	지난 한 달 동안 게임이나 채팅(인터넷·스마트폰)을 하루에 3~4시간이상 한 적이 있다.	1	2	3	4	5
	67	지난 한 달 동안 게임이나 채팅(인터넷·스마트폰)을 하느라고 일상생활을 못한 적(결석,지각,학원가기,친구만나기 등)이 있다.	1	2	3	4	5
	68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안전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1	2	3	4	5
약물	69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				
	70	지난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				
	71	지난 한 달 동안 가스, 본드, 마약류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1	2	3	4	5

요인	문항내용	전혀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타당하다	
학교폭력	72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4	5
	73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				
	74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4	5
	75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있다.	1	2	3	4	5
	76	지난 1년 동안 사이버폭력(SNS, 카톡 등에서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4	5
	77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다.	1	2	3	4	5
	78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	—				
	79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1	2	3	4	5
	80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후배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	1	2	3	4	5
	81	지난 1년 동안 사이버폭력(SNS, 카톡 등에서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비행 및 범죄	82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1	2	3	4	5
	83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있다.	1	2	3	4	5
자살	84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				
	85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				
	86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				
성매매 및 성폭력 (성문제)	87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다.	1	2	3	4	5
	88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유혹을 느끼거나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	1	2	3	4	5
	89	지난 1년 동안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				
	90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				
	91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				
	92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				
	93	원치 않는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한 적이 있다.	1	2	3	4	5

요인	문항내용		전혀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타당하다
가출	94	지난 1년 동안 가출 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95	지금 가출한 상태이다.	—				
학업중단 및 학교 부적응	96	지난 1년 동안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				
	97	현재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을 받고 있다.	1	2	3	4	5
	98	지금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				
가정 폭력	99	나는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	1	2	3	4	5
	100	나는 부모님을 자주 때리거나 심한 욕설을 한다.	1	2	3	4	5
직장 및 직업훈련기관 부적응	101	직장이나 직업훈련기관에 이유없이 결근 또는 조퇴를 한 적이 있다.	1	2	3	4	5
	102	직장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주변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부딪힌 적이 있다.	1	2	3	4	5
	103	직장 생활이나 직업훈련에 적응하지 못해 그만 둔 적이 있다.	1	2	3	4	5
	104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4	5
	105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4	5
	106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에게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 다음은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문항 중 보호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이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문항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지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인	문항내용		전혀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타당하다
개인	107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108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1	2	3	4	5
	109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1	2	3	4	5
	110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유를 생각해 보고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11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을 안다.	1	2	3	4	5
	112	내가 마음먹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1	2	3	4	5

분류	문 항 내 용		전혀타 당하지 않다	타 당 하 지 않 다	보 통 이 다	타 당 하 다	매 우 타 당 하 다
가정	113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다.	1	2	3	4	5
	114	우리 가족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	1	2	3	4	5
	115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1	2	3	4	5
또래	116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	1	2	3	4	5
	117	나는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다.	1	2	3	4	5
학교	118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나 지도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1	2	3	4	5
지역 사회	119	우리 동네에는 내가 마음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120	우리 동네에는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1	2	3	4	5



※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문항 및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요인분류에 대한 의견

2. 문항에 대한 의견

3. 기타 의견

### [부록 3] 1차 설문문항(예비조사) 요인별 구분 - 위험요인 / 보호요인

#### [위험요인]

요인	구분	위험 요인 문항
개인	우울 1	17.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우울 2	18.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울 3	19.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우울 4	20. 나는 늘 슬프다.
	불안 1	21. 이유없이 불안하다.
	불안 2	22.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다.
	불안 3	23. 항상 걱정이 많다.
	불안 4	24.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될 때가 많다.
	불안 5	25.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공격성 1	26.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부터 한다.
	공격성 2	27. 다른 사람과 치고받으며 잘 싸운다.
	공격성 3	28.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공격성 4	29. 화가 나면 고향을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
	공격성 5	30. 화를 내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더 도움이 된다.
	충동성 1	31. 답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충동성 2	32.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
	충동성 3	33.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 해야 한다.
부주의 1	34. 조심성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한다.	
가정	가정폭력 1	35. 부모님은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하신다.
	가정폭력 2	36.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가정폭력 3	37. 부모님은 화가 나면 나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흥기로 위협하신다.
	부모와의 갈등 1	38.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부모와의 갈등 2	39.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다.
	부모와의 갈등 3	40.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부모와의 갈등 4	41.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방임 1	42. 부모님은 내가 술이나 담배를 해도 내버려 두신다.
	방임 2	43. 부모님은 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방임 3	44. 부모님은 내가 특별한 이유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가정환경 1	45. 부모님은 자주 싸우신다.
가정환경 2	46. 부모님은 싸우실 때 폭력을 사용한다.	

요인	구분	위험 요인 문항
학교	학교생활 1	47.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학교생활 2	48.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학교생활 3	49.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학교생활 4	50. 나는 학교에 좋아하는 친구가 한명도 없다.
	학교생활 5	51. 나는 학교가 싫다.
지역 사회	지역사회 환경 1	52.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 등 유흥업소가 많다.
	지역사회 환경 2	53.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지역사회 환경 3	54.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가정	가족구성원 1	55. 가족 중에 범죄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갔던 사람이 있다.
	가족구성원 2	56. 가족 중 약물중독이나 알코올중독인 사람이 있다.
	가족구성원 3	57. 비행을 저지르는 형제 또는 자매가 있다.
	가족구성원 4	58. 가족 중 가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람이 있다.
또래	비행친구 1	59. 가까운 친구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비행친구 2	60. 가까운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있다.
	비행친구 3	61. 가까운 친구 중에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갔던 친구가 있다.
	비행친구 4	62. 가까운 친구 중에 폭력서클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 [보호요인]

요인	구분	보호 요인 문항
개인	개인 1	106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개인 2	107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개인 3	108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개인 4	109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유를 생각해 보고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한다.
	개인 5	110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개인 6	111 내가 마음먹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가정	가정 1	112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다.
	가정 2	113 우리 가족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
	가정 3	114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또래	또래 1	115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
	또래 2	116 즐겁게 어울리는 친구가 있다.
학교	학교 1	117 나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학교 2	118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나 지도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지역 사회	지역사회 1	119 우리 동네에는 내가 마음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지역사회 2	120 우리 동네에는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 [부록 4] 최종 설문문항(시범조사) 요인별 구분 - 위험요인 / 보호요인

### [위험요인]

요인	구분	위험 요인 문항
개인	우울 1	17.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우울 2	18.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울 3	19.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우울 4	20. 나는 늘 슬프다.
	불안 1	21. 이유없이 불안하다.
	불안 2	22.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다.
	불안 3	23. 항상 걱정이 많다.
	불안 4	24.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될 때가 많다.
	불안 5	25.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공격성 1	26.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부터 한다.
	공격성 2	27. 다른 사람과 치고받으며 잘 싸운다.
	공격성 3	28.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공격성 4	29. 화가 나면 고향을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
	공격성 5	30. 화를 내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더 도움이 된다.
	충동성 1	31. 답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충동성 2	32.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
	충동성 3	33.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 해야 한다.
	부주의 1	34. 조심성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한다.
가정	가정폭력 1	35. 부모님은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하신다.
	가정폭력 2	36.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가정폭력 3	37. 부모님은 화가 나면 나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흥기로 위협하신다.
	부모간 갈등 1	38. 부모님은 자주 싸우신다.
	부모간 갈등 2	39. 부모님은 싸우실 때 폭력을 사용한다.
	부모와의 갈등관계 1	40.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부모와의 갈등관계 2	41.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다.
	부모와의 갈등관계 3	42.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부모와의 갈등관계 4	43.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방임 1	44. 부모님은 내가 술이나 담배를 해도 내버려 두신다.
	방임 2	45. 부모님은 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방임 3	46. 부모님은 내가 특별한 이유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요인	구분	위험 요인 문항
학교	학교생활 부적응 1	47.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학교생활 부적응 2	48.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학교생활 부적응 3	49.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학교생활 부적응 4	50. 나는 학교에 좋아하는 친구가 한명도 없다.
	학교생활 부적응 5	51. 나는 학교가 싫다.
지역 사회	지역사회 유해환경 1	52.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 등 유흥업소가 많다.
	지역사회 유해환경 2	53.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지역사회 유해환경 3	54.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가정	문제가족원 1	55. 가족 중에 범죄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갔던 사람이 있다.
	문제가족원 2	56. 가족 중 약물중독이나 알코올중독인 사람이 있다.
	문제가족원 3	57. 비행을 저지르는 형제 또는 자매가 있다.
	문제가족원 4	58. 가족 중 가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람이 있다.
또래	비행친구 1	59. 가까운 친구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비행친구 2	60. 가까운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있다.
	비행친구 3	61. 가까운 친구 중에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갔던 친구가 있다.
	비행친구 4	62. 가까운 친구 중에 폭력서클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 [보호요인]

요인	구분	보호 요인 문항
개인	개인 1	106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개인 2	107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개인 3	108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개인 4	109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유를 생각해 보고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한다.
	개인 5	110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개인 6	111 내가 마음먹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가정	가정 1	112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다.
	가정 2	113 우리 가족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
	가정 3	114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또래	또래 1	115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
	또래 2	116 나는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다.
학교	학교 1	117 나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학교 2	118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나 지도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지역 사회	지역사회 1	119 우리 동네에는 내가 마음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지역사회 2	120 우리 동네에는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 [부록 5] 전체 위기결과 분석

단위: 명(%)

구분		경험 유무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chi^2$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타인과 갈등	유	4 ( 0.9)	3 ( 5.4)	7 ( 1.4)	.007**
		무	450 ( 99.1)	53 ( 94.6)	503 ( 98.6)	
		무응답	1	1	2	
	계획한 일 못함	유	11 ( 2.4)	3 ( 5.4)	14 ( 2.8)	.206
		무	442 ( 97.6)	53 ( 94.6)	495 ( 97.2)	
		무응답	2	1	3	
	과다사용	유	54 ( 11.9)	14 ( 25.0)	68 ( 13.4)	.007**
		무	399 ( 88.1)	42 ( 75.0)	441 ( 86.6)	
		무응답	2	1	3	
	일상생활 장애	유	30 ( 6.6)	9 ( 16.1)	39 ( 7.7)	.012*
		무	423 ( 93.4)	47 ( 83.9)	470 ( 92.3)	
		무응답	2	1	3	
	금단증상	유	9 ( 2.0)	5 ( 8.9)	14 ( 2.8)	.003**
		무	444 ( 98.0)	51 ( 91.1)	495 ( 97.2)	
		무응답	2	1	3	
약물	술	유	0 ( 0.0)	4 ( 7.1)	4 ( 0.8)	.000***
		무	454 (100.0)	52 ( 92.9)	506 ( 99.2)	
		무응답	1	1	2	
	담배	유	8 ( 1.8)	15 ( 27.3)	23 ( 4.5)	.000***
		무	446 ( 98.2)	40 ( 72.7)	486 ( 95.5)	
		무응답	1	2	3	
	가스나 마약	유	0 ( 0.0)	0 ( 0.0)	0 ( 0.0)	-
		무	454 (100.0)	56 (100.0)	510 (100.0)	
		무응답	1	1	2	
학교 폭력 피해	신체폭력	유	2 ( 0.4)	0 ( 0.0)	2 ( 0.4)	.619
		무	452 ( 99.6)	56 (100.0)	508 ( 99.6)	
		무응답	1	1	2	
	언어폭력	유	7 ( 1.5)	2 ( 3.6)	9 ( 1.8)	.276
		무	447 ( 98.5)	54 ( 96.4)	501 ( 98.2)	
		무응답	0	2	2	
	따돌림	유	3 ( 0.7)	0 ( 0.0)	3 ( 0.6)	.542
		무	451 ( 99.3)	56 (100.0)	507 ( 99.4)	
		무응답	1	1	2	

구분		경험 유무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chi^2$	
학교 폭력 피해	돈이나 물건 빼앗김	유	1 ( 0.2)	0 ( 0.0)	1 ( 0.2)	.725	
		무	453 ( 99.8)	56 (100.0)	509 ( 99.8)		
		무응답	0	2	2		
	사이버 폭력	유	2 ( 0.4)	1 ( 1.8)	3 ( 0.6)	.215	
		무	452 ( 99.6)	54 ( 98.2)	506 ( 99.4)		
		무응답	1	2	3		
학교 폭력 가해	신체폭행	유	4 ( 0.9)	0 ( 0.0)	4 ( 0.8)	.481	
		무	450 ( 99.1)	56 (100.0)	506 ( 99.2)		
		무응답	1	1	2		
	언어폭력	유	5 ( 1.1)	1 ( 1.8)	6 ( 1.2)	.642	
		무	449 ( 98.9)	54 ( 98.2)	503 ( 98.8)		
		무응답	1	2	3		
	따돌림	유	1 ( 0.2)	0 ( 0.0)	1 ( 0.2)	.725	
		무	452 ( 99.8)	56 (100.0)	508 ( 99.8)		
		무응답	2	1	3		
	돈이나 물건 빼앗음	유	0 ( 0.0)	1 ( 1.8)	1 ( 0.2)	.004**	
		무	454 (100.0)	55 ( 98.2)	509 ( 99.8)		
		무응답	1	1	2		
	사이버 폭력	유	0 ( 0.0)	0 ( 0.0)	0 ( 0.0)	-	
		무	453 (100.0)	56 (100.0)	509 (100.0)		
		무응답	2	1	3		
	비행	갈취	유	0 ( 0.0)	0 ( 0.0)	0 ( 0.0)	-
			무	453 (100.0)	56 (100.0)	509 (100.0)	
			무응답	2	1	3	
절도		유	0 ( 0.0)	0 ( 0.0)	0 ( 0.0)	-	
		무	453 (100.0)	56 (100.0)	509 (100.0)		
		무응답	2	1	3		
사법문제		유	0 ( 0.0)	4 ( 7.1)	4 ( 0.8)	.000***	
		무	452 (100.0)	52 ( 92.9)	504 ( 99.2)		
		무응답	3	1	4		
자살	자살사고	유	1 ( 0.2)	3 ( 5.4)	4 ( 0.8)	.000***	
		무	452 ( 99.8)	53 ( 94.6)	505 ( 99.2)		
		무응답	2	1	3		
	자살계획	유	2 ( 0.4)	3 ( 5.4)	5 ( 1.0)	.000***	
		무	451 ( 99.6)	53 ( 94.6)	504 ( 99.0)		
		무응답	2	1	3		

구분		경험 유무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chi^2$
자살	자살시도	유	2 ( 0.4)	6 ( 10.7)	8 ( 1.6)	.000***
		무	451 ( 99.6)	50 ( 89.3)	501 ( 98.4)	
		무응답	2	1	3	
성문제	성매매 사이트 접속	유	0 ( 0.0)	0 ( 0.0)	0 ( 0.0)	-
		무	453 (100.0)	56 (100.0)	509 (100.0)	
		무응답	2	1	3	
	성매매 권유	유	0 ( 0.0)	1 ( 1.8)	1 ( 0.2)	.004**
		무	453 (100.0)	55 ( 98.2)	508 ( 99.8)	
		무응답	2	1	3	
	성매매	유	1 ( 0.2)	2 ( 3.6)	3 ( 0.6)	.002**
		무	452 ( 99.8)	54 ( 96.4)	506 ( 99.4)	
		무응답	2	1	3	
	성폭력 피해	유	3 ( 0.7)	2 ( 3.6)	5 ( 1.0)	.037*
		무	450 ( 99.3)	54 ( 96.4)	504 ( 99.0)	
		무응답	2	1	3	
성폭력 위협	유	3 ( 0.7)	0 ( 0.0)	3 ( 0.6)	.541	
	무	450 ( 99.3)	56 (100.0)	506 ( 99.4)		
	무응답	2	1	3		
성문제	성폭력 시도	유	0 ( 0.0)	1 ( 1.8)	1 ( 0.2)	.004**
		무	453 (100.0)	55 ( 98.2)	508 ( 99.8)	
		무응답	2	1	3	
	원치않는 임신출산	유	0 ( 0.0)	1 ( 1.8)	1 ( 0.2)	.004**
		무	452 (100.0)	54 ( 98.2)	506 ( 99.8)	
		무응답	3	2	5	
가출	가출경험	유	1 ( 0.2)	5 ( 8.9)	6 ( 1.2)	.000***
		무	452 ( 99.8)	51 ( 91.1)	503 ( 98.8)	
		무응답	2	1	3	
	가출팸	유	1 ( 0.2)	2 ( 3.6)	3 ( 0.6)	.002**
		무	452 ( 99.8)	54 ( 96.4)	506 ( 99.4)	
		무응답	2	1	3	
	가출상태	유	1 ( 0.2)	3 ( 5.5)	4 ( 0.8)	.000***
		무	449 ( 99.8)	52 ( 94.5)	501 ( 99.2)	
		무응답	5	2	7	
학업 중단	무단결석	유	0 ( 0.0)	10 ( 17.9)	10 ( 2.0)	.000***
		무	453 (100.0)	46 ( 82.1)	499 ( 98.0)	
		무응답	2	1	3	



구분		경험 유무	일반학생 (n=455)	위기·취약 청소년 (n=57)	전체 (n=512)	$\chi^2$
학업 중단	학업중단 숙려상담	유	0 ( 0.0)	6 ( 10.7)	6 ( 1.2)	.000***
		무	452 (100.0)	50 ( 89.3)	502 ( 98.8)	
		무응답	3	1	4	
	학업중단 상태	유	2 ( 0.4)	36 ( 64.3)	38 ( 7.5)	.000***
		무	447 ( 99.6)	20 ( 35.7)	467 ( 92.5)	
		무응답	6	1	7	
구분		경험 유무	일반학생 (n=279)	위기·취약 청소년 (n=46)	전체 (n=325)	$\chi^2$
직장 생활 부적응	무단결근	유	0 ( 0.0)	0 ( 0.0)	0 ( 0.0)	-
		무	279 (100.0)	46 (100.0)	325 (100.0)	
		무응답	0	0	0	
	감정대립	유	0 ( 0.0)	0 ( 0.0)	0 ( 0.0)	-
		무	276 (100.0)	45 (100.0)	321 (100.0)	
		무응답	3	1	4	
	직장 부적응	유	1 ( 0.4)	0 ( 0.0)	1 ( 0.3)	.685
		무	274 ( 99.6)	45 (100.0)	319 ( 99.7)	
		무응답	4	1	5	
	폭행폭언 피해	유	0 ( 0.0)	0 ( 0.0)	0 ( 0.0)	-
		무	275 (100.0)	45 (100.0)	320 (100.0)	
		무응답	4	1	5	
	성희롱 피해	유	0 ( 0.0)	1 ( 2.2)	1 ( 0.3)	.013*
		무	274 (100.0)	44 ( 97.8)	318 ( 99.7)	
		무응답	5	1	6	
	언어신체 폭력	유	0 ( 0.0)	0 ( 0.0)	0 ( 0.0)	-
		무	274 (100.0)	45 (100.0)	319 (100.0)	
		무응답	5	1	6	

\*p<.05, \*\*p<.01, \*\*\*p<.001

[부록 6] 2015년 문항과 선행연구 문항 비교<sup>13)</sup>

분류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1차년도(문항개발)-(2015)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2010)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2009)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2006) <sup>14)</sup>		비고
	1 성별	2 나이	3 재학 중인 학교 및 기관은 어디입니까?	4 현재 몇학년에 재학 중입니까?	5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6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7 부모님의 출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8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인구 통계 통계 학적 변인	1 성별	2 나이	3 재학 중인 학교 및 기관은 어디입니까?	4 현재 몇학년에 재학 중입니까?	5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6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7 부모님의 출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8 가정의 경제수준(월수입)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개2 성별은? 개11 현재 나이는? 개3 현재 학년은? 개1 거주지는? 개4 부모님의 결혼상태는? 개5 당신은 지금 현재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개6 우리집 경제적 수입은 한달 평균 총 얼마 마입니까?(부모님이 모두 버는 경우는 총수입을 체크하세요) 개7 국가나 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가? 모두 체크해 주세요.
가족	거주 형태 (동거인)	6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6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6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6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6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6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6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6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부모출신국	7 부모님의 출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7 부모님의 출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7 부모님의 출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7 부모님의 출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7 부모님의 출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7 부모님의 출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7 부모님의 출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7 부모님의 출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지원 및 지지	경제수준	8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 니까?	8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 니까?	8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 니까?	8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 니까?	8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 니까?	8 가정의 경제수준(월수입)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8 가정의 경제수준(월수입)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8 가정의 경제수준(월수입)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사회적 지원	9 국가나 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 고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9 국가나 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 고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9 국가나 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 고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9 국가나 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 고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9 국가나 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 고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9 국가나 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 고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9 국가나 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 고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모두 체크해 주세요.	9 국가나 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 고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모두 체크해 주세요.
지원 및 지지	물질적 지원	10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물질적지원(예-학비, 학원비, 용돈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10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물질적지원(예-학비, 학원비, 용돈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10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물질적지원(예-학비, 학원비, 용돈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10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물질적지원(예-학비, 학원비, 용돈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10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물질적지원(예-학비, 학원비, 용돈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10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물질적지원(예-학비, 학원비, 용돈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V표 해주세요.	10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물질적지원(예-학비, 학원비, 용돈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V표 해주세요.	10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물질적지원(예-학비, 학원비, 용돈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V표 해주세요.
	정서적 지원	11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정서적지원(예-고민상담, 대화, 관심, 칭 찬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11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정서적지원(예-고민상담, 대화, 관심, 칭 찬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11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정서적지원(예-고민상담, 대화, 관심, 칭 찬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11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정서적지원(예-고민상담, 대화, 관심, 칭 찬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11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정서적지원(예-고민상담, 대화, 관심, 칭 찬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11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정서적지원(예-고민상담, 대화, 관심, 칭 찬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11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정서적지원(예-고민상담, 대화, 관심, 칭 찬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V표 해주세요.	11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정서적지원(예-고민상담, 대화, 관심, 칭 찬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V표 해주세요.
정서적 지지체계	12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 습니까?	12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 습니까?	12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 습니까?	12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 습니까?	12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 습니까?	12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 습니까?	12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 습니까?	12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 습니까?	개10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까?

13) 분류는 2015년도 문항 기준에 따름.

14) 2006년도 설문지는 개인신상 문항과 위기실태 문항의 번호가 중복되어 있어 개인신상 문항 앞에는 ‘개’라고 표시함.

분류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1차년도(문화개발)-(2015)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2010)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2009)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2006) <sup>(4)</sup>	비고	
1388 청소년 전화	1388 인지	13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3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9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388 이용	14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14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10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센터 인지	15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신규	
	센터 이용	16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규	
기 초 자 료	우울	17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15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13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1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18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16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15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2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불안	19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17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17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18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3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20 나는 늘 슬프다.	20 나는 늘 슬프다.	18 나는 늘 슬프다.	14 늘 마음이 슬퍼진다.		수정
	개인	21 이유없이 불안하다.	19 이유 없이 불안하다.	19 이유 없이 불안하다.	22 아무 이유도 없이 두려워진다.		제외
		22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다.	22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다.	20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다.	20 신경이 매우 날카롭고 불안하다.	5 신경이 매우 날카롭고 불안하다.	수정
	수정	23 항상 걱정이 많다.	23 항상 걱정이 많다.	21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19 나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4 나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수정
		24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될 때가 많다.	24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될 때가 많다.	22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더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	21 가끔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	6 가끔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	수정
	공격성	25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25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23 자주 무서운 생각이 든다	23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수정
		26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부터 한다.	26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부터 한다.				신규
충동성	27 다른 사람과 치고받으며 잘 싸운다.	27 다른 사람과 치고받으며 잘 싸운다.	24 다른 사람과 치고받으며 잘 싸운다.	24 다른 사람과 치고받으며 잘 싸운다.	7 다른 사람과 치고받으며 잘 싸운다.		
	28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28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25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25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8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신규	
충동성	29 화가 나면 고향을 지르거나 물건을 잡아 던진다.	29 화가 나면 고향을 지르거나 물건을 잡아 던진다.				신규	
	30 화를 내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더 도움이 된다.	30 화를 내는 것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더 도움이 된다.				신규	
충동성	31 대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 한다.	26 대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 한다.	26 대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 한다.				

분류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1차년도(문항개발)-(2015)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2010)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2009)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2006) <sup>(4)</sup>	비고
중등성	32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		29 최근에 나는 자제력을 잃을 때가 있다.		제외
	33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 해야 한다.	27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	30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		
	34 조심성이 없어서 실수를 많이 한다.	28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주의집중을 못한다. 29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부주의하게 실수를 많이 한다.	27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	9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	
부주의			28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주의집중을 못한다. 29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부주의하게 실수를 많이 한다.		수정
부정적 지존감 <sup>(15)</sup>			31 나는 이제까지 나 자신을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	10 나는 이제까지 나 자신을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	제외
			32 나는 내가 미워질 때가 가끔 있다.	11 나는 내가 미워질 때가 가끔 있다.	
			33 대체로 나는 학교에서 낙오자라고 생각한다.		
			34 가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12 가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35 나는 몸이 매우 허약한 편이다.		
신체적 문제			36 늘 기운이 없고 피곤하다.		제외
			37 나는 나의 외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다.		
			38 내가 똥통하고 비만인 것이 부끄럽다.		
			39 나에게 이성을 끄는 매력이 없는 것 같다.		
스트레스 대처 문제*			44 나는 문제를 나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내 자신을 원망한다.		제외
			45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46 할 뿐이고 실제로 해결하려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위험요인

15) 위험요인 중 부정적 지존감, 스트레스 대처문제의 일부 문항은 2015년도 설문문항의 보호요인(자아존중감, 적극적 문제해결)으로 재구성됨.

분류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1차년도(문항개발)-(2015)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2010)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2009)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2006) <sup>(4)</sup>	비고
개인	스트레스 대처 문제*	35 부모님은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하신다.	47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일이 귀찮아서 잠을 청한다.	37 부모님이 나에게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	제외
		36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48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영동한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37 부모님은 화가 나면 나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하신다.	49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가정폭력	38 부모님은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하신다.	30 부모님은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하신다.	50 부모님은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하신다.		제외
	39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31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51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40 부모님은 화가 나면 나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하신다.	32 거나 흉기로 위협하신다.		36 나는 부모님을 자주 때리거나 심한 욕설을 한다.	
가정환경					제외
가정	38 부모님은 자주 싸우신다.	46 부모님은 자주 싸우신다.			제외
	39 부모님은 싸우실 때 폭력을 사용한다.	47 부모님이 싸우실 때 폭력을 사용한다.	66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		
	40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47 부모님이 싸우실 때 폭력을 사용한다.	67 부모님이 이혼이나 별거 중이시다.		
부모간 갈등	41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다.	33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68 우리 부모님은 재혼을 하셨다.		제외
	42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34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고 긴장된다.	69 부모님의 실직으로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		
	43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35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부모와의 갈등 관계		36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52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35 부모님과 나는 갈등이 심하다.	수정
			56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다른 형제를 더 귀여워하신다.		
			54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위험요인

분류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1차년도(문항개발)-(2015)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2010)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2009)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2006) <sup>4)</sup>	비고
양육방식			59 나는 부모님에게 왜 혼나는지 모른 채 혼나는 경우가 많다. 60 우리 부모님은 너무 무섭게 나를 대하신다.		제외
	가정	44 부모님은 내가 술이나 담배를 해도 내버려 두신다.	37 부모님은 내가 술이나 담배를 해도 내버려 두신다.	57 우리 친구들은 심대들이 담배를 피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58 우리 친구들은 심대들이 술을 마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45 부모님은 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38 부모님은 내가 외박을 해도 어디에서 지냈는지 확인하지 않으신다. 40 부모님은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38 부모님은 나를 버렸으며, 전혀 돌보아 주지도 않는다.
학교	46 부모님은 내가 특별한 이유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39 부모님은 내가 특별한 이유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41 나는 공부를 못한다.	70 나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없다. 71 나는 공부를 못한다.		제외
	47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42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73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72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77 선생님이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		제외
	48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49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43 나는 좋아하는 학교 선생님이 하나도 없다.	78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79 선생님은 나에게 싫은 소리를 자주 하시는 편이다.	15 선생님과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	
	50 나는 학교에 좋아하는 친구가 한명도 없다.	44 나는 좋아하는 학교 친구가 하나도 없다.	80 선생님에게 심한 제벌을 받은 적이 있다.		제외
	51 나는 학교가 싫다.	45 나는 학교가 싫다.	74 나는 학교가 싫다. 75 우리 학교는 체벌이 너무 심하다.	13 나는 친구가 없다.	수정

분류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1차년도(문항개발)-(2015)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2010)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2009)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2006) <sup>4)</sup>	비고
방과후 지역사회 유해환경	학업생활 부적응		82 나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가는 학원이 많다. 83 나는 부모님께 학원 간다고 하고 안 간 적이 많다.		제외
	방과후 활동		81 학원, 과외활동 등 방과 후에 할 일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84 나는 방과 후에 돈을 벌어야 한다.		제외
지역 사회		48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 등 유흥업소가 많다.	90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 등 유흥업소가 많다. 91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많다. 92 우리 동네에서는 범죄에 다니면 위험하다.	14 우리 동네에는 유흥업소(여관, 술집 등)가 많다.	
	지역 사회	53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54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55 가족 중에 범죄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있다. 56 가족 중 약물중독이나 알코올중독인 사람이 있다. 57 비행을 저지르는 형제 또는 자매가 있다. 58 가족 중 가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람이 있다.	93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61 가족이나 친척 중에는 감옥에 갇혔던 분이 계신다. 62 가족 중 약물 복용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있다. 63 비행을 저지르는 형제가 있다. 64 가족 중 가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람이 있다.		수정 수정
가정	문제 가족원	59 가까운 친구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85 가까운 친구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86 내에게는 약물남용(예: 본드, 니스, 신나)하는 친구가 있다.		
	가정	60 가까운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있다. 61 가까운 친구 중에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갔던 친구가 있다. 62 가까운 친구 중에 폭력사범(예: 임진에 있는 친구)이 있다.	87 내에게는 가출한 친구가 있다. 88 내에게는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간 친구가 있다. 89 내에게는 폭력사범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16 내에게는 문제 행동(가출, 학교 폭력 등)을 보이는 친구가 있다.	수정 수정
또래	비행친구				

위험요인

분류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1차년도(문항개발)-(2015)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2010)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2009)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2006) <sup>(4)</sup>	비고	
인터넷 및 스마트 폰 중독	63 타인과의 갈등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게임·채팅 등) 사용으로 인해 타인(부모, 교사 등)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61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게임 등) 사용으로 인해 타인(부모, 교사 등)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104 최근 3개월 이내에 인터넷(게임 등) 사용 등으로 인해 타인(부모, 교사 등)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수정	
	계획안일 못함	64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게임·채팅 등)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62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게임 등)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105 최근 3개월 이내에 인터넷(게임 등)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습니까?	수정	
	과다사용	65 지난 한 달 동안 게임이나 채팅(인터넷·스마트폰)을 하루에 3~4시간이상 한 적이 있다.	63 지난 한달 동안 게임(인터넷 등)을 하루에 3시간 이상 한 적이 있다.		20 거의 매일 게임(인터넷)을 하루에 4시간 이상 한다.	수정
	일상생활 장애	66 지난 한 달 동안 게임이나 채팅(인터넷·스마트폰)을 하느라 일상생활을 못 한 채결석, 지각, 불규칙한 식사 및 수면 등이 있다.	64 지난 한달 동안 게임(인터넷 등)을 하느라 일상생활을 못한 채결석, 지각, 학원가기, 친구만나기 등이 있다.		21 게임(인터넷)을 하느라고 일상생활(등교, 친구와의 만남 등)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수정
	금단증상	67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신규
	술	68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65 지난 한달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41 나는 음주한 경향이 있다. 43 나는 심대들이 음주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담배	69 지난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66 지난 한달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103 최근 3개월 내에 음주 및 흡연을 한 경험 이 있습니까? 40 나는 흡연한 경향이 있다. 42 나는 심대들이 흡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17 나는 종종 술, 담배를 한다.	
악물	가스나 마약	70 지난 한 달 동안 가스, 마약 등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	67 지난 한 달 동안 가스, 본드, 마약류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102 최근 3개월 내에 가스, 본드, 마약류를 흡입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34 환각제나 가스, 본드와 같은 악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수정
	신체폭력	71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68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신체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27 친구 또는 선후배한테 종종 폭행을 당한다.	수정
	언어폭력	72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71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심한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100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신체폭행·따돌림·괴롭힘·언어폭력 등)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수정
	따돌림	73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69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22 친한 친구들이 나를 따돌린다.	수정
					23 반전체 아이들이 나를 따돌린다.	수정



분류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1차년도(문화개발)-(2015)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2010)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2009)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2006) <sup>4)</sup>	비고
학교 폭력 피해	괴롭힘 돈이나 물건 빼앗김	74	70	25	제외
	사이버폭력	75	72		수정
	신체폭력	76	73		신규
	언어폭력	77	76		수정
	따돌림 돈이나 물건 빼앗음	78, 79	74, 75	101	수정
비행	사이버폭력	80			신규
	갈취	81	78	28	수정
	절도	82	77	29	수정
	사범문제	83			신규
	자살사고	84	79	110	
자살	자살계획	85	80	17	
	자살시도	86	81	111	
				33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

위 기 결 과

분류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1차년도(문항개발)-(2015)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2010)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2009)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2006) <sup>(4)</sup>	비고
성문제	성매매사이트 접속	87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다.			신규
	성매매 권유	88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유혹을 느끼거나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	109 최근 1년 동안 성매매유혹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수정
	성매매 피해	89 지난 1년 동안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30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성폭력 피해	90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84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31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성폭력 위험	91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	85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	108 최근 1년 동안 성폭력(성희롱 포함)의 위험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성폭력 시도	92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86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32 성폭력을 한 적이 있다.	
	원치않는 임신출산	93 원치 않는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한 적이 있다.			신규
	가출경험	94 지난 1년 동안 가출 한 경험이 있다.	87 지난 1년 동안 가출 한 경험이 있다.		
	가출범	95 지난 1년 동안 가출범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다.		18 가출을 한 적이 있다.	신규
	가출상태	104 지금 가출한 상태이다.	88 지금 가출한 상태이다.		
학업 중단	무단결석	96 지난 1년 동안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59 중증 수업을 빼먹는다. 60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19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수정
	학업중단 수려상담	97 학업중단 수려제 상담(학업중단하기 전 받는 상담)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다.		99 최근 1년 동안 학교로부터 자퇴경고나 퇴학을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까?	신규
	학업중단 상태	105 지금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89 지금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다(유학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은 제외).		수정
	무단결근	98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이나 직업훈련기관에 이유 없이 결근 또는 조퇴한 적이 있다.			신규
감정대립	99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주변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부딪힌 적이 있다.				신규

분류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1차년도(문화개발)-(2015)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2010)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2009)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2006) <sup>(4)</sup>	비고
직장 생활 부작용	직장 부작용 100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생 활이나 직업훈련기관에 적응하지 못해 그만 두 적이 있다.			신규
	목적없는 피해 101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 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폭행 이나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 다.			신규
	성희롱 피해 102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 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성희 롱을 당한 적이 있다.			신규
	언어신체 폭력피해 103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 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에게 언어적 또 는 신체적 폭력을 한 적이 있다.			신규
은둔성 외톨이				9	학교에 출석도 하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으면서 집에만 있는 친구가 우리 반 에 몇 명 있습니까?
				38	학교에 등교하거나 특정한 사회활동을 위해 외출하지 않고, 몇날 며칠 집에만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같은 간단한 외출 해 상점에 가는 일과 같은 간단한 외출 제외)
개인	자아존중감*	106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91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책임감	107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92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목표의식	108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 각이 있다.	93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 각이 있다.		
	유머감각		94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감각을 잃 지 않는다.		제외
	적극적 문제해결*	109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유를 생각해 보고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한다.	95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유를 생각해 보고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한다.		
	건강관리	110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있다.			

분류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1차년도(문항개발)-(2015)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2010)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2009)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2006) <sup>(4)</sup>	비고
개인	희망	111 내가 마음먹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상 황이 나아질 것이다.				신규
가정	가족의 관심 및 신뢰	112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다.	96 부모님은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수정
		113 우리 가족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	97 가족들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			수정
또래	친구 관계	114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신규
		115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	98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			
학교	교사의 관심 및 관계	116 즐겁게 어울리는 친구가 있다.				신규
		117 나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118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나 지도를 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99 나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지역 사회	지지체계	119 우리 동네에는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00 내 주변에는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수정
		120 우리 동네에는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신규

보 호 요 인

## [부록 기]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척도의 ANOVA 및 사후검증 결과

### [위기수준별 보호요인 척도의 ANOVA]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			전체		
df	F	p	df	F	p	df	F	p	df	F	p	df	F	p	df	F	p
5	15.211	.000***	5	31.890	.000***	5	9.142	.000***	5	6.910	.000***	5	4.415	.001**	5	19.132	.000***

\*p<.05, \*\*p<.01, \*\*\*p<.001

### [사후검증 결과]

구분	위기수준(I)	위기수준(J)	p	구분	위기수준(I)	위기수준(J)	p
전체	1수준	2수준	.160	개인	1수준	2수준	.815
		3수준	.000***			3수준	.012*
		4수준	1.000			4수준	1.000
		5수준	.460			5수준	.709
	2수준	1수준	.160		2수준	1수준	.815
		3수준	.381			3수준	1.000
		4수준	1.000			4수준	1.000
		5수준	1.000			5수준	1.000
	3수준	1수준	.000***		3수준	1수준	.012*
		2수준	.381			2수준	1.000
		4수준	1.000			4수준	.230
		5수준	.053			5수준	.968
	4수준	1수준	1.000		4수준	1수준	1.000
		2수준	1.000			2수준	1.000
		3수준	1.000			3수준	.230
		5수준	1.000			5수준	1.000
	5수준	1수준	.460		5수준	1수준	.709
		2수준	1.000			2수준	1.000
		3수준	.053			3수준	.968
		6수준	.000***			6수준	.000***
	6수준	1수준	.000***		6수준	1수준	.000***
		2수준	.000***			2수준	.000***
		3수준	.329			3수준	.206
		4수준	.587			4수준	.019*

\*p<.05, \*\*p<.01, \*\*\*p<.001

구분	위기수준(I)	위기수준(J)	p	구분	위기수준(I)	위기수준(J)	p
가정	1수준	2수준	.303	또래	1수준	2수준	.182
		3수준	.000***			3수준	.000***
		4수준	1.000			4수준	1.000
		5수준	.991			5수준	.712
	2수준	1수준	.303		2수준	1수준	.182
		3수준	.001**			3수준	.117
		4수준	1.000			4수준	1.000
		5수준	1.000			5수준	1.000
	3수준	1수준	.000***		3수준	1수준	.000***
		2수준	.001**			2수준	.117
		4수준	1.000			4수준	1.000
		5수준	.000***			5수준	.006**
	4수준	1수준	1.000		4수준	1수준	1.000
		2수준	1.000			2수준	1.000
		3수준	1.000			3수준	1.000
		5수준	1.000			5수준	1.000
	5수준	1수준	.991		5수준	1수준	.712
		2수준	1.000			2수준	1.000
		3수준	.000***			3수준	.006**
		6수준	.000***			6수준	.001**
	6수준	1수준	.000***		6수준	1수준	.000***
		2수준	.000***			2수준	.074
		3수준	1.000			3수준	1.000
		4수준	.487			4수준	1.000

\*p<.05, \*\*p<.01, \*\*\*p<.001

구분	위기수준(I)	위기수준(J)	p	구분	위기수준(I)	위기수준(J)	p
학교	1수준	2수준	1.000	지역사회	1수준	2수준	.780
		3수준	.063			3수준	.399
		4수준	1.000			4수준	1.000
		5수준	1.000			5수준	1.000
	2수준	1수준	1.000		2수준	1수준	.780
		3수준	1.000			3수준	1.000
		4수준	1.000			4수준	1.000
		5수준	1.000			5수준	1.000
	3수준	1수준	.063		3수준	1수준	.399
		2수준	1.000			2수준	1.000
		4수준	1.000			4수준	1.000
		5수준	.662			5수준	1.000
	4수준	1수준	1.000		4수준	1수준	1.000
		2수준	1.000			2수준	1.000
		3수준	1.000			3수준	1.000
		5수준	1.000			5수준	1.000
	5수준	1수준	1.000		5수준	1수준	1.000
		2수준	1.000			2수준	1.000
		3수준	.662			3수준	1.000
		6수준	.004**			6수준	.037*
	6수준	1수준	.002**		6수준	1수준	.012*
		2수준	.046*			2수준	1.000
		3수준	1.000			3수준	1.000
		4수준	1.000			4수준	1.000

\*p<.05, \*\*p<.01, \*\*\*p<.001

# **Abstract**

---

## **A National Survey of Youth Risk Behaviors**

### **- The first year(Question Development) -**

The problem of youth become more critical and complex, the number of youth at risk is increasing every year. The survey of youth risk behaviors has done consistently since 2005.

However, studies on the actual condition of youth at risk until now use different research tools and the size of research is all different, so the system that can be expected the tendency of the actual condition of youth at risk from now on does not set up properly. Therefore, the study has done for two years and especially focus on setting up a foundation this year. The study set up the concept of youth at risk and developed question this year and the second year the study will carry out the survey of youth risk behaviors all over the country and do variation comparison analysis.

First, the concept of youth at risk was redefined based on various concepts of literature and previous studies. And the questionnaire is developed for the concept of youth at risk and issues these days.

The derived items developed by the expert verification. The preliminary examination did by items and final items developed by preliminary examination result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the advisory council of experts. The final question is composed of a total of 120 items, including 46 risk factors items, 43 risk behaviors items, 15 protective factors items and 16 common characteristics items.

The pilot survey was carried out using a pilot survey to 512 youth, including 455 students(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nd 57 drop out of youth by using the final items.

Conducted a pilot survey result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determined on the survey items of youth risk behaviors in 2015



The result of the pilot survey showed that high-risk group was 3.1%, potential risk group 12.7%, the general group was 84.2%. According to the risk level, level 1 was 2.5%, level 2 was 5.9%, level 3 was 7.4%, level 4 was 0.6%, the total risk group showed 16.4%. level 5 of potential group was 6.8%, level 6 of general group was found to be 76.8%. Between the risk levels and protective factors, it generally tends to increase protective factors score from level 1 to level 3.

There are policy sugges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It is required to make the various government policy of the youth at risk. Second, it is essential to make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Third, it is important to help for a youth at risk crisis intervention by types and levels. Fourth, youth at risk issues prediction by using a big data and preemptive action effort is required. Finally, the promotion of help youth phone call 1388 and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s needs to strengthen.